

고성 동외동패총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 貝塚, 環壕 그리고 防禦

패총

환호

방어

일시 : 2022년 7월 8일(금) 13:00-17:50

장소 : 고성 문화 체육센터 2층



주최 : 고성군

주관 : (재)삼강문화재연구원

##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동외동패총은 일찍부터 그 역사적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받아 1974년 12월 28일 경상남도 기념물 제26호로 지정되었으며, 고성 송학동고분군과 함께 소가야를 대표하는 유적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성군은 보다 정확한 소가야사의 복원과 동외동패총만의 특징을 살려 국가사적을 모색하기 위하여 최근까지도 학술발굴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까지의 조사성과를 말씀드리고 동외동패총의 위상과 가치를 재조명하여 국가사적지정을 추진하고자 “패총, 환호 그리고 방어”라는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의미 있는 학술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성군수 **이상근**

삼강문화재연구원장 **최종규**

### 제1부. 개회

진행 : 배명숙(고성군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 가야사복원TF담당)

13:00~13:30 (30분)	등록
13:30~13:40 (10분)	개회 및 진행안내
13:40~14:00 (20분)	환영사 : 고성군수 축사 : 고성군의회회장

### 제2부. 주제발표

진행 : 윤광민(삼강문화재연구원 조사팀장)

14:00~14:30 (30분)	주제발표1. 고성 동외동패총의 조사현황과 최신 조사성과 강경연(삼강문화재연구원 주임연구원)
14:30~15:00 (30분)	주제발표2. 남해안의 高地性集落과 環境 소배경(삼강문화재연구원 조사과장)
15:00~15:10 (10분)	휴식 및 장내정리
15:10~15:40 (30분)	주제발표3. 남해안지역의 청동기문화와 정치체의 성장 조진선(전남대학교 문화인류고고학과)
15:40~16:10 (30분)	주제발표4. 고성 동외동유적(동외동패총)의 가치와 사적 지정 필요성 홍보식(공주대학교 사학과)
16:10~16:20 (10분)	휴식 및 장내정리

### 제3부. 종합토론

16:20~17:50 (90분)	종합토론	좌장 토론자	임학중(전 김해박물관장) 이영식(가야사학회장, 인제대학교 명예교수) 이동희(인제대학교 인문문화학부) 김수환(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
----------------------	------	-----------	---

## 환 영 사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선 8기를 맞이하여 “고성을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의 구호와 함께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고성” 건설을 위한 뜻깊은 자리에 귀한 시간 함께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군 세 번째 국가사적 승격을 위한 「고성 동외동패총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주신 군민을 비롯한 여러 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성은 우수한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일본과도 활발히 교류하여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꽃피운 자랑스런 소가야입니다.

특히,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와 함께 고성 송학동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온 군민이 하나가 되어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소가야왕도 복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고성 동외동패총은 1974. 12. 26일 경남도 기념물 제26호로 지정되었으며, 고성 송학동고분군과 함께 소가야를 대표하는 유적입니다. 우리군은 보다 명확한 소가야사의 복원과 고성 동외동패총의 특징을 살려 국가사적으로 승격하기 위하여 오늘 첫 학술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사성과를 바탕으로 고성 동외동패총의 가치와 위상을 재조명하여 국가사적으로 반드시 지정하여 “군민께서 함께하는 휴식공원”으로 조성하여 소가야의 왕도를 복원하고자 하오니, 오늘 행사에 참석하여 주신 군민과 학예 관계자 모든 분들께서 더 큰 관심으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소가야의 문화유산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는 중요한 자리가 되길 기대하며, 고성 동외동패총의 발굴성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역사속의 공원으로 군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2. 7. 8.

고성군수 이상근



## 축 사

---



한 해의 시작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7월을 맞이하였습니다.

2022년 7월은 민선 8기의 힘찬 출발과 함께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고성” 건설을 위한 뜻깊은 시간입니다.

더욱이 오늘 “고성 동외동패총 학술대회”는 우리의 역사를 면면히 이어온 소가야의 왕도 복원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며 앞으로 발굴조사 등 복원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 경남도 기념물을 국가사적으로 승격하기 위한 중요한 학술대회이기에 군민의 뜻을 모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소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고성 송학동고분군 세계유산등재” 추진과 함께 소가야 왕도를 찾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아낌없는 격려와 용기를 북돋우는 군민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성은 해상왕국 소가야로 후기가야의 대외 무역항으로서의 가야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역사와 문화를 함께하는 중심은 우리 군민입니다. 고성 동외동패총이 국가사적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아낌없는 예산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랑스런 소가야의 복원을 위하여 학술대회에 자리를 빛내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가정에 항상 건강과 함께 행복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2022. 7. 8.

고성군의회 의장 최을석



## 목 차

---

고성 동외동패총의 조사현황과 최신 조사성과 강경연(삼강문화재연구원 주임연구원)	9
남해안의 高地性集落과 環壕 소배경(삼강문화재연구원 조사과장)	31
남해안지역의 청동기문화와 정치체의 성장 조진선(전남대학교 문화인류고고학과)	57
고성 동외동유적(동외동패총)의 가치와 사적 지정 필요성 홍보식(공주대학교 사학과)	85
토론문 1 이영식(인제대학교 명예교수)	109
토론문 2 이동희(인제대학교 인문문화학부)	115
토론문 3 김수환(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	121





# 주 제 발 표 1.

---

고성 동외동패총의 조사현황과 최신 조사성과



# 고성 동외동패총의 조사현황과 최신 조사성과

강경연(삼강문화재연구원 주임연구원)

## < 목 차 >

### I. 머리말

### II. 조사현황과 내용

1. 1914년 및 1917년 동외동패총의 확인
2. 1969년~1971년 영남지방 패총유적 조사의 일환
3. 1974년 동아대학교의 긴급발굴조사
4. 1995년 국립진주박물관의 기획조사
5. 2005년 삼강문화재연구원 발굴조사
6. 2017년 해동문화재연구원 발굴조사

### III. 최신 조사성과

1. 2018년 삼강문화재연구원 지표조사
2. 2021년 삼강문화재연구원 발굴조사

### IV. 맺음말

## I. 머리말

고성 동외동패총<sup>1)</sup>은 고성읍 중심지에서 동쪽에 치우쳐 있는 낮은 구릉(해발 약32.5m)에 위치하며, 삼한시대 고성지역을 대표하는 유적이다. 유적은 구릉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일부만 경상남도 기념물 제26호(면적 18,916㎡)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도기념물로 지정된 구릉 정상부와 사면의 중간부분은 과실수 식재, 텃밭 등의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구릉말단부는 주택건축, 도로확장, 공장설립 등 지속적인 파괴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고성군은 동외동패총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유적의 현황을 인식하고, 학술발굴조사, 문화재구역의 토지 매입, 유적지 주변 펜스 설치를 통한 정비 등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고성 동외동패총은 1914년부터 부분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동외동패총은 과거의 조사들을 통해 유적이 입지하는 구릉 내에서 어떤 성격의 유구가 어느 부분에 입지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현황은 파악되어 있다. 유적의 전체적인 조사현황과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2021년 구릉 정상부 주변

1) 동외동패총은 ‘고성패총’, ‘당산패총’, ‘동외동유적’, ‘동외리유적’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데, 현재 경상남도 기념물 지정명칭인 ‘동외동패총’으로 설명하였다.

으로 조사한 ‘동외리 255-1번지 일원의 발굴조사’ 성과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 II. 조사현황과 내용

고성 동외동패총에 대한 과거 부분적인 조사 현황과 최근 문화재 지정범위 및 그 주변에서 발굴조사된 유적들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현황과 유구가 확인된 유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 1. 1914년 및 1917년 동외동패총의 확인

처음 동외동패총에 대한 조사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과 1917년에 일본인 학자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도리이 류조는 조선총독부의 촉탁으로 1914년 1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경상남북도의 유적을 조사하였는데, 이 일정 중 1914년 2월 7일부터 9일까지 고성지역을 방문하여 동외동패총을 확인하였다. 이후 도리이 류조는 1917년 10월 24일부터 1918년 1월 14일까지 경상남북도의 유적에 대해 다시

사진 1. 1914년 유리건판 : 제3회 사료조사 고성읍 철성 부근의 패총



• 촬영: 1914년 • 원판번호: 130120  
남산에서 바라본 동외동패총 전경으로 추정



• 촬영: 1914년 • 원판번호: 130121  
동외동패총 근경으로 추정

사진 2. 1917년 유리건판 : 고성 당산패총



• 촬영: 1917년 • 원판번호: 170167  
동외동패총 전경으로 추정



• 촬영: 1917년 • 원판번호: 170168  
고성동외동패총 패각 노출상태로 추정

조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1917년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고성 수남리패총과 ‘당산 패총’이라고 기록한 동외동패총을 조사하여 다수의 유물을 수습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도리이 류조의 조사과정은 조사 후 제출한 복명서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유리건판<sup>2)</su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진 3. 도리이 류조와 1917년 고적조사위원 복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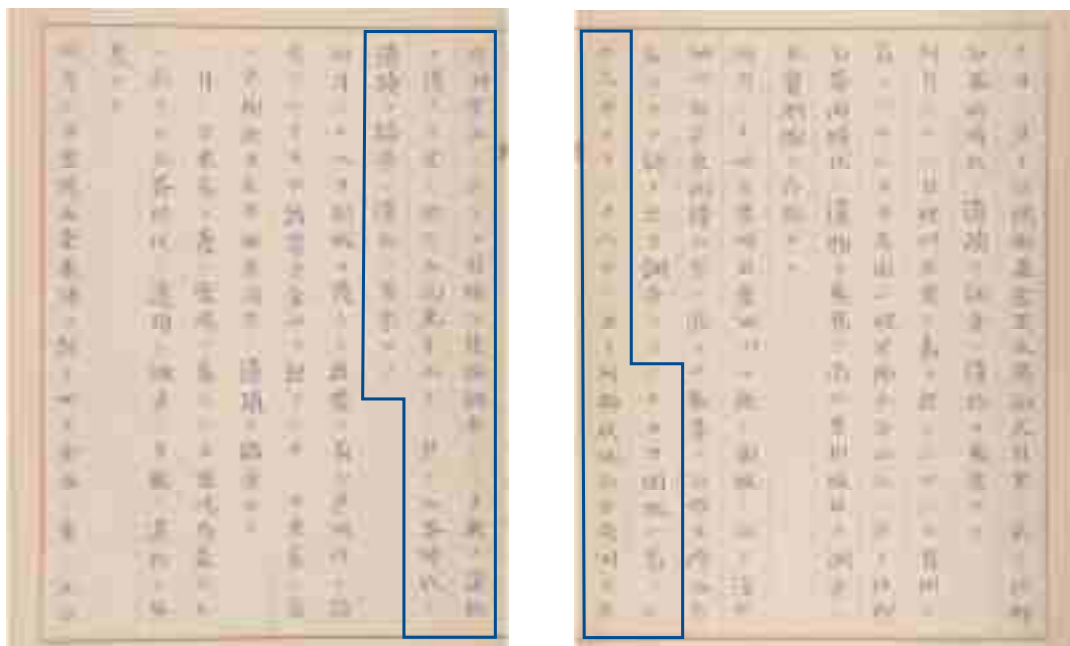


사진 4. 1917년 도리이 류조의 복명서에서 확인되는 고성지역 조사내용 (□부분: “...(중략) 25일(1917.12.25.) 고성에 도착하여 26일부터 28일에 걸쳐 同郡 鐵城面 水南洞 및 東外洞 堂山(동외동패총)에서 패총을 발굴조사하여 다수의 유물을 얻었다...”)

도리이 류조는 동외동패총에 대한 별도의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아, 구체적인 조사지점

2) 국립김해박물관, 2016, 『石器時代-鳥居龍藏 調査 琉璃乾板』

이나 유물의 종류 등에 대한 조사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운데, 당시 동외동패총을 ‘慶南 古城 貝塚’, ‘堂山 貝塚’으로 인식하고, 전경 및 패각의 일부에 대한 사진 기록을 남겼다.

## 2. 1969년~1971년 영남지방 패총유적 조사의 일환

국립중앙박물관<sup>3)</sup>은 金海期文化(원삼국시대)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 영남지방에 산재되어 있는 패총유적 조사계획을 세웠고, 그 일환으로 동외동패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는 1969년과 1970년의 트렌치조사, 1971년에는 지표조사로 이루어졌으며, 발굴지의 위치는 동외리 253-1田 및 253-2田 일원이다.

트렌치조사를 통해 패각층의 퇴적양상을 확인하였다. 평면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으나, 토층도를 보면 소토띠나 목탄층이 보여 주거지 등 유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출토유물은 무문토기, 적갈색연질토기, 와질토기 등으로 구분되며, 적갈색연질토기의 수량이 가장 많다. 층위를 통해 적갈색연질토기가 선행하며, 어느 정도 공존기간을 거친 후 도질토기 단계로 이행되어 감을 확인하였다.



그림 1. 국립중앙박물관-조사대상지의 위치(○)와 트렌치 배치도

## 3. 1974년 동아대학교<sup>4)</sup>의 긴급발굴조사

고성읍 천도교 교당 신축공사 부지였던 堂山(동외동패총)의 서남사면에서 유물이 출토되어 동아대학교박물관에서 긴급수습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지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조사한 경사면 바로 아래쪽이다. 유적의 위치는 동외리 404-1田일원이며, 이 부지는 유적보존을 위해 동아대학교에서 매입하여 현재 복토되어 보존중이다.

긴급수습조사여서, 조사 전 이미 유적의 일부가 파괴되고, 유물이 흩어져 있는 상태였

3) 국립중앙박물관, 1992, 『固城貝塚 發掘調査報告書』

4) 동아대학교박물관, 1984, 『附.固城東外洞貝塚』『上老島』

다. 조사범위가 좁고, 기간이 짧아 정밀조사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유적의 성격은 파악할 수 있었다. 조사결과, 패총은 약 1.5~2m의 퇴적층을 형성하였으며, 2개의 문화층을 확인하였다. 제1문화층에서는 석관묘, 옹관묘, 토광묘가 확인되었고, 제2문화층에서는 야철지의 일부와 토광묘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대부분 수습품으로 삼한~삼국시대의 토기편과 골각기가 출토되었고, 청동검파두식, 廣形銅矛片, 漢鏡 및 인문도, 야요이계토기 등의 외래계 유물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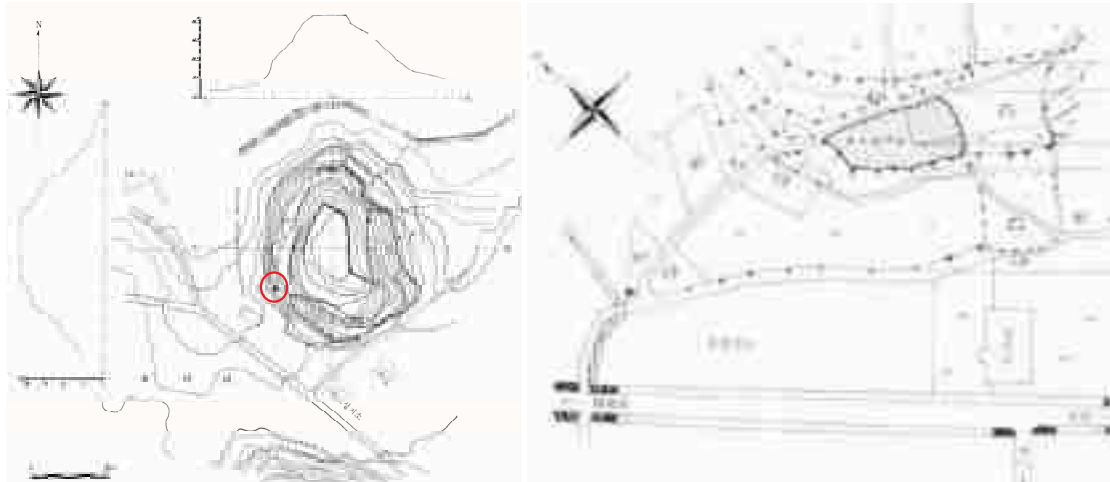


그림 2. 동아대학교박물관-조사대상지의 위치(○)와 조사구역

#### 4. 1995년 국립진주박물관<sup>5)</sup>의 기획조사

국립진주박물관은 1995년 가야유적 발굴조사의 일환으로 고성 동외동유적을 선정하여 동외동패총 정상부의 평탄지와 사면부를 발굴조사하였다. 발굴지역은 ‘가’·‘나’·‘다’의 3개 지구로 구분된다.

‘가’지구는 구릉 정상부의 평탄지이고, 동외리 254-1田에 해당된다. 조사결과, 4기의 의례수혈이 확인되었다. 수혈은 구릉 정상부의 가장자리를 따라 弧狀으로 확인되며, 국화잎 모양으로 불룩불룩하게 돌출된 형태로 계속 이어져 있다. 조사단은 연접수혈이 구릉 정상부라는 선택된 공간을 점유하고, 반복적으로 굴착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점, 자연상태 그대로 방치된 점, 儀器인 조문청동기가 출토되고 유물이 파쇄·散見되어 노출되는 점으로 의례수혈로 파악하였다. ‘나’지구는 정상부에서 동쪽으로 한 단 낮은 사면부이고, 동외리 251田에 해당된다. 주거지가 상하로 중복된 형태로 확인되었는데, 조사여건상 최상층에 노출된 주거지 14동만 조사하였다. ‘다’지구는 구릉 남사면이고, 동외리 406田에 해당된다. 성격 불명의 말각장방형의 수혈 2기가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동외동패총에서는 공간을 분할하여 유구가 배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상부의 평탄지 가장자리에는 祭儀가 행해진 수혈이, 구릉의 중앙에는 空白을 이루는 廣

5) 국립진주박물관, 2003, 『固城東外洞遺蹟』

場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구릉 정상부보다 한단 낮은 사면부에 주거지가 밀집되어 위치하고, 그보다 한단 더 낮은 남사면에는 패총이 형성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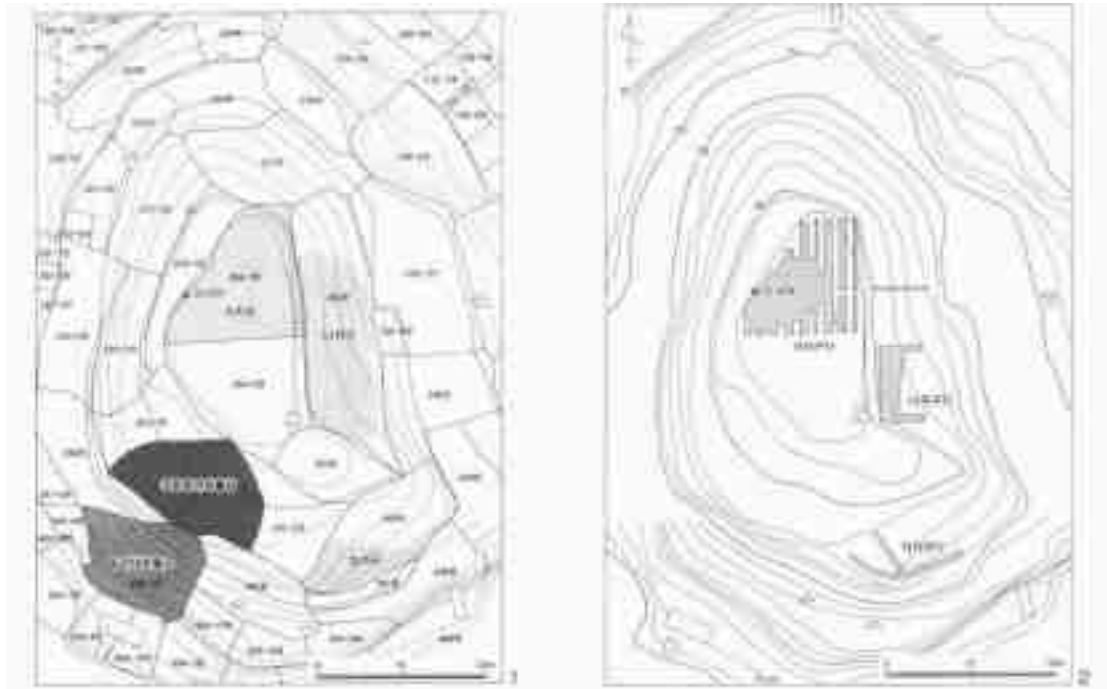


그림 3. 진주박물관-조사대상지의 위치 및 트렌치 배치도

#### 5. 2005년 삼강문화재연구원<sup>6)</sup> 발굴조사

삼강문화재연구원에서는 고성 종합복지관 신축공사부지에 대한 시·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적의 위치는 동외동 230-2번지 일원에 해당된다. 조사구역은 층위를 통해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 지속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조사결과, 삼국시대 부정형 수혈 2기와 고상건물지 1동, 조선시대 수혈 1기 등이 조사되어 동외동패총의 구릉 말단부까지 유적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부정형의 수혈 중 일부에서 불맞은 흔적과 목탄 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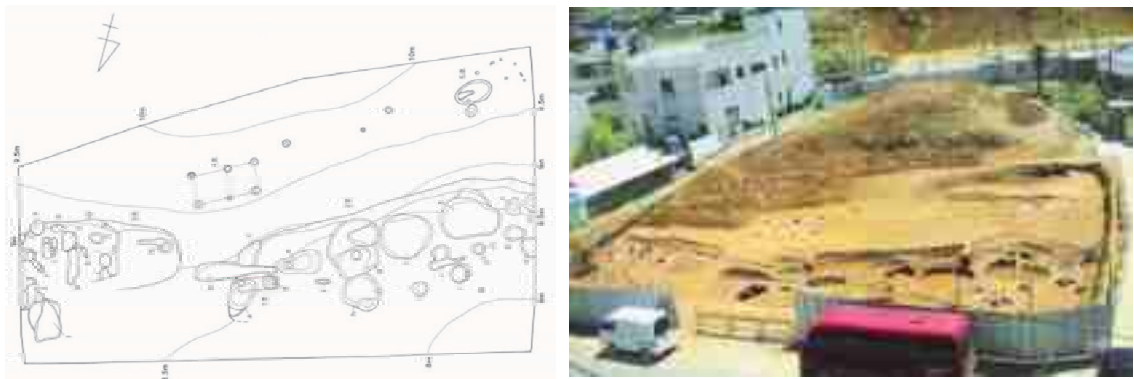


그림 4. 삼강문화재연구원-조사대상지의 유구 배치도 및 전경사진

6) 慶南考古學研究所, 2007, 『固城地域 調査』「固城 東外里遺蹟」



다량으로 확인되는 점 등, 기존 진주박물관에서 조사한 의례수혈과 공통분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적의 중심연대는 6세기로 추정하고 있다.

#### 6. 2017년 해동문화재연구원<sup>7)</sup> 발굴조사

동외리 247번지 일원의 주차장 조성 예정부지에 대한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지역은 동외동패총이 위치한 동쪽 구릉 사면부에 해당되는데, 서쪽으로 교회건물이 자리하고 있고 남쪽은 절토되어 원지형이 대부분 훼손된 상태이다. 조사결과, 조선시대 수혈 6기, 구상유구 4기, 주혈 등이 확인되었다. 내부에서 분청사기 발, 백자 발, 수키와편, 지석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구는 조선시대 생활 및 취락공간으로 이용하였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림 5. 해동문화재연구원-조사지역 위치도 및 유구배치도

### Ⅲ. 최신 조사성과

경상남도 기념물 제26호로 지정된 동외동패총의 문화재 지정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최근의 조사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다.

#### 1. 2018년 삼강문화재연구원 지표조사<sup>8)</sup>

고성 동외동패총(경상남도기념물 제26호) 복원정비를 위한 기본조사 과정에서 제철 관련 추정제철로와 철재편·노벽편을 수습하였다. 유물이 채집된 곳은 현재 밭으로 경작중

7) 해동문화재연구원, 2019, 「고성 동외리 247번지 유적」

8) 삼강문화재연구원, 2018, 「고성 동외동패총 복원정비를 위한 기본조사보고서」

이다. 이곳은 동외동 249번지 남쪽 경계에 해당되는 곳으로, 인근의 교회건설 당시 유구의 일부가 파괴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밭의 단면에 製鐵爐가 드러나 있다. 수습된 유물은 철재편과 노벽편인데, 제련 공정에서 생성된 유리질 철재와 노벽으로 파악하였다.



사진 5. 동외동 249번지 일원 근경 및 밭 단면 추정 제철로 전경



사진 6. 동외동 249번지 일원에서 채집된 철재와 노벽편

## 2. 2021년 삼강문화재연구원 발굴조사<sup>9)</sup>

고성군의 동외동패총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동외동 255-1번지 일원에 대한 발굴 조사를 진행하였다.

동외동패총의 문화재 지정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조사는 1995년 이전에 실시되었고, 각 조사보고서에는 유적의 지번 이외에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2021년 동외리 255-1번지 일원에 대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서는

9) 삼강문화재연구원, 2021, 『고성 동외동패총(경상남도 기념물 제26호) 정비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시·발굴조사 약식보고서』

도기념물로 지정된 동외동패총 전체 범위에 대해 20m 간격으로 그리드를 설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드 조사는 유적의 좌표 및 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분적으로 조사되는 개별 유구의 위치 및 전체적인 유적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최신 조사현황은 이 그리드와 좌표를 통해 위치가 확인이 가능하며, 과거에 조사된 내용은 보고한 유적의 위치와 지적도, 사진 등을 참고하여 최대한 유사한 위치에 배치하였다.

조사대상지는 도기념물로 지정된 동외동패총의 전체 범위를 20m 그리드로 구획하였는데, 전체가 64개이고, 이번 조사구역인 동외동 255-1번지 일원은 크고 작은 19개의 그리드가 해당된다. 그리드 설정 및 조사현황도를 살펴보면 <그림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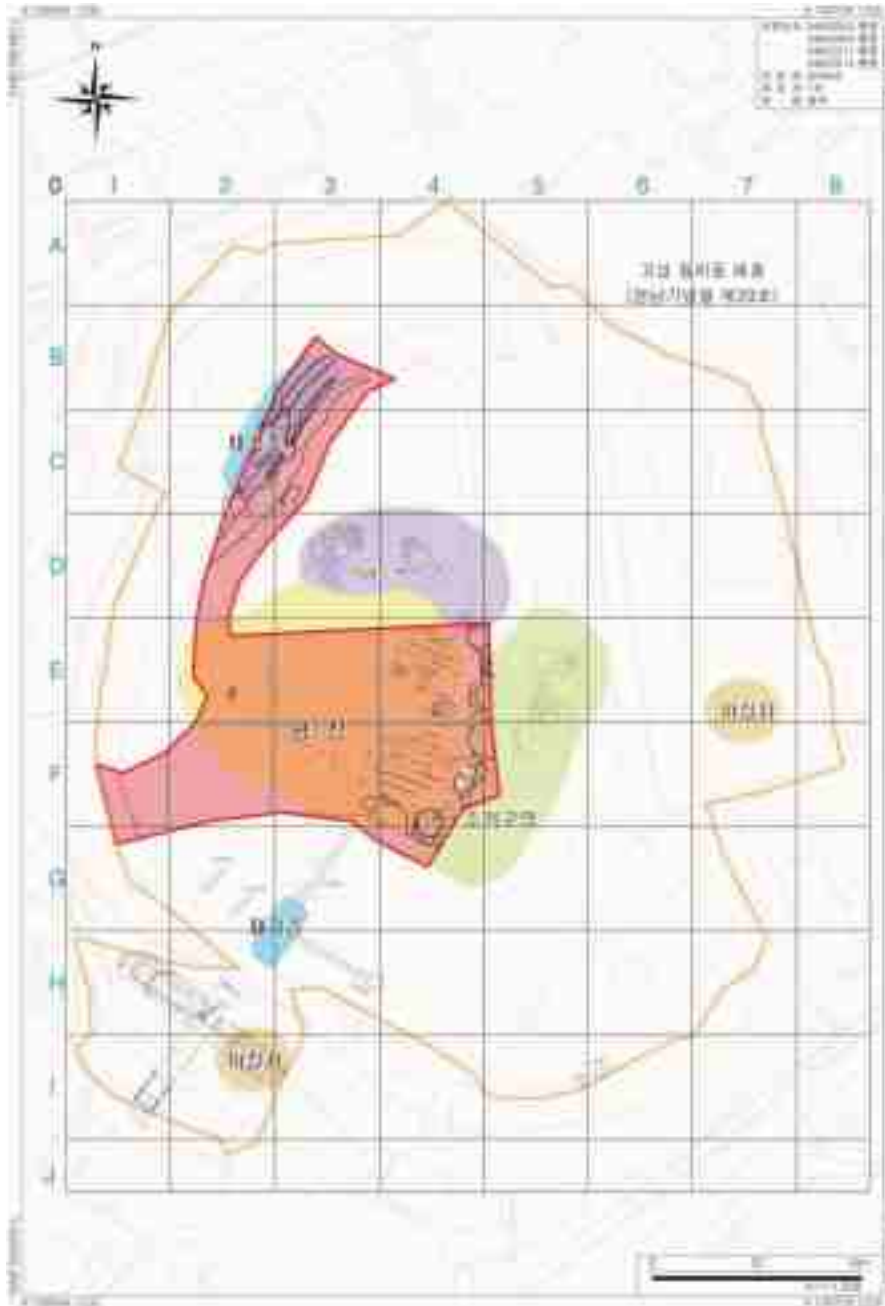


그림 6. 고성 동외동패총 조사 현황도

동외동 255-1번지 일원의 발굴조사 결과, 삼한~삼국시대의 유구는 패총 1기와 주거지 19동, 환호 2기, 수혈 11기, 구상유구 2기, 주혈 2기, 조선시대 무덤 1기가 확인되었다<그림 7>. 각 유구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7. 동외동 255-1번지 일원 유구배치도





사진 7. 조사구역 항공사진

### 1) 패총

조사구역의 B3, C2, C3그리드에서 연속적으로 위치한다. 구릉의 북동쪽에서 경사면의 아래쪽인 서남향으로 진행되는 양상이다. 패각층은 패각의 체적분석, 패류의 구성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세부 그리드를 1~130번까지 설정하였고, 절반은 표본자료로 삼았다.

패총의 층위는 혼토패각층-암황적갈색토-혼토패각층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표토층을 제거하면 바로 생토인 적갈색토가 드러났다. 패각층은 얇은 溝形으로 규격은 잔존 길이 2,600cm·너비 900cm·깊이 50cm 내외이다.



사진 8. 패총 전경 및 조사중 전경

내부에서 굴·고동류·바지락·피빨고동 등 식용으로 21종의 貝類가 확인되었다(표2). 유물은 패각층에 뒤섞여 토기류, 골각기류, 철기류 등이 출토되었다. 골각기는 녹각제 刀子 柄片·骨鏃·骨錐·原素材와 素材 등이, 철기류는 철제 낚시바늘·철도자 등이 수습되었다. 토기류로는 연질옹·대호편·단경호편·시루편·고배편·낙랑계 방추차·야요이계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사진 9. 패총 출토 패각의 종류

2호 패총의 貝類는 21종이 확인되었다(표 1). 21종은 모두 한반도에 분포하고 있는 현생종이다. 서식지는 대부분 內灣의 灣奥의 干潟부터 수심20m의 얇은 바다와 沿岸의 암초 해안과 육지의 호수와 늪, 하천, 논이나 용수로 등 담수역에 서식하고 있는 패류이다. 참굴, 피빨고동, 바지락, 갯우렁이, 홍합, 가무락조개 등이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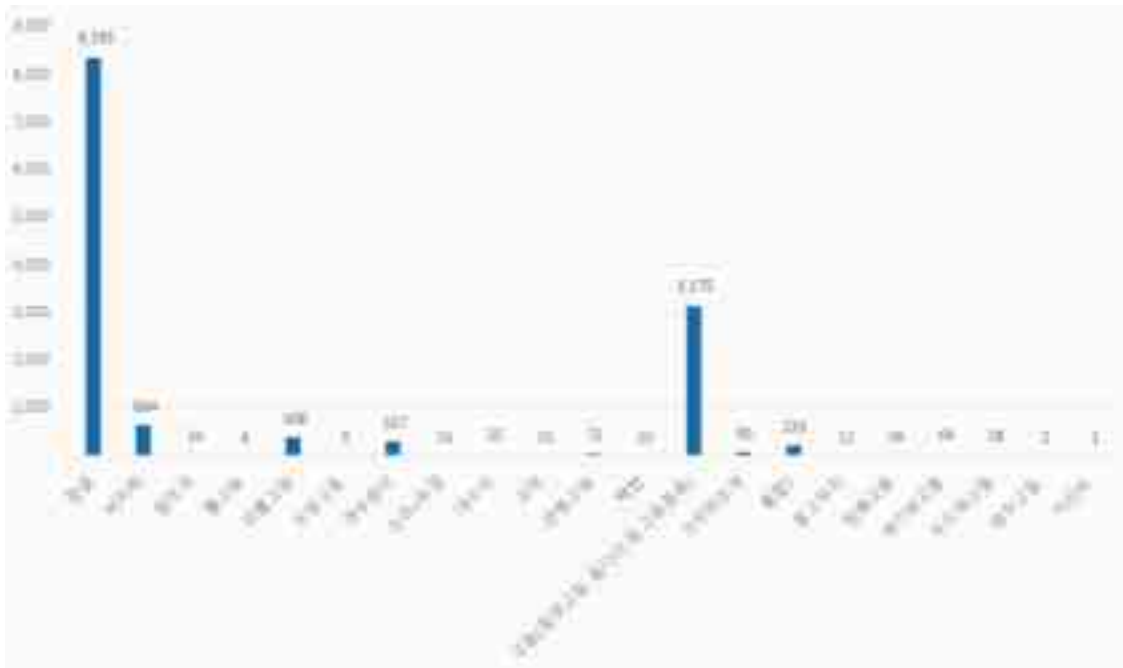
그 중에서 식용으로 많이 확인되는 패류는 참굴, 피빨고동, 바지락, 소라 등이다.

표 1. 패총 패각분류 현황표

번호	국명	학명	분포	수량(개)	비율(%)	비고
1	참굴	<i>Crassostrea gigas</i> (THUNBERG)	전연안	8,395	61.744	干潟群集
2	고동(점갯고동, 동다리 등)	Family Potamididae	남·서해안	3,175	23.352	內灣砂底群集
3	바지락	<i>Tapes philippinarum</i> (ADAMS & REEVE)	남·서해안	664	4.884	內灣砂底群集
4	피빨고동	<i>Rapana venosa</i> (VALENCLENNES)	남·서해안	406	2.986	內灣砂底群集
5	갯우렁이	<i>Lunatia fortunei</i> (REEVE)	남·서해안	327	2.405	-
6	홍합	<i>Mytilus coruscus</i>	전연안	235	1.728	-
7	가무락조개	<i>Cyclina sinensis</i> (GMELIN)	남·서해안	90	0.662	-
8	큰뺨고동	<i>Serpulorbis</i> ( <i>Glodopama</i> ) <i>imbricatus</i> (DUKER)	남해안	72	0.530	-
9	대수리	<i>Reishia clavigera</i> (Kiister)	전연안	55	0.405	干潟群集
10	애기뺨고동	<i>Omphalius nigerrimus</i> (Gmelin)	전연안	49	0.360	干潟群集
11	두드럭고동	<i>Thais bronni</i> (DUNKER)	남해안	28	0.206	-
12	말조개	<i>Unio douglasiae</i> (Griffith et Pidgeon)	-	24	0.173	-

13	침배고둥	<i>Crepidula gravispinosa</i> (Kuroda&Habe)	-	16	0.118	-
14	소라+뚜껑	<i>Turbo (Batillus) cornutus</i> (SOLADER)	제주도, 남·동해안	15	0.110	沿岸岩礁性群集
15	꼬막	<i>Tegillarca granosa</i> (Linnaeus)	남·서해안	15	0.107	-
16	돌고부지	<i>Trpezium Liratum</i> (Reevw)	-	15	0.088	-
17	백합	<i>Meretrix Lusoria</i> (Roding)	-	10	0.074	-
18	빨고둥	<i>Hexaplex trunculus</i>	-	4	0.029	-
19	눈알고둥	<i>Lunella coronatus coreenisis</i> (Recluz)	-	3	0.022	-
20	명주고둥	<i>Chlorostoma xanthostigma</i> (A.ADAMS)	남해안	2	0.015	-
21	가리비	<i>Patinopecten yessoensis</i>	-	1	0.004	-

그림 8. 패총 출토 패각류의 수량



동외동패총에서 확인되는 21종의 패류는 外海에 면한 암초부터 內灣, 나아가 육지의 담수역에 서식한다. 동외동의 패류는 조간대 모래와 진흙 바닥, 암초 사이의 모래와 자갈에 서식하는 참굴이 상대적으로 많이 출토되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옛 고성만으로 흘러 들어간 중소의 하천이 반출하는 토사에 의해 河口에서 灣奥部에 걸쳐 汽水域의 환경이 넓어져 본 군집이 서식하기 쉬운 환경이 늘어나 干潟群集의 서식이 적합한 환경으로 변화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동외동패총의 거주민들은 外洋에 나가지 않고 인근에서 貝類를 채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 주거지

조사구역의 E4, F4그리드에 위치한다. 구릉 頂部 동쪽과 동남쪽 사면에 모두 19동이 확인되었다. 이 중 대부분이 조사경계 바깥으로 이어지고, 후대 삭평과 경작으로 인해 사면 아래쪽은 훼손이 심한 편이다. 주거지의 대부분은 인접한 주거지 및 수혈 등과 중복관계를 이루고 있다. 주거지는 구릉의 경사면에 수혈식으로 조성되었으며, 평면형태는 원형 또는 타원형인데, 규모가 큰 주거지는 장타원형에 가깝다. 주축은 등고선과 나란한 동서향과 남북향이다. 직벽이며, 바닥면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사진 10. 주거지 전경 및 16~18호 주거지 전경



사진 11. 8호 주거지 전경 및 아궁이 세부



사진 12. 중복 주거지 전경



표 2. 주거지 집성표

※( ): 잔존상태

호수	평면형태	규모 (cm)		출토유물	선후관계 (先→後)
		길이	너비×깊이		
6호	타원형	(205)×600×22		옹, 시루편, 배신부편, 호구경부편, 둥근돌 등	14→6
7호	타원형	(300)×452×14~32		옹구연부편, 둥근돌	7→6
8호	원형	500×510×22		호, 접시, 시루편, 동체부편, 저부편, 지석, 둥근돌 등	8→9
9호	타원형	(240)×(540)		-	8→9
10호	타원형	(195)×(490)×(21)		대각편, 배신부편(야요이계토기), 옹 구연부편 등	30·31→10→11
11호	타원형	(210)×(490)×(16)		발편, 호구경부편, 시루편, 개편, 파수편, 둥근돌 등	30·31→10→11
12호	타원형	(400)×(350)×(22)		대각편, 구연부편	11→12→6
13호	장타원형	(330)×(450)		-	30→11→13→25
14호	타원형	(88)×382×26~50		구경부편, 동체부편, 저부편, 둥근돌 등	14→6
16호	타원형	(320)×410×2~10		둥근돌	16→17
17호	장타원형	(350)×763×11~24		시루, 대각편, 저부편, 지석, 철기편 등	16·18→17
18호	타원형	(290)×(410)×14		옹, 호구경부편, 시루저부편, 파수편 등	18→17
19호	장타원형	680×420×15		옹, 호구경부편, 둥근돌 등	19→20·29호 수혈
23호	원형	(210)×(160)		-	23→24
24호	타원형	(310)×(100)		-	24→25
25호	장타원형	(520)×800×24		시루, 저부편, 구연부편 등	13·24·27→25
27호	원형	(180)×370		소형잔, 시루편, 옹편, 완편, 파수편 등	27→25
30호	타원형	(220)×(505)		-	30→11
31호	타원형	(330)×340		파수부시루, 옹구연부편, 파수부옹 등	31→10→11

내부시설은 壁柱와 아궁이가 확인되었다. 그 외 노지(6호), 주혈(8호·14호·18호)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연질옹·대호편·단경호편·시루편·고배편 등이 출토되었다.

구릉 사면에 위치한 수혈주거지는 전체적으로 중복이 심하고, 일정 공간에 밀집해 있음이 확인된다. 중복된 주거지는 사용된 시간과 폐기된 후 다시 주거지로 조성된 시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 3) 환호

조사구역의 B3, C2, C3, D2그리드로 연속되고 있는 양상이고, 구릉의 정상부 북동쪽에서 경사면의 아래쪽인 서남향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인다. 표토층과 자연퇴적층을 40cm가량 제거하자 생토인 적갈색토에서 환호(1-1호·1-3호)가 확인되었다.

1-1호 환호는 조사구역의 가장 북쪽에서 등고선과 나란한 남서방향으로 진행되는 형태이다. 규모는 길이 47m, 너비 1.5~5m, 깊이 1.2m가량이다. 내부토는 암갈색토로 황색암반편과 목탄알갱이가 다량으로 섞여 있으며, 점성이 약하다. 상부에서 청동제 帶鉤 관련 고리편이 수습되었고, 내부에서 弥生系 高杯片, 高杯片, 시루저부편, 옹 구연부편, 파수편, 대각편, 발편, 도질 대호편, 토주, 절두원추형 紡錘車, 王莽이 세운 신나라 화폐인 大泉五十 1점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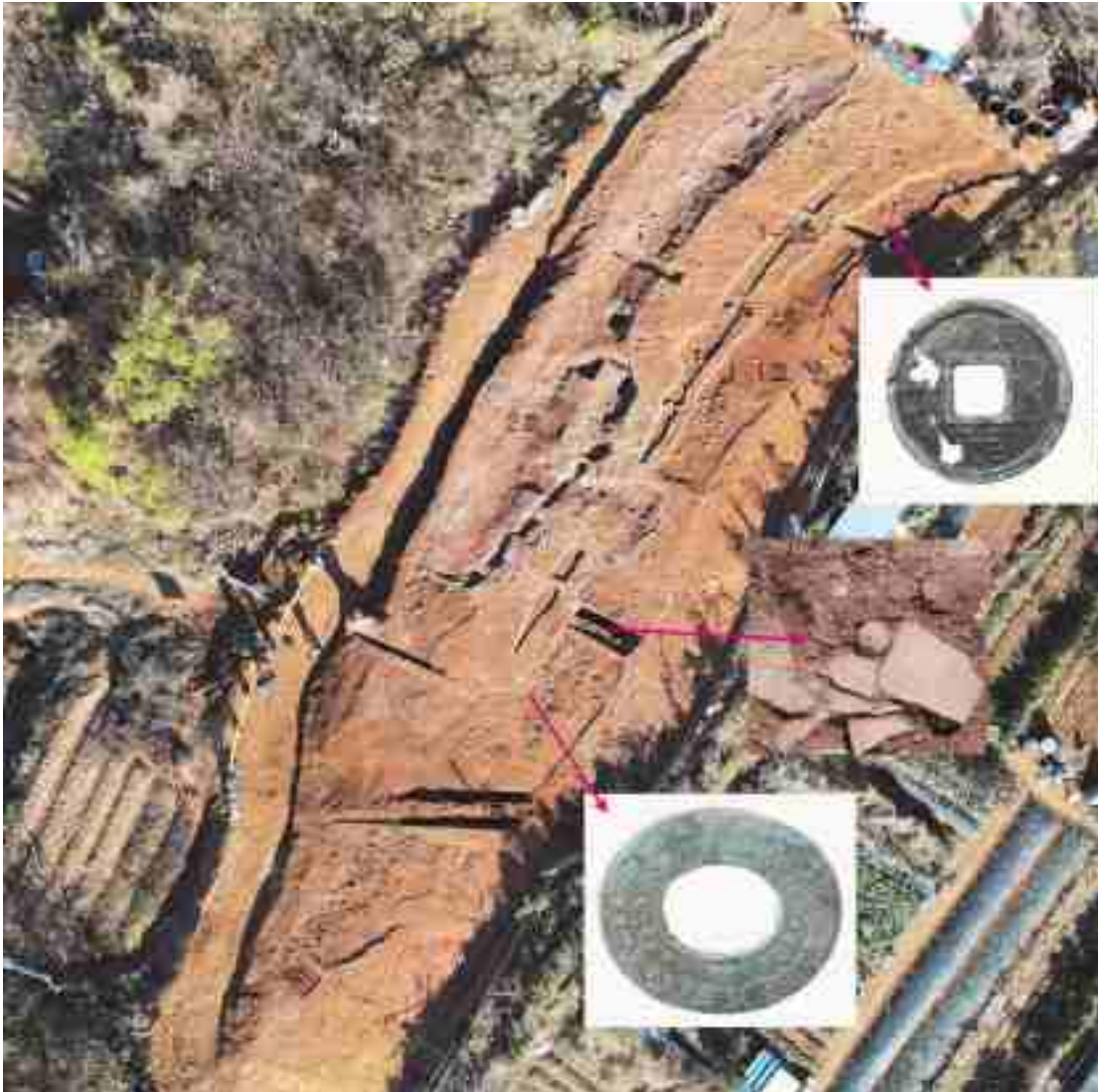


사진 13. 환호 전경 및 출토유물

1-3호 환호는 1-1호 환호에서 경사면 아래쪽으로 2.5~4m가량 떨어진 곳에 조성되었다. 2호 패총과 중복관계에 있으며, 남쪽부분은 1-1호 환호와 나란하게 진행되는 형태가 확인되나 북쪽부분은 패각을 완전히 걷어내야 유구가 관찰된다. 내부토는 1-1호 환호와 유사한 암갈색토로, 황색암반편이 다량으로 섞여 있으며, 점성이 있다. 확인되는 규모는 길이 10m, 너비 2.5m 가량이다.



사진 14. 1-1호 환호 토층 및 출토유물 세부

#### 4) 수혈

수혈은 조사구역의 C2·C3·E4·F4그리드에 위치하며, 11기가 확인되었다. C3그리드의 동쪽 頂部에 인접하여 3호가 위치하고, 현대경작층인 표토를 10cm가량 걷어내자마자 확인되었다. 수혈의 형태는 타원형에 가깝고, 규모는 너비 30~185cm이다. 내부토는 암갈색토로 황색암반알갱이가 다량으로 혼입되어 있고, 목탄알갱이도 소량 포함되어 있다. 내부토에서 토기편이 소량 확인된다.

C2그리드와 C3그리드에 걸쳐 조성된 2호 패총 아래에서 32호~36호 수혈이 확인되었다. 형태는 타원형에 가깝고, 규모는 길이 80~230cm, 너비 50~250cm가량이다. 내부토는 적갈색토이며, 내부에서 토기편과 동물뼈 등이 소량 확인되었다.

E4와 F4그리드에서 주거지보다 위쪽에 자리잡고 있는 수혈(15호·21호·22호)과 주거지를 파괴하고 조성된 수혈(20호·29호)이 확인되었다. 수혈은 생토인 황갈색풍화암반토층에서 확인되었다. 평면은 타원형이며, 벽면은 사벽이다. 바닥면은 비교적 편평하다. 내부토는 황갈색토와 암갈색토로 구분되며, 내부에서 고배와 호 동체부편 및 시루편을 비롯하여 패각 일부가 출토되었다. 수혈의 규모는 길이 120~230cm·너비 47~110cm·깊이 32cm 내외이다.





사진 15. 32~36호 수혈 전경 및 토층 세부



사진 16. 15호 수혈 전경 및 출토유물 세부

#### 5) 구상유구

구상유구는 조사구역의 B3, C2, C3그리드로 연속되는 양상으로 보이는 1-2호와 C3그리드의 남쪽부분에 동남-서북방향으로 진행되는 4호로 총 2기가 확인되었다.

**1-2호 구상유구**는 1-1호 환호에서 20~50cm가량의 간격을 두고 구릉 사면 아래쪽에 위치한다. 구상유구의 규모는 길이 24m, 너비 60~150cm이며, 진행방향은 1-1호 환호와 나란한 남서향이다. 내부토는 암갈색토로 황색암반알갱이와 암반편, 목탄알갱이가 소량으로 혼입되어 있으며 점성은 약하다. 내부에는 호와 동체부편 등 토기편이 소량으로 확인된다.

**4호 구상유구**는 등고선과 나란한 남서방향으로 진행되는 1-1호·1-3호 환호를 파괴하고 동남-서북방향으로 조성되었다. 후대삭평 및 경작으로 인해 대부분 훼손되었으며, 내부토는 적갈색토로 약하게 점성이 확인된다. 규모는 잔존길이 500cm·너비 60~80cm·깊이 15cm내외이다.

### IV. 맺음말

동외동패총은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유적의 전체 범위 중 일부만 조사되었다. 2000년대 이전의 조사는 트렌치 조사와 긴급수습 조사에 치우쳐 있었고, 조사되지 않은 부분

이 많아, 유적은 공간분할이 이루어져 유구가 배치되었을 것으로만 추정하였다.

최근에 우리 연구원에 의해 이루어진 동외동 255-1번지 일원의 발굴조사는 구릉 정상 부부터 남동사면부까지 비교적 넓은 범위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유적의 공간활용 및 성격을 확인하는 성과를 마련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삼한~삼국시대 패각층 1개소와 주거지 19동, 환호 2기, 수혈 11기, 구상유구 2기, 주혈 2기, 조선시대 무덤 1기가 확인되었다.

조사구역 중 구릉의 남쪽부분인 E2, E3그리드 일대에는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기 조사구역 현황도를 참고해 볼 때 구릉 頂部에 조성된 廣場으로 파악된다. 구릉 頂部 광장을 중심으로 의례수혈이 위치하고, 그 아래 단에 주거지가 위치한다. 이 아래 사면부에는 住居域을 감싸고 있는 환호<sup>10)</sup>가 위치하며, 그 아래로 패각층이 확인되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 아래 사면부에는 제철관련 유구가 입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동외동패총의 전체 공간이 활용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遺構와 遺物이 확인된 점이 가장 큰 성과이다.

구릉의 頂部 동북쪽 사면에는 삼한~삼국시대 패총이 위치하는데, 해발 29.8~31.4m에 조성되었다. 북동쪽에서 경사면의 아래쪽인 서남향으로 진행되는 양상이다. 내부에서 참굴·고동류·바지락·피뿔고동 등 21종의 貝類가 확인되었다. 환호는 패각층 아래에서 확인되었으며, 패총과 유사한 진행방향을 보인다. 해발 30.2~31.8m에 조성되었는데, 1-1호 환호는 상부에서 청동제 帶鉤 관련 고리편, 바닥부근에서 ‘大泉五十’ 동전 1점이 확인되었고, 1-2호 환호 내부에서 철두원추형 紡錘車가 수습되었다.

구릉 頂部의 동남쪽에는 삼한~삼국시대 주거지 19동과 수혈이 확인된다. 주거지는 해발 30~31m사이에 조성되었으며, 아궁이 또는 爐 시설을 갖춘 수혈식 주거지이다. 3기 이상이 중복관계를 보이는 양상이며, 평면형태는 원형 및 타원형을 띤다. 수혈은 주거지보다 약간 더 위쪽에 위치하고, 해발 31~32m에 위치한다. 수혈의 형태는 원형 및 타원형에 가깝다. 조선시대 무덤은 구릉의 남쪽에 위치하고, 황갈색암반층에서 확인되었다. 주변에 유구는 확인되지 않으며, 삼한시대의 광장에 해당되는 곳으로 후대 묘가 조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출토유물로는 와질토기편, 시루, 고배, 철두원추형 방추차, 弥生系 高杯片 등 다양한 器種이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도 弥生系 高杯片은 외반구연이며, 기벽이 고르지 않은 것이 많고, 접합부와 구연단 근처가 특히 두껍다. 3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연질옹과 공반하는 점에서 2세기 중후반~3세기로 볼 수 있다. 철두원추형 방추차는 동외동패총에서 4점(동아대박물관 3점, 진주박물관 1점)이 출토되었다. 기 시굴조사에서도 철두원추형 방추차 1점이 출토되어 동외동패총에서 모두 5점이 확인되었다. 확인된 유구와 출토 유물을 통해 유적의 중심연대는 3~4세기로 추정된다.

10) 최근 발굴조사가 진행 중인 동외동 253-2번지 일원은 구릉의 남쪽에 해당되고, 시굴조사 당시 추정 환호가 확인되었으며, 다량의 적갈색 연질토기와 와질토기가 출토되었다.

삼강문화재연구원, 2022, 『고성 동외동패총(253-2번지 일원) 정비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 주 제 발 표 2.

---

남해안의 高地性集落과 環壕





# 남해안의 高地性集落과 環壕

소배경(삼강문화재연구원 조사과장)

<p><b>목차</b></p> <p><b>I. 머리말</b></p> <p><b>II. 김해기패총 유적 검토</b></p> <p>1. 소위 ‘金海期貝塚’</p> <p>2. 사례검토</p> <p><b>III. 동외동유적의 평가</b></p> <p>1. 입지와 경관</p> <p>2. 고지성집락의 출현배경</p> <p><b>IV. 맺음말</b></p>
---

## I. 머리말

동외동패총<sup>1)</sup>(이하 동외동유적이라 함)은 1914년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에 의해 처음으로 조사된 이래 1917년 도리이의 2번째 조사가 있었다. 하지만 20세기 早期에 이루어진 다른 지역의 조사와 마찬가지로 지표조사나 간단한 수습조사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마저도 도리이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 없고, 사진 몇 장 및 간단한 조사기록만 전해지고 있다.<sup>2)</sup> 해방이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진주박물관의 기획조사 및 동아대학교박물관의 천도교당 건설부지에 대한 긴급조사로 유적의 성격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sup>3)</sup> 이와 함께 최근 가야사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소위 김해기패총 유적인 고성 동외동유적<sup>4)</sup>과 김해 유하리패총<sup>5)</sup> 그리고 양산 다방동패총<sup>6)</sup> 등에 대한 조사에서도 高地에 위치한 集落과 이의 外圍에 돌아간 환호가 확인되어 방어적인

---

1) 동외동패총은 기원후 2~4세기 중국·왜·마한 등 다양한 지역과 대외교류의 모습을 보이는 유물이 출토 되고, 생활유적·제사유적·묘역·생산유적 등이 조합된 복합유적임으로 ‘동외동유적’으로 작성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지성집락이라는 관점에 집중하고자 한다.

2) 國立金海博物館, 2016, 『石器時代-鳥居龍藏 調査 瑠璃乾板』(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8집)

3) 국립중앙박물관, 1992, 『固城貝塚 發掘調査報告書』  
 동아대학교박물관, 1984, 『固城東外洞貝塚』 『上老大島』  
 국립진주박물관, 1995, 『固城東外洞遺蹟』

4) 삼강문화재연구원, 2021, 「고성 동외동패총 정비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시·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삼강문화재연구원, 2022, 「고성 동외동패총 정비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자료」

5) 한화문물연구원, 2022, 『김해 유하동생활유적』

6)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21, 「양산 다방동 패총 시굴 및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高地性集落의 존재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이에 고성 동외동유적 조사와 함께 소위 김해기패총 시기 남해안을 따라 분포하는 高地性集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게 되었다.

## II. 김해기패총 유적 검토

### 1. 소위 ‘金海期貝塚’

한국고고학계에는 金海期의 연대적 위치를 둘러싸고 활발히 논쟁이 진행되었다.<sup>7)</sup> 김해기 논쟁의 초점은 김해기 패총 출토 토기의 연대에 대해서였다. 한국고고학계를 이끈 金元龍教授는 처음부터 이 시기를 原初三國時代라는 의미의 ‘原三國時代’라고 부르지 않았다. 일본인 연구자들이 사용했던 ‘金海文化’라는 文化名, 혹은 ‘金海時期’ 등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金海文化라는 시대명으로 원삼국시대를 처음 다루었던 것은 1963년 출판의 『韓國文化의 考古學的 研究』에서였다.<sup>8)</sup> 이 논고는 1972년과 1973년에 출판된 『韓國考古學概論』의 뼈대가 되었다. 여기서 그는 한국고고학을 구석기시대 및 중석기문화의 연구-신석기시대-청동기문화-초기철기문화-김해문화-삼국 고분문화라는 순서로 설명했다. 나중에 원삼국으로 바뀌게 되는 김해문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낙랑군을 통해 漢文化가 퍼지고 지식묘사회에 북에서 내려온 철기문화가 침투하여 새로운 기술이 확립되는 즈음, 낙동강 유역권에서 일어난 새로운 토착문화로 이는 영남 해안에 한정<sup>9)</sup>된다고 하였다.

1972년에 논문과 일본 번역판 『韓國考古學概論』에서 원삼국시대라는 용어<sup>10)</sup>를 사용했고, 이듬해 1973년에 한국어판을 출간하면서 국내에서도 이를 사용<sup>11)</sup>하였다. 金海文化나 金海時期는 영남 해안지역으로 한정된 용어라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고 신석기와 청동기에서 이어지는 시대구분명과도 어울리지 않는 지엽적인 時代區分名이어서 바

7) 鏡山猛·森貞次郎·小田富士雄, 1967, 「金廷鶴を圍んっの座談會中の發言」 『九州考古學』31

佐原眞, 1968, 「日本農耕起源論批判」 『考古學ジャーナル』23

武末純一, 1974, 「金海式土器に關する一私見」 『古文化談叢』1

西谷正, 1976, 「倭人傳の旅」 『邪馬臺國ぬすべて』

森造一, 1979, 「高地性集落と倭國の亂」 『セミナー日本古代史』上

申敬澈, 1980, 「熊川文化期紀元前上限說再考」 『釜大史學』4

崔鍾圭, 1982, 「陶質土器成立前夜와 發展」 『韓國考古學報』12

金元龍, 1983, 「所謂 瓦質土器에 대하여」 『歷史學報』99·100

8) 金元龍, 1963, 「韓國文化의 考古學的 研究」 『韓國史大系』, 高麗大學校

9) ‘원삼국시대’라는 시대명의 설정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복 후 한국고고학의 틀을 만들어 가던 김원룡교수가 어떠한 맥락과 학문적 기반에서 김해토기와 와질토기 그리고 김해문화와 원삼국시대를 이해하고 정리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즉 일제강점기 김해패총이 발굴되면서 촉발된 관련 논의의 흐름을 정리하고 그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原三國時代’와 김해패총에 대한 學史에 대한 관점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였다.

정인성, 2015, 「韓國考古學史에서 ‘原三國時代’와 김해패총」 『선사와 고대』제46호, pp. 165~192

김성남·김경택, 2013, 『와질토기논쟁고』, 진인진

10) 金元龍, 1972a, 『한국고고학개론』(西谷正 譯), 東出版

\_\_\_\_\_, 1972b, 「石村洞 發見 原三國時代의 家屋殘構」 『考古美術』113·114

11) 金元龍, 1973, 『韓國考古學概說-初版-』, 一志社

꾸었다<sup>12)</sup>고 하였다. 즉, 原三國時代는 先史에서 歷史(三國時代)時代의 과도기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그러나 ‘원삼국시대’명은 35년이 지난 2007년에 한국고고학회가 간행한 『한국고고학강의』에도 여전히 ‘원삼국시대’가 시대구분명의 하나로 채택된 것을 보면 한국 고고학계에서 지지도가 높은 時代名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시대구분명의 문제를 김해기 출토 토기의 연대에 대해 집중하고 있으며, 이후 삼한시대를 대표하는 토기가 와질토기로 정의되었다. 1~3세기 삼한시대를 대표하는 토기가 와질토기이고 그 뒤를 이어 출현하는 金海期貝塚 출토 회청색경질토기가 고식도질토기로 한국고고학사에 기록되었다. 소위 ‘와질토기론’은 지난 20세기의 마지막 20년 동안 한국고고학계의 최대 쟁점 중의 하나였다.

와질토기론이 제기되고 난 이듬해 발표된 최종규의 글에서는 ‘瓦質土器’와 ‘陶質土器’의 시대적 위치 규정과 시기 구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金海式土器’ 자체에 대한 재검토와 ‘瓦質土器’ 단계를 세분하는 편년을 통하여 기존 주장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sup>13)</sup> 그가 제시한 편년 틀은 이후 모든 ‘와질토기’ 편년 시안의 기본 뼈대를 제공하였다.<sup>14)</sup> 그 과정에서 그는 남부지역의 이른바 ‘金海期貝塚’들은 입지와 방어시설 등을 보아 군사적 긴장이 반영된 이른바 ‘高地性集落’으로서 313년 낙랑군의 몰락과 관련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본 논고는 이러한 그의 ‘김해기패총’들의 입지와 방어시설의 관점에서 기존자료와 함께 최신 발굴조사가 진행된 ‘김해기패총’ 유적을 중심으로 재검토하였다.

## 2. 金海期貝塚의 사례검토

본 글은 남해안의 소위 김해기패총 유적의 始点인 동쪽 양산을 시작으로 부산-김해-창원을 이어서 終点인 서쪽 고성지역까지 확인된 高地性集落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음을 밝혀둔다.

### 1) 양산지역

#### ① 양산 다방동패총

양산 다방동패총(이하 다방동유적이라 함)은 해발 287m의 주봉에서 서쪽으로 뻗어내린 가지능선인 해발 110m의 평탄지에 조성되어 있어 웅천패총과 유사한 입지를 보인다. 가지능선의 頂部에 대지가 형성되어 있고 사면부의 경사가 급해 防禦的 성격을 가지고 있는 高地性集落인 점이 공통점이다.

양산 다방동유적은 양산시 다방동 244, 244-2, 245전 외 약 17만<sup>2</sup>m<sup>2</sup> 범위에 분포하나

12) 金元龍, 2000(1992), 「原三國時代に 대하여」 『考古學誌』 第11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13) 최종규, 1983, 「慶州市朝陽洞遺蹟發掘調查概要とその成果」 『古代文化』35-8

14) 김성남·김경택, 2013, 『와질토기논쟁고』, 진인진

경부 고속도로 斜面部으로 인한 절토로 면적이 일부 줄었다. 더 넓게는 남부동패총을 포함한 구릉 전역(약30만㎡)에 집락과 패총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세기 初期 발굴보고서에도 양산패총을 다방동에서 남부동에서 이어지는 구릉 전체를 유적의 범위로 판단<sup>15)</sup>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다방동패총 I~IV를 포함하고 있는 다방동유적은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지형을 하고 있으며 정상부는 약 5,000㎡ 정도 넓이의 비교적 넓은 대지가 형성되어 있다. 다방동패총 III·IV가 있는 구릉의 中位에 있는 지점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주거지와 環壕 등이 조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sup>16)</sup> 다방동패총 I은 정상에서 흘러내린 유물과 폐기한 패각류가 쌓여서 형성된 곳으로 토기편이 다수 산포하고 있으며 동남쪽으로 비교적 완만한 대지가 뺏어 나와 있어 주거지가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다방동유적의 남서쪽으로 구릉이 길게 뺏어 내려오는데 말단부가 다시 평탄한 대지를 이루고 있고 무문토기편과 연질토기, 도질토기 등이 산포하고 있어 유적의 조성시기가 무문토기시대로 소급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sup>1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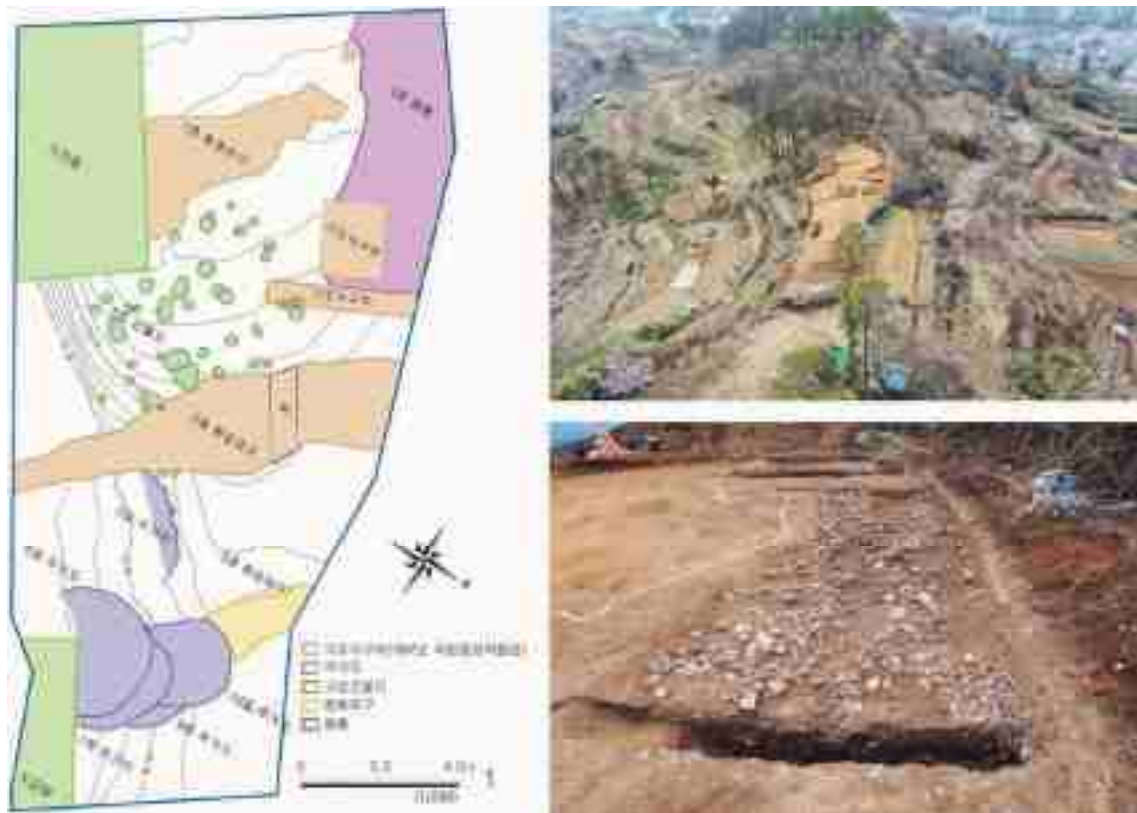


그림1. 양산 다방리패총 유구배치도(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21)

15) 1922년 간행된 『대정11년도 고적조사보고서』에 약보고와 함께 몇 장의 사진이 수록될뿐 정식으로 보고되지 않았다. 이후 1964년에 서울대학교박물관이 발굴조사하여 토기류와 골각기류 등을 확인하였으나 정식으로 보고되지 않았다.

16) 국립중앙박물관, 1995, 「양산다방리패총 발굴조사보고서」 『淸堂洞Ⅲ』

17)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21.09, 「양산 다방동 패총 시굴 및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pp.55~63

최근 조사는 국립중앙박물관이 1967년도에 진행한 環壕 주변부에 대한 발굴조사이다. 발굴결과 3중의 環壕가 확인되었다. 第1環壕와 第2環壕 사이에는 고상건물지가 1동 확인되며, 第3環壕를 파괴하고 주거지 4동이 중복되어 드러났다(그림1의 황색부분). 그리고 제1환호가 폐기된 이후 패각층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패층의 시기가 가장 늦게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발굴조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第1環壕와 第2環壕 사이에 구축된 고상건물지의 성격이다. 환호와 건물지의 중복관계로 보아 환호 폐기 이후 조성되었을 가능성과 二重環壕 사이에 형성된 성토구조물 조성시 사용된 木柱列의 가능성 2가지를 동시에 고려하고 싶다. 필자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후자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싶다.

후술하겠지만 고성 동외동유적의 環壕처럼 內·外溝와 그 사이를 盛土한 인공구조물을 고려하였다. 內·外溝 사이에서 확인된 주혈은 중복관계로 볼 때 2회 이상 기둥을 뽑아 올린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外溝와 內溝 사이 木柱列을 이용한 성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발굴면적이 협소하여 현재로서는 추정에 가깝다. 향후 조사성과를 기대해 본다.

## 2) 부산지역

### ① 동래 낙민동패총<sup>18)</sup>

부산의 전체적인 지형은 동쪽의 長山 山地(해발 634m)와 서쪽의 金井山 山地 및 이 가운데 끼워진 평지로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평지의 頂部에 해당하는 곳에 동래패총이 위치한다. 이 패총은 다른 김해기패총과는 달리 해발 10m 이하의 低地에 위치하며 중심부는 현 동해남부선 동래역 구내 일대로 추정된다. 여기서 북서쪽으로 약 1.2km 떨어진 곳에 동래 福泉洞古墳群이 있으며 남쪽으로 약 2km 떨어진 곳에 蓮山洞高塚群이 있다.

### ② 조도패총

패총은 조도의 서단(현 下里防潮堤 朝島側 진입로)에 위치하며 이곳은 現汀線과 접한 곳이다. 1973년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사시 貝殼內에서 토광묘 1기가 검출된 바 있다.<sup>19)</sup>

### ③ 괴정동패총

九德山 山地의 동매산에 의해 생긴 협곡의 奧部에 위치하며 패총은 구덕산 남쪽에서 평지로 변환하는 곳에 있다. 여기서 북동쪽으로 약 800~900m 떨어진 곳에 괴정동분묘군이 있다.

18) 國立中央博物館, 1998, 『東萊 民樂洞貝塚』.

19) 國立中央博物館, 1976, 『朝島貝塚』.

부산지역 김해기패총 관련 유적들은 高地에 입지하지 않았다. 단, 조도패총은 島嶼에 입지해 있어 방어를 염두에 둔 입지로 볼 수 있다. 낙민동패총 혹은 동래패총은 복천동고총군과 깊은 관계가 있는 유적이거나, 低地에 입지한 점과 방어시설이 없는 점에서 대상으로 하였다.

### 3) 김해지역

#### ① 鳳凰臺貝塚

봉황대패총은 盆城山(해발 375m)과 慶雲山(해발 378m) 사이 골짜기의 入口에 있는 독립구릉으로 이 골짜기의 중앙을 관류하는 海畔川의 동쪽에 위치한다. 이 구릉의 정상부에는 남북으로 긴 평탄면이 있는데, 이곳은 면적이 넓어 어느 정도 규모의 집단이 생활 가능한 곳이며 평탄면에서 평지 사이의 사면은 경사가 급하여 외부 적으로부터의 防禦에도 적합한 지형이다. 이 남단에 鳳凰臺(해발 46.5m)라 불리는 바위로 이루어진 작은 봉우리가 있다. 이곳은 生活域으로 보기에는 곤란한 곳이다. 패각은 봉황대 남사면 일대에 노출되어 있고 곳에 따라서는 양호한 퇴적층도 있다.

한편 봉황대 동쪽으로 舌狀의 작은 구릉이 뻗어가는데, 이곳이 바로 金海貝塚 내지 會峴里貝塚으로 알려져 온 곳이다. 이곳의 頂部에도 동서로 긴 평탄지가 있으나 다수의 인간이 생활하기에는 너무 좁은 곳이다. 이 평탄부의 남북사면 및 봉황대와 연결되는 鞍部에 패각층이 형성되어 있다.

봉황대패총은 1900년 초에 발굴조사되어 '김해기'패총의 표지적인 유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계속 학계의 주목을 받아온 유적이다. 西龍에 의해 1907년도에 처음 조사된 이 유적은 이후 1934년까지 모두 8차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발굴조사에서 확보된 유물의 대부분은 현재 일본의 京都大學에 보관중이라고 한다. 1923년도에 패총 출토 토기를 비롯한 동물유체유물에 대한 발굴조사 보고서가 간행<sup>20)</sup>되었으며, 이 외에도 여러 문헌에 김해패총 조사 결과가 보고되어 있다.

이들 조사 이후 여러학자들에 의해 '김해기패총'의 연대 문제 등 김해패총 출토 토기를 둘러싼 여러 사항들에 대해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그만큼 이 유적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는 봉황대유적에 대한 조사를 2차례 실시하였는데, 1차 조사는 구릉전체에 대한 시굴조사였으며, 2차 조사는 봉황대 진입로 개설을 위한 도로공사 부분에 대한 발굴조사였다.<sup>21)</sup> 여기서 頂部에서 환호 2조가 검출되었다(그림2). 이 환호는 二重環壕로 시간차를 두고 구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第1環壕는 봉황대 구릉의 정부에서 경사면 시작 지점에 해당(그림2의 노랑색부분)되며, 그 다음 구릉의 끝자락에 第2環壕가 돌아간다(그림2의 파랑색 부분). 여기서 주목하

20) 濱田耕作·梅原末治, 「金海貝塚發掘調査報告」 『大正九年古蹟調査報告』1, 朝鮮總督府, 1923

21) 釜山大學校博物館, 1998, 『金海 鳳凰臺 遺蹟』

는 것은 이 추정환호의 중복관계와 위치이다. 第2環壕는 폐기된 이후 패총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릉의 頂部에 대한 시굴조사 이후 지금까지 발굴조사를 통해 주거역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 문제점이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 및 지형조건에서 볼 때 회현리에서 다수의 인간주거가 가능한 곳은 봉황대의 북쪽으로 생각되며, 동 소지구는 무문토기인의 묘지 조영 후 폐기되고 와질토기인에 의한 일시적인 점유가 있다가 A.D. 4세기경부터 본격적인 패각 폐기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회현리패총 전시관 건립 부지에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sup>22)</sup> 조사 면적은 협소하나 출토된 골각기는 930점에 이른다. 그 중에서도 柄具·刀子柄 136점, 骨鏃 166점, 骨錐 270점, 卜骨 175점, 原素材와 素材 140점으로 무구와 생활공구, 原素材, 卜骨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한 곳이다. 봉황대 패총도 이와 동일한 성격으로 구릉의 남쪽과 서쪽 사면부를 따라 넓게 분포하며, 기원전후부터 금관가야 멸망까지 오랫동안 製骨專門工房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2. 봉황대 패총 분포도(부산대학교박물관 1992)

22) 三江文化財研究院, 2009, 『회현리패총 I·II』

② 유하리패총

김해 양동리유적에서 남동쪽으로 뻗어내린 구릉의 端部에 위치한다. 패각이 층을 이룬 곳은 현재 확인할 수 없으나 지표에 貝殼과 소위 김해기의 토기편이 산재해 있다. 이곳과 양동리고분군과의 거리는 약1.2km이다.



그림3. 유하리패총 유구현황도(한화문화연구원 2022)

유하리패총은 1918년 도리이 류조가 고적조사사업에 의해 김해지역을 답사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1970년대부터 인근의 양동리고분군이 발굴조사되면서 함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 후 유하리패총에 대한 정식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5년 국립김해박물관과 대성동박물관에서 김해시 유하동 180-3번지 외 8필지에 대한 학술조사를 실시하였다.<sup>23)</sup> 그 결과 유하리패총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규모와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두 유적 간의 관계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김해시는 유적의 성격 규명과 향후 유적 보존 및 학술조사의 방향을 설정하여 추가적인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지상식주거지, 패각층, 수혈, 제사관련유구, 고상건물지, 환호 등 다양한 유

23) 國立金海博物館·대성동고분박물관, 2017, 『金海 柳下貝塚 발굴조사보고서』



구가 조사<sup>24)</sup>되었는데, 주목할 점으로는 구릉의 경사도와 입지에 따라 조성된 유구가 상이한 특징을 보인다(그림3). 그 중에서도 환호와 테라스가 관찰되며 頂部를 기점으로 段差를 두고 공간이 구분된 것이 특징이다.

제1환호는 해발 39~43m로 구릉 頂部를 감싸고 돌아간다. 제2환호는 해발 30.5~37.2m로 구릉 中位 능선을 따라 돌아간다. 2개소 모두 환호가 폐기된 이후 패각층이 형성되었다. 현재까지 유하리패총에 대한 부분적인 발굴조사만 진행되고 있어 환호의 全貌가 밝혀지지 않았고, 주거지와 고상건물지, 수혈 등을 비롯한 다양한 유구의 성격이 조사중에 있다. 고성 동외동유적과 마찬가지로 구릉 정부를 감싸고 돌아가는 환호와 그 이후 패총이 형성된 것으로 4세기 패총이다. 그 다음 頂部를 중심으로 段差를 보이며, 住居域과 生産域 등이 순차적으로 구축된 것이 확인되고 있다.

### ③ 盤龍山貝塚

창원과 경계를 이루는 불모산(해발 801.7m)에서 동쪽으로 뻗어내린 구릉의 경사면 중 용지봉에서 돌출된 支脈과 불모산에서 뻗어내린 支脈으로 협곡을 이루는데, 반룡산은 불모산 쪽 支脈의 선단부에 해당하며 일견 독립구릉처럼 보인다. 이 산(해발 237m)은 비교적 험준한 편으로 패총은 이 산의 정상부에서 약간 내려온 북사면에 형성되어 있다(그림 4-1의 B). 최근 시굴조사에서 또 다른 패총의 범위가 확인되었고, 이 패총군 아래쪽에 고상건물지와 수혈 등이 확인되는 성과<sup>25)</sup>가 있었다(그림4-1의 C).

현재 반룡산패총은 숲과 잡목으로 패각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지형조건으로 볼 때 정상부는 관망이나 堠望監視에 탁월한 입지를 보이며, 또한 古金海灣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그림4-1의 A지점, 그림4의 2)이다.

최근의 조사에서 谷間地에 고상건물지와 주혈군 등이 확인되었고, 이곳은 지형상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이다. 보고자는 트렌치 내에서 출토된 고배편, 노형기대편 등으로 보아 4~5세기대 형성된 集落으로 보았다. 반룡산패총은 高位에 입지하며, 이보다 이른 시기에는 低地인 신문리유적이 위치(그림4-1의 F)한다. 신문리유적은 무문토기시대 동검묘와 삼한~삼국시대 패총과 주거지·고상건물지·수혈 등이 출토된 생활유적이다. 신문리유적과 관동리유적 배후 산지에 용산고분군과 관동리고분군이 위치(그림4-1의 D와 E)하고 있는 점도 향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들 고분군은 지표에서 채집된 유물로 보아 3~6세기까지 비교적 긴 시간폭을 보인다. 高地와 低地에 입지하는 패총과의 친연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

반룡산패총 이후에는 다시 低地인 해안가에 교역항인 관동리유적이 형성(그림4-1의 G)되었다. 관동리유적은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배가 들고 나는 선착장·잘 정비된 도로망·대형 건물지·창고시설·건물지 내 우물 등의 요소는 일반적인 집락이 아님을 예상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관동리유적의 성격은 구체적으로 津所로 보았다.<sup>26)</sup>

24) 한화문물연구원, 2022, 『김해 유하동생활유적』

\_\_\_\_\_, 2021, 『김해 유하동유적 I』

25) 한화문물연구원, 2018, 「김해 용산패총 학술발굴(시굴)조사 결과보고서」

고성 동외동패총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貝塚, 環壕 그리고 防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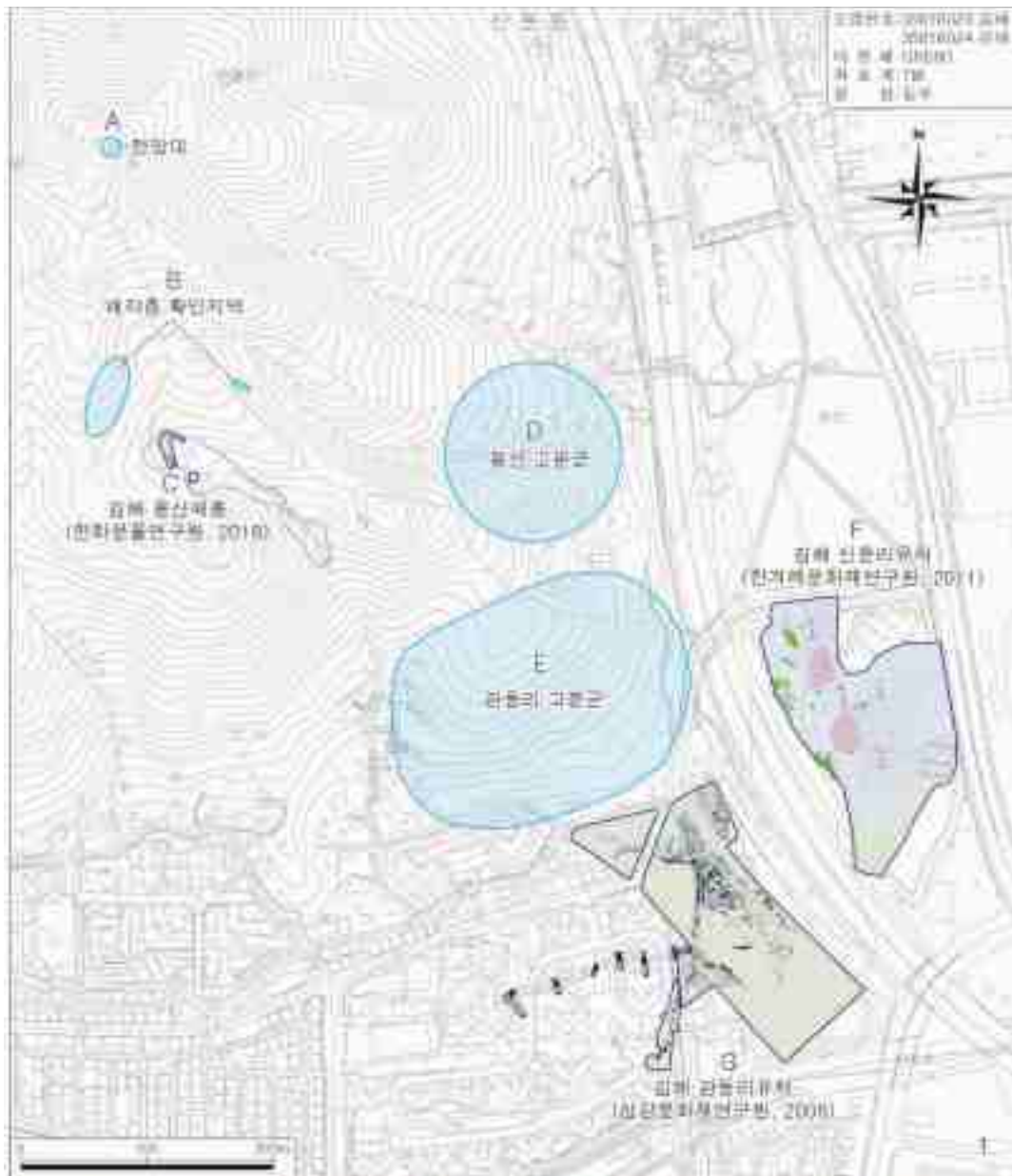


그림4. 반룡산 패총 범위(1)와 광경(2:전망대에서 바라본 고김해만, 3:곡간지에 형성된 주거역)

26) 소배경, 2011, 「김해 관동리유적과 가야의 항구」 『가야의 포구와 해상활동』, 주류성

따라서 반룡산 일원은 그 당시의 긴장과 대응에 따라 집락의 위치가 변화함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반룡산에서 주거 입지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당시의 정치적인 긴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해 보고 싶다.

④ 七山貝塚

반룡산패총의 북동쪽에 독립구릉군이 위치해 있는데 이 구릉군의 선단부에 해당하는 동북쪽 사면(해발 약80m)과 북사면에 김해기의 패총이 형성되어 있다. 그밖의 동북쪽 일대에 담수패총이 산재해 있으나 시대는 불명이다. 이 구릉군의 중앙부에 분묘군(패총과의 직선거리 약 700m)이 있는데, 경성대가 발굴조사 하였다.

⑤ 府院洞貝塚

분성산의 남단에 위치한 南山(해발 52m)의 서북쪽은 표고 10m 되는 곳에 경사변환점을 가지는데, 이 일대에 패총이 형성되어 있다. 1980년 동아대박물관이 발굴하여 포함층, 수혈주거지 2기, 고상건물지 1동 등이 조사되었다.<sup>27)</sup>

⑥ 水佳里貝塚

1978~1979년 부산대가 발굴조사하였으며 김해기의 패총은 錦屏山의 북쪽 사면부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 일대의 경사는 급한편이어서 패총인은 이 보다 高地에 생활지를 마련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곳에서 직선거리로 약 3.3km 떨어진 곳에 鐵製甲冑片들이 채집된 가달유적이 있다.

4) 창원지역

① 城山貝塚

加音丁洞에서 뺏어나온 구릉의 선단부에 위치하며 평지에서 바라볼 때 야트막한 독립구릉처럼 보이나, 실제의 사면은 가파른 편이며 정상부에는 평탄지가 있다. 이 평탄지는 방형이나 남쪽이 약간 돌출되어 있어 반전된 'P'자형이다. 패총은 평탄지의 북사면(보고서의 북구패총)과 남사면(보고서의 서남구패총)에서 확인되었으며, 이밖에 평탄지에 동쪽으로 파출된 소지구의 남사면(보고서의 동구패총)에서도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 볼 때 북구와 서남구패총은 거의 동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低地에 있는 東區貝塚은 이 兩地區貝塚보다 이른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西南區貝塚의 남단은 평탄부에서 내려온 사면이 경사변환을 하면서 테라스상의 평지를 형성한 곳인데, 이곳의 패각층 하부에서 쇳물 흔적이 검출되었다. 이 흔적은 테라스상 평지보다 上位이고 급사면인 남2트렌치의 패각층 하부에서도 검출되고 있어 제철지는 山頂 평탄면의 緣

27) 東亞大學校博物館, 1981, 『金海 府院洞遺蹟』

邊部 일대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발굴조사에서는 정상부를 둘러싼 環壕와 土城 그리고 石城까지 확인<sup>28)</sup>(그림5-1)되었다. 환호는 삼한시대 후기에 축조된 것으로 한차례 수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토성은 구릉 정상부 평탄지에만 확인되고 있다.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토성의 길이는 15m 정도이며, 體城部 조성에서 모래와 실트 반복 성토한 유사판축형식의 축조법도 보고되었다. 석성은 토성이나 암반층을 ‘L’자형으로 2단 굴착하여 기초부 부지를 조성하였다. 그다음에 석성의 성벽을 축조하였는데, 면석 하부는 석재로 정연하게 축조하였고, 면석뒤채움토는 人頭大石 정도의 석재로 다소 무질서하게 뒤채운 것을 확인하였다. 내벽은 허튼층쌓기로 마무리한 것이 확인되었다(그림5-3). 성벽의 너비는 약 7.2m이며, 현재 내벽은 약 1.7~2.37m가 잔존해 있다.



그림5. 성산패총 현황도(우리문화재연구원 2018)

② 加音丁洞貝塚

성산패총의 북동쪽에 위치하며 양자간의 거리는 약 870m 떨어져 있으며 현재는 포장도로에 의해 서로 격리되어 있으나 원래는 서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양자 사이의 지역에 삼국시대의 분묘유적이 있다. 구릉 정상부(해발 73.5m)에는 동서로 긴 弧狀의 평탄지가 있는데 패각층은 이 평탄지를 돌아가며 点在해 있다. 노출되어 있는 패각의 대부분

28) 우리문화재연구원, 2018, 『창원 성산패총(사적 제240호) 정비사업부지 내 관방유적』

분은 굴조개였다. 가음정동 능선에는 구릉(당산)을 중심으로 3~4세기대 집락이 형성되고 그 서편의 해발 50m 구릉에는 삼한·삼국시대 고분군이 분포한다. 가음정동 堂山 사면에 형성된 패총을 발굴하면서 해발 48~50m의 패총 하부에서 환호를 확인<sup>29)</sup>하였다.

가음정동-외동유적군에서 4세기 이전의 삼한시대 집락은 창원분지내의 다른 집락과 마찬가지로 평야로부터 돌출한 高地의 구릉을 점유하며 사면에 두터운 패총을 형성시켰다. 4세기 이후의 집락은 해발 40m의 臺地狀丘陵으로 옮겨짐이 분명하다. 이후 집락은 농경지나 수원과 가까운 低地帶로 확장되고 6세기의 수혈주거지와 지상건물지들은 低地帶에 집중분포한다. 가음정동 당산패총에서 무문토기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高地性集落은 남산유적 삼한시대 環壕와 동시기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 ③ 召番洞貝塚

창원~마산지역과 김해~진영지역을 구분하는 精兵山 산지(해발 566.7m)와 天柱山 산지(해발 640m) 사이에 신평고개가 있는데, 이 고개가 있는 산(해발 180m)의 남쪽에 김해기의 패총이 있으며 이 패총에서 남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도계동고분군이 있다. 현재 이곳은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이어서 상세한 내용은 불명이나 기록에 의하면 약100m 정도의 범위에 패각이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 ④ 內洞貝塚

성산패총에서 서북쪽으로 약2.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창원공단을 관통하는 대로에 의해 구릉의 남쪽 거부가 잘렸다. 삼동동고분군과의 거리는 약 600m이다.

### ⑤ 南山遺蹟

유적의 입지는 해발 100m 정도의 高地에 해당된다. 구릉 둘레를 타원형으로 감싸고 도는 環壕 4조가 확인<sup>30)</sup>되었다. 환호는 무문토기시대와 삼한시대 두 시기로 구분된다.

무문토기시대의 것은 환호 I~Ⅲ과 이에 부속되는 주거지, 고상건물지, 구상유구가 확인되었다. 여기서 송국리문화의 주거지가 검출(그림6의 하늘색부분)되었다.

삼한시대 유구는 환호Ⅳ와 주거지, 패총, 폐기장 등이 확인되었다. 환호에 의해 일부 포위된 남산유적 구릉 정상부의 원형 또는 타원형주거지들은 모두 삼한시대에 속한다. 남쪽 사면에 두터운 패총이 형성되어 있고 남동쪽 사면에도 꽤 깊은 포함층이 형성되어 있다. 패총 및 포함층이 형성되기 전에 환호가 굴착되었다. 환호는 구릉의 남쪽과 남동 사면에서 총연장 60m 정도 확인되었는데 무문토기시대 환호와 비슷한 진행방향을 보이지만 구릉을 一周(그림6의 환호Ⅳ)하지는 않는다.

29) 이주헌·유병일·김양미, 1994, 「창원 가음정동패총 발굴조사보고서」 『창원가음정동유적』, 창원문화재연구소, pp.135~209

30) 國立昌原大學校博物館, 2003, 『昌原 南山 遺蹟』

삼한시대 환호는 구축되다가 어느 시점에 급박하게 중단된 것 같다. 이 환호 안쪽과 바깥쪽으로 삼한시대 주거지가 중복관계를 보이며 頂部에 정연성 없이 퍼져있다(그림6의 분홍색부분). 삼한시대 환호를 주거지가 파괴하고 있어 주거지의 존속 시기도 차이를 보인다. 주거지의 중복관계로 보아 대규모의 집락은 아니고 소단위의 사람들이 군집을 이루며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앞 시기 無文土器時代 사람들이 구축한 三重環壕와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남산유적은 해발 100m라는 高地에 입지하는 것은 남해안 고지성집락의 입지와 동일하며 남산유적의 남쪽으로는 가음정동패총-성산패총-내동패총과 이어지고 북쪽으로는 소담동패총이 연결되어 일종의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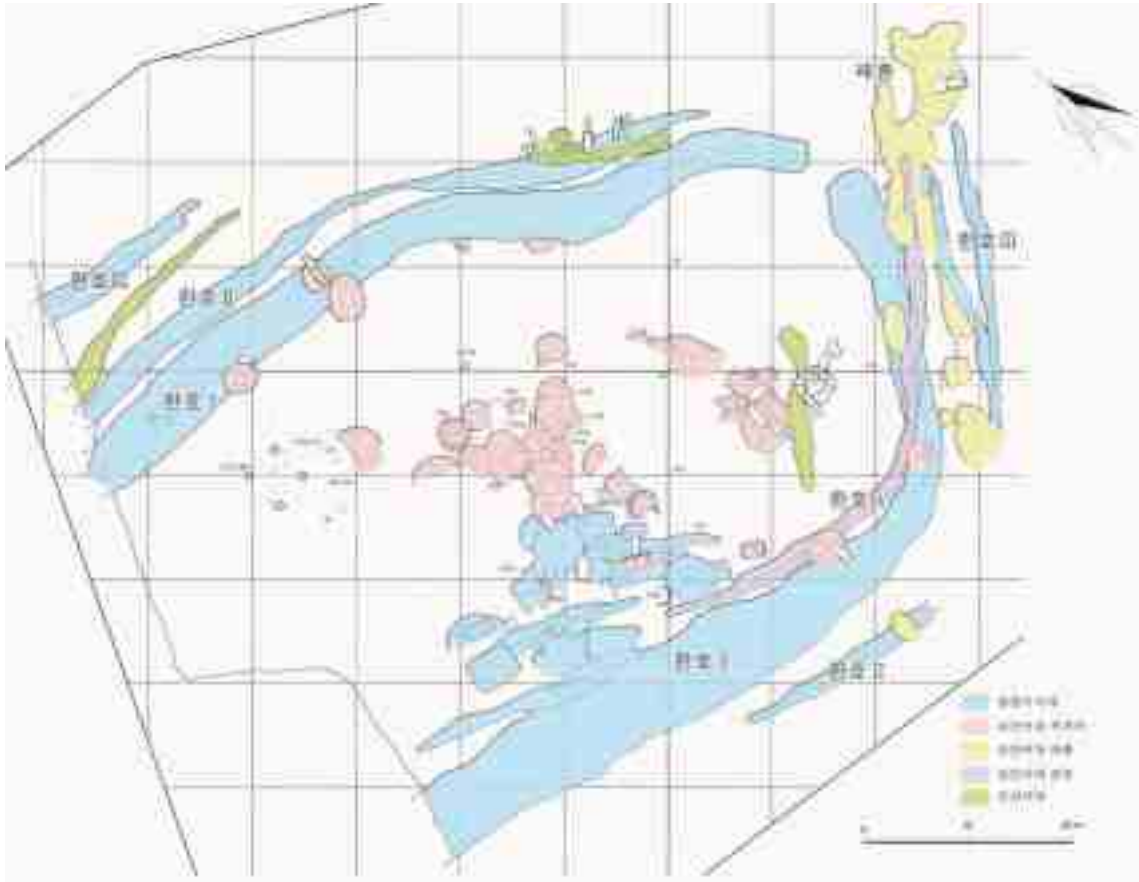


그림6. 남산유적의 패총·환호·주거지(국립창원대학교박물관 2003)

⑥ 熊川貝塚

佛母山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린 지맥은 차츰 낮아져 곳곳에 peak를 형성하다가 해안쪽으로 내려가는데 해안에 도달하기 직전의 peak가 子馬山(해발 240m)이고 여기에 웅천패총이 있다(그림7의 A). 이 子馬山 정상부에는 넓은 평탄지가 있고 평탄지의 남북사면에서 패각층이 확인(그림7의 B)되었으며 평탄지의 서쪽에서 석곽묘와 석실묘가 조사<sup>31)</sup>되었다.

평지에서 패총이 있는 자마산 정상부까지는 매우 가파른 사면이어서 당시의 패류를 여

31) 金廷鶴, 1967, 「熊川貝塚研究」 『亞細亞研究』10권3호,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研究所, pp.1~63



기까지 운반하는데 많은 노동력과 시간이 소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패류채집에도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5세기대의 토기가 대부분이며 인근 고분군의 양상도 비슷하다.

김해기패총 유적중에서 가장 高地에 입지한다. 고려대학교 조사부분에서만 4만여점의 출토유물과 사면부 패각층이 확인되어 子馬山 정상부 전체가 당시 사람들의 중요한 생활장으로 이용되었다. 문제는 熊川貝塚人들이 거주지인 구릉의 정상부에 이르기 위해 매일 가파른 사면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貝殼類를 山頂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가 하는 점이다. 비정상적인 상황이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입지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입지는 남해안이 한눈에 조망되며, 주변을 관찰할 수 있는 전망이 좋은 곳이다. 자마산 정상부 아랫단에 입지하는 고분군의 범위로 보아도 상당한 규모와 범위를 점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웅천패총은 高地라는 입지 자체가 방어와 긴장이라는 특수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그림7. 웅천패총 현황도(A·B:패총, C·D·E:고분군)

## 5) 고성지역

### ① 東外洞貝塚

고성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대독천의 좌안에는 曲山(해발 98m)을 최고봉으로 한 구릉군



이 있는데, 패총은 이 구릉군의 북단에 위치한다. 일견 독립구릉처럼 보이는 이 구릉(해발 30m)의 정상부에는 평탄지가 있으며 남북선이 약간 긴 편이다. 패각은 정상부 일대와 사면부에서 관찰되는데 서남사면에 대해서는 1974년 동아대가 조사하였고 여기서 제철관련 유구가 검출<sup>32)</sup>되었다고 한다. 패총에서 동쪽을 약500m 떨어진 곳에 울대리고분군이 위치한다.

동외동유적은 20세기 晩期 시·발굴조사를 통해 구릉의 頂部 의례수혈을 중심으로 그 아랫단에 주거역과 야철지가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후 2021년과 2022년 7월 현재 삼강문화재연구원 조사에서는 구릉 頂部 광장을 중심으로 의례수혈과 주거역이 環壕에 의해 둘러싸여 있음을 확인(그림8)하였고 환호와 패총의 선후관계가 명확히 확인됨으로써 동외동유적의 연대를 3~4세기 안정된 시기로 편년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된 것에 큰 의미<sup>33)</sup>가 있다.



그림8. 동외동유적 현황도(삼강문화재연구원 2022)

동외동유적에서는 방어시설인 환호와 패총의 층위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됨에 따라 소위 김해기패총의 연대를 특정할 수 있으며, 無文土器時代 계보를 잇는 적갈색의 일상생활 토

32) 동아대학교박물관, 1984, 「固城東外洞貝塚」 『上老島』

33) 삼강문화재연구원, 2021, 「고성 동외동패총 정비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시·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삼강문화재연구원, 2022, 「고성 동외동패총 정비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자료」

기와 고식도질토기, 백제계 사족기, 일본계 야요이토기·광형동모, 漢鏡 및 印文陶, 王莽의 新나라 화폐인 大泉五十, 靑銅環 등 그 당시의 네트워크와 관련된 다양한 교역품들이 출토되었다.

이번 조사에 주목한 것은 二重環壕의 구조와 패각층의 중복관계이다. 環壕가 폐기된 이후 패각층이 형성된 것으로 보아 환호는 단기간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환호는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치우쳐 경사변환지점에 구축하였다. 內·外溝 사이 1.5~2m 내외의 간격을 두고 등고선과 나란하게 진행하다 남쪽 경사면 아랫단으로 이어지고 있다. 內溝(너비 150~500cm)와 外溝(너비 250cm) 가장 큰 특징은 같은 走向이며, 굴광선 레벨에서 삼한시대 토기편과 소결토가 두께 10~20cm 정도 확인되었다. 이 층 아래에는 황적갈색토와 황갈색토가 순차적으로 채워져 있으며, 토기편과 생활폐기물은 보이지 않았다. 즉, 內·外溝에서 굴착한 흙을 되메우고 상부에 토기편과 소결토를 盛土材로 사용한 것 같다. 토기편은 殘片이며 생활폐기물들이 혼합된 양상이다. 따라서 內·外溝의 기능을 흙이 밀려 내리는 힘을 받쳐 주는 스토퍼(stopper)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擋土牆에 의해 성토된 壁體는 直壁이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탱해 주는 壁 즉, 扶壁이 필요하다. 이런 壁은 경사질 수밖에 없으며 이 斜壁을 고정시켜 주는 장치가 스토퍼(stopper)인 것이다.

## ② 松鶴洞貝塚

동외동패총에서 북쪽으로 약700m 떨어진 곳에 위치(현 고성여중)하며 이 서쪽에 송학동고분군이 있다. 『文化遺蹟總攬』에 의하면 고성여중은 패총이 있던 자리로 회청색 경질토기, 골각기가 채집<sup>34)</sup>되었으며, 동외동패총과 동일한 성격으로 여겨진다고 한다. 고성여중 자체가 해발 15m의 얇은 구릉상에 위치하고 있어 당시의 생활유적이 입지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그러나 정식으로 조사된 자료가 전무하고 현재는 유실되었다.

## Ⅲ. 동외동유적의 평가

### 1. 입지와 경관

지금까지의 조사되었던 남해안의 高地性集落의 규모를 보면, 구릉 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소규모의 환호가 돌아가고, 그 안쪽에서 3~4세기의 수혈주거지 몇 동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규모에서는 소수의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며 소규모 집락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고성 동외동유적 같이 정상부의 광장으로 보이는 空地를 포함하여 조사 구역 밖에도 별도의 작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環壕 사이의 주거군을 포함하여 복수의 집락이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예는 김해 봉황대유적이거나 창원 성산패총 그리고 양산 다방동유적에서도 유사성이 보인다. 이러한 高地性集落과

34) 慶南大學校博物館·昌原文化財研究所, 1994, 『小加耶文化圈 遺蹟精密地表調查報告』, p.66  
東亞大學校 博物館, 2004, 『文化遺蹟分布地圖 -固城郡-』, p168.

## 貝塚, 環壕 그리고 防禦

貝塚의 결합은 양산 다방동유적을 시작으로 부산-김해-창원-남해안 서쪽의 고성 동외동 유적까지 제한적으로 보이는 독특한 특징이다. 고성지역을 벗어나 서쪽의 全南海岸은 高地性集落과 貝塚의 결합이 약간 보이지만 미미하다. 대표적인 유적이 보성 금평유적과 해남 군곡리패총으로 남해안의 高地性集落에 비해 약간 이른 시기 패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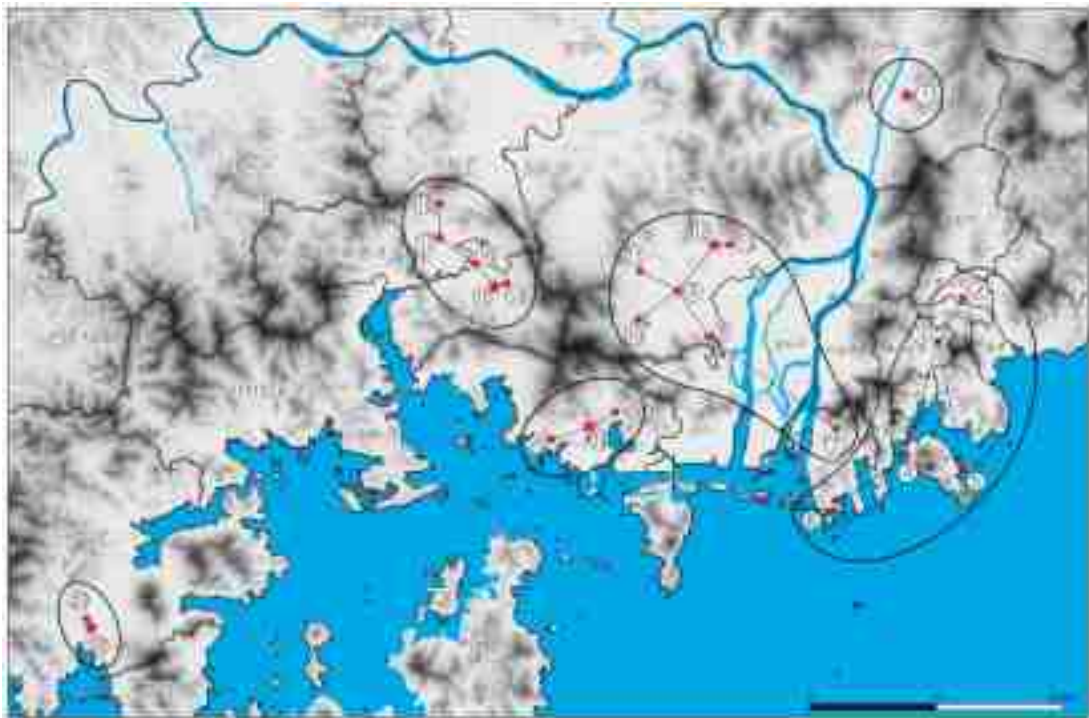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진 高地性集落은 平地集落과 별로 다르지 않은 일상적인 출토유물과 패총 등에서 볼 때, 특별히 군사적인 편성의 집단구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지역의 核心集落이 지역공동체의 방어적 기능을 분담하는 것을 바탕으로, 통상적인 집락의 기능을 유지해 가면서, 그 집락의 입지를 低地에서 산 위로 옮겼던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이러한 집락은 지역의 군사적 거점으로서, 山頂을 이용한 테라스를 구축해 환호와 함께 방어력을 높인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독립구릉에 입지하는 비교적 규모가 큰 高地性集落에서는 경사면을 깎아 평탄면으로 조성한 이른바 테라스와 같은 段施設을 구축한 것이 많이 확인되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동외동유적은 일상의 수혈식주거지는 정상부와 그 부근에 조영되는 데 비해, 패총이나 야철지·저장용 수혈 등은 段差를 두고 사면부에 구축되며 규모 역시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여 정형화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토기류나 패각류를 비롯한 출토유물의 구성이 수혈식주거지의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생활의 공간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비교적 면적이 넓은 것에 대해서는 임시주거의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임시주거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면, 군사적인 긴장이 있을 때는 集落 바깥에서 관계를 맺고 있던 지역공동체의 인원과 물자를 수용하는 대피소로서 기능하였을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高地性集落은 구축할 때 방어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지 장소를 중심으로 취락의 규모를 상회하는 광대한 범위의 산림이 벌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경사면에 環壕와 木柵 등이 구축되었다고 한다면, 평지에서 올려다보는 경관은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효과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김해 봉황대유적이나 유하리유적의 경우 고김해만에서 들어오는 교역선들이 볼 때 위협적인 경관을 연출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창원의 성산패총도 단독구릉지 頂部를 돌아가는 環壕와 土城의 존재를 상정한다면 마산만에서 들고나는 교역선들에게 위협적인 경관을 제공하였을 것이다. 그 외 김해 반룡산패총이나 양산 다방동패총, 진해 웅천패총은 입지 자체가 高地·險地이거나 山地의 小谷에 입지해 集落 자체를 엄폐하고 있는 경우도 확인된다. 高地性集落은 위급시의 거점으로서 지역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결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축되었던 것이며, 나아가 군사적 거점다운 모습은 대외적 과시를 통하여 전쟁 抑制力으로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山頂이라는 입지에서 高地性集落은 사주경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조망과 감시를 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그림9). 또한 고지성집락간 유기적 관계도 상정해 볼 수 있다. 김해 봉황대유적이나 창원 성산패총 주변으로도 高地에 형성된 집락들이 확인되는 점이 그 근거가 된다. 긴장 관계가 지속되면서 고지성집락간 네트워크도 자연스럽게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

이나 김해와 창원은 뚜렷해 보이고 양산이나 고성은 단독이거나 고지성집락이 형성되고 있어 지역간 집락형성과 분포는 차이를 보인다.(그림9)

따라서 동외동유적의 頂部 가장자리를 따라 돌아가는 環壕와 사면부에 형성된 테라스는 방어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예상치 못한 충돌에 대한 억제력이 된다. 다만, 첫째 의도로는 집단의 求心點로서의 공공기능[광장과 의례수혈]으로서의 역할이 추측되며 그것이 집단 내의 결속 강화나 전쟁 발생시에는 방어나 시설의 효과를 창출하는 부차적 효과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동외동유적에서 확인된 山頂의 광장과 의례수혈은 평상시에는 집단의 중심공간이 되는 것이고 전쟁시에는 임시적인 방어나 시설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양산 다방동패총 ②동래패총 ③범전동패총 ④영선동패총 ⑤조도패총 ⑥다대포패총 ⑦괴정동패총  
 ⑧수가리패총 ⑨칠산패총 ⑩반룡산패총 ⑪유하리패총 ⑫봉황대패총 ⑬부원동패총 ⑭가음정동패총 ⑮성산패총  
 ⑯내동패총 ⑰남산유적 ⑱소담동패총 ⑲웅천패총 ⑳석동패총 ㉑여좌동패총 ㉒동외동유적  
 ㉓송학동패총

그림9. 남해안 高地性集落의 분포도

소위 金海期貝塚 遺蹟에 보이는 환호들은 만들어지고 얼마 되지 않아 폐기되기 시작하며, 그 후에 다시 고쳐 사용한 예가 없는 것도 임시적 방어나 시설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적 긴장상태가 발생한다고는 해도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며 局地的인 것이었기 때문에, 방어적 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았던 것을 의미한다.

고성 동외동유적은 앞서 살펴본 김해 봉황토성과 같은 입지의 변화가 관찰된다. 동외동유적의 일제강점기 지적도에서 보이는 특징 때문이다. 구릉 아래쪽 평탄면을 감싸고 돌아가는 타원형의 지적도상의 평면형태가 김해 봉황토성과 같은 형국을 하고 있어 성토구조

물의 존재 여부가 향후 발굴조사의 방향성이 될 것으로 판단(그림10)된다. 이 구릉을 둘러싸고 있는 평면형태 타원형 안쪽으로는 삼국시대 고상건물지와 수혈 등을 비롯해 평지에서 다양한 유구들이 검출<sup>35)</sup>되고 있어 구릉 정상부에서 平地로 유적이 확장된 것이 관찰된다. 따라서 삼한시대 형성된 구릉의 동외동유적은 삼국시대가 되면서 평지까지 확장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런 의미에서 高地性集落 중에서 해발고도 30~50m 内外에 존재하는 유적에 대한 보다 정밀한 발굴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까지 소위 김해기패총 유적을 대표하는 유적이 김해 봉황대유적과 봉황토성이다. 이 유적이 삼한시대 형성된 環壕에서 삼국시대를 거쳐 土城으로 발전한 것에 대한 검토<sup>36)</sup>가 이루어지고 있다.

삼한·삼국시대 동안 사회발전과정을 거치면서 집락의 양상에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가 있었다. 첫째로 전문적인 生産, 전문적인 防禦, 전문적인 交易 등 다양한 특수기능 유적의 발달을 예로 들 수 있다. 無文土器時代에 있어서의 집락은 밀집 분포하는 주거들이 중심이 되고 석기·옥기생산이나 토기생산 혹은 방어적인 용도의 환호 등과 같은 특수한 기능의 유구는 부차적인 시설이었다. 그러나 目的聚落<sup>37)</sup>이라고도 부르듯이 생산, 방어, 교역을 수행하기 위해 건축물이 들어서고 그 목적을 수행하던 주민들의 주거가 전체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면서 축조되는 유적이 등장<sup>38)</sup>한다.

이러한 삼한시대 후기에 속하는 ‘김해기패총’으로 불리는 남해안의 高地性集落과 같은 防禦集落 즉 集落을 방어하기 위한 土壘나 木柵을 갖춘 유적이다. 삼국시대가 되면 더는 임시적인 방어시설인 土壘나 木柵으로 둘러싼 高地性集落은 형성되지 않으며 토성이나 산성과 같은 지역방어시설이 구축된다.

## 2. 高地性集落의 출현배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해기의 남해안지방의 패총들은 平地보다는 高地에 위치하는 것이 많다. 이에 최종규는 방어적 측면에서 高地性集落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高地性集落이 형성된 것은 남해안 일대가 긴장 상태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당시 식량생산단계의 완숙기에 들어서 돌연히 식량채집단계로 역행하는 경제형태를 유지한 점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처럼 역행한 경제체제를 채택한 이유에 관해서는 다방면의 고찰이 필요하다고 하였다.<sup>39)</sup>

이 외에도 서현주는 원삼국시대(철기시대) 패총의 형성배경을 기후변화에 따른 현상으로

35) 경남고고학연구소, 2007, 『고성 동외동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36) 蘇培慶, 2021, 「金海 鳳凰土城의 構造에 대한 試論-최신 발굴성과를 중심으로-」 『김해 봉황토성 학술대회 金官加耶 鳳凰土城』, pp.35~59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18, 『김해 봉황대유적과 고대 동아시아-가야 왕성을 말한다-』, 주류성

최경규, 2020, 「가야왕성의 공간구조와 경관」 『文物研究』第38號, (재)동아문화재단

37) 유병록, 2009, 「삼국시대 낙동강 하류역 및 남해안 취락의 특성」 『영남고고학회 2009년 학술대회발표집』, 제18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pp.79-105

38) 李盛周, 2009, 「原三國·三國時代 嶺南地域 住居와 聚落研究의 課題와 方法」 『영남고고학회 2009년 학술대회발표집』, 제18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pp.7~24

39) 최종규, 1996, 「한국원시의 방어집락의 출현과 전망」 『한국고대사논총』8, 한국고대사학회연구회, pp.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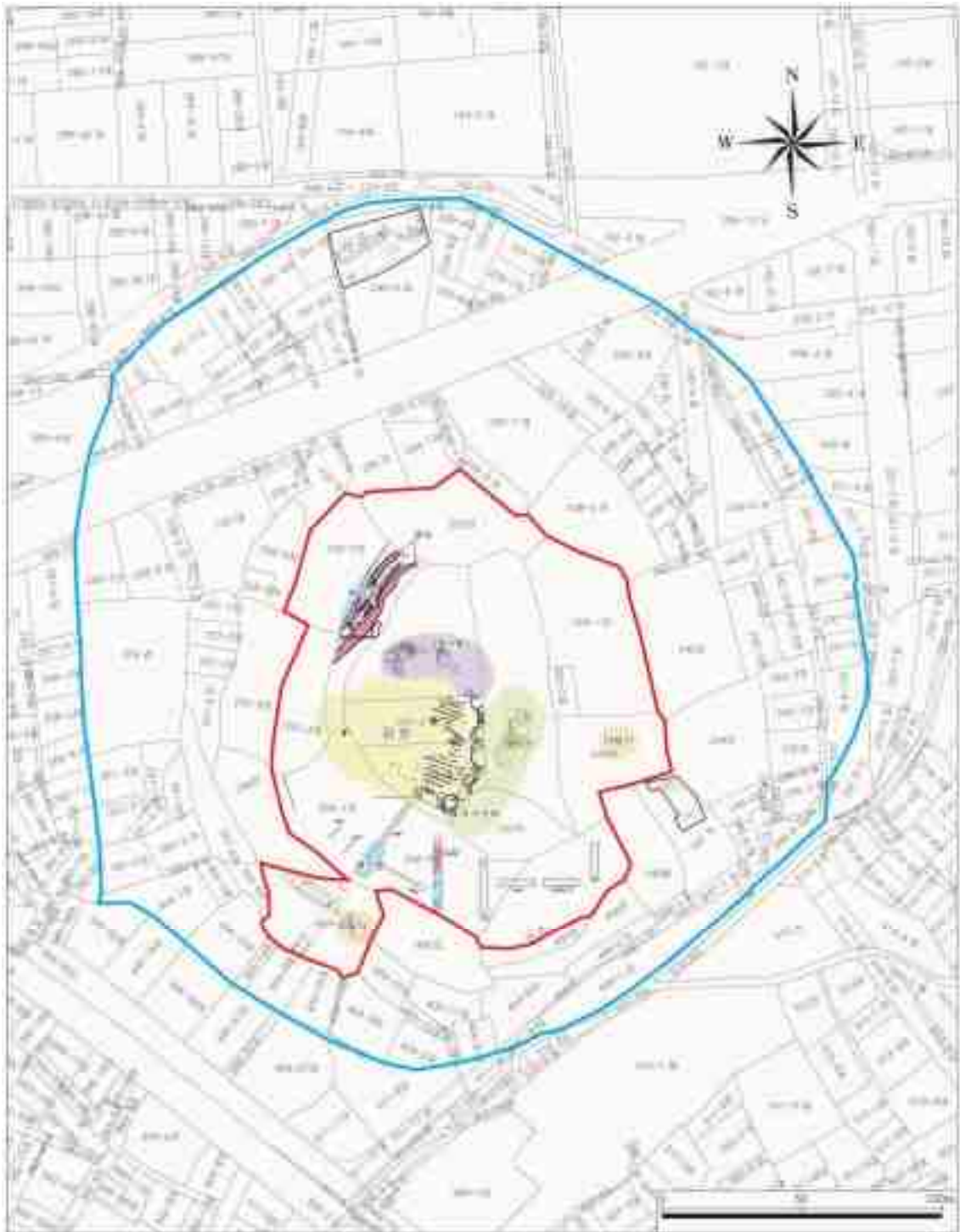


그림10. 지적도로 본 동외동유적의 범위(□:도 기념물 범위, □:유적의 범위)

파악하고 있다. 즉 기원후 2~3세기에 속하는 패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서 이 시기는 『三國史記』나 기후 관련 자료로 보아 한랭기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농업생산력이 감소하였고 상대적으로 해양과 육상의 자연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으며, 해안가에 패총이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sup>40)</sup> 기후의 한랭화와 패총의 형성이 어떤 상관관계

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공감되는 바이다. 그러나 한랭화로 인해 농업생산력이 떨어지고 자연자원인 해양자원을 취하면서 패총이 형성되었다는 논리라면 패총은 한랭화 이후에 나타나야 하고, 모든 패총이 해안가에 위치해야 할 것이나 실제로 패총은 한랭화 이전에도 나타났으며 高地에도 입지하고 있어 이와 같은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반면에 지리학자들은 당시 해수면이 높아져서 패총이 자연스럽게 高地에 입지<sup>41)</sup>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海進이 일어나서 농경지가 감소하게 되었고, 이에 사람들은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패류를 대량으로 채취하게 된 결과 패총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연구자 자신들이 인정한 것처럼 특별한 증거가 없이 그저 단편적인 추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고성 송학동고분군과 동외동유적 일대는 개간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선사시대에 대한 해수면 변동기록을 확인할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고성만과 당항만 일원에 대한 토양시료를 이용한 해수면 분석 결과에서 유의미한 자료가 확보되었다. 김정운은 한반도에서 비교적 해석의 차이가 없는 자료를 활용하여 해수면 변동기록을 복원하였다. 약 6,000년 전후한 시기에 고성만과 당항만에서 대독천과 고성천을 따라 침입한 해수가 2,300년 전 海退로 인하여 고성만 일대는 갯벌이 형성되고, 당항만 일대는 습지가 형성되었다. 이후 해수면이 다시 상승하면서 고성만은 內灣의 형태를 유지하였으나, 고성천 충적평야 일대는 높아진 해수면에 대응하여 넓고 얇은 담수 호수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소가야 세력이 점유하던 시기는 주로 고성만을 통해 교역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고성천 일대는 습지를 활용한 농경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 것(그림11)으로 보았다.<sup>42)</sup> 그러나 김정운의 고성지역 해수면 변동에 관한 연구는 토양시료를 통한 기존 연구와 비교 검증을 통해 더욱 진전된 연구이지만 송학동고분군에서 획득한 시료에서 해수와 관련된 유의미한 자료는 1개 지점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최성락과 김건수는 철기시대 패총의 형성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海路를 통해 철제기술의 도래가 이루어지면서 철기문화가 시작되었고 당시 해안지대로 주민들이 모이게 되면서 해안지역이 문화교류의 중심지가 된 것으로 보았다. 이것이 패총의 형성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이며, 내부적으로는 기후의 한랭화로 인하여 많은 주민이 해산물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더불어 이 시기에 나타난 주민집단 간의 갈등(전쟁, 약탈 등)에 의해 높은 高地에서도 패총이 형성<sup>43)</sup>된 것으로 보았다.

40) 서현주, 2000, 「호남지역 원삼국시대 패총의 현황과 형성배경」 『호남고고학보』 11, 호남고고학회, pp. 79~111

41) 조화룡, 1987, 『韓國의 沖積平野』, 교학사, pp.74~75, 117~178

42) 김정운, 2021, 「송학동고분군 일대 해수면 변동과 지형발달과정」 『固城 松鶴洞古墳群에 대한 比較考古學』, pp. 173~188

43) 최성락·김건수, 2002, 「철기시대 패총의 형성 배경」 『湖南考古學報』15輯, pp.74~76





그림11. 약 1,800년 전 동외동유적 일대 경관(김정운 2021)

또한 김해기패총 유적에는 火災住居址와 함께 3~4기의 주거지가 중복된 상태로 群을 이루며 발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의 사회적인 현상과 관련된다고 본다. 火災住居址와 여러번 중복된 주거지와 더불어 일부 주거지는 목책이나 환호에 둘러싸인 곳도 확인되고 있다. 화재주거지나 환호가 이 시기에 증가하는 것은 당시 사회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즉 화재주거지와 주거지 중복의 원인은 단순한 失火로도 볼 수 있으나 주민집단간의 갈등이나 전쟁이 있었던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해안의 高地性集落의 출현은 새로운 사회적 모순과 대립의 격화에 대응하고자, 각 지역집단에서 방어체제 네트워크의 재편과 강화의 일환으로 성립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양산-부산-김해-창원-고성지역 남해안 高地에 입지하는 김해기패총의 특징이다.

#### IV. 맺음말

동외동유적은 유적의 중요성에 비해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유적의 구조도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국립중앙박물관, 동아대학교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삼강문화재연구원의 조사에서 어느 정도 유적의 성격과 구조를 추정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과거의 조사는 트렌치조사와 긴급수습조사에 치우친 것이었고, 일정규모의 평면조사는 국립진주박물관과 삼강문화재연구원의 조사가 전부이다. 동외동유적 전체에서 보면 발굴이 완료된 부분은 일부분이다. 현재까지의 조사로 동외동유적의 공간배치와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던 점은 커다란 성과였지만, 현재로는 부분적인 발굴성과를 통해 전체를 추정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동외동패총이 어떠한 구조이며, 어떻게 발전하였는지는 발굴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구릉 정부를 둘러싼 環壕의 성격을 남해안의 高地性集落의 방어체제 네트워크라는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그중에서 環壕와 테라스는 임시방어시설로 中心集落인 土城으로 전환되거나 高地에서 低地로 中心集落이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동외동유적이 해상교역활동의 중심지였다는 논의는 그동안 여러 연구를 통해 축적되어 왔으며, 연구자간의 이견도 없다. 하지만 동외동유적과 당시의 古代景觀을 함께 생각해보면, 과연 津[港]은 어디에 위치하였는지, 古自國의 왕성은 어디에 있었는지 등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이 더 많다. 古自國 당시의 景觀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고성읍은 古自國의 중심지로 전해지나, 고대의 景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매장문화재조사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동외동유적 발굴에 수반하여 인근에 위치하는 남산토성, 만림산토성 및 동외동유적과 동시기로 파악되는 유적을 함께 조사하는 방법도 반드시 필요하다. 동외동유적과 능선으로 이어지는 南山土城(남산공원)과 만림산토성은 서로 마주보며 위치하는데, 고성만에서 고성읍으로 들어오는 關門에 해당되는 곳이다. 이 3곳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시·발굴조사 통해 海上勢力으로서의 古自國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 주 제 발 표 3.

남해안지역의 청동기문화와 정치체의 성장



# 남해안지역의 청동기문화와 정치체의 성장

조진선(전남대학교 문화인류고고학과)

## 목차

### I. 머리말

### II. 남해안지역의 청동기문화

1. 비파형동검문화의 청동기
2. 초기철기-원삼국시대의 청동기

### III. 남해안지역 청동기의 생산지

1. 비파형동검문화 청동기의 원료산지
2. 세형동검문화 청동기의 원료산지
3. 남해안지역 청동기의 생산지

### IV. 남해안지역에서의 정치체의 성장

1. 무기조합의 변화와 정치체의 성장
2. 남해안지역에서 무기조합의 변화와 정치체의 성장

### V. 맺음말

## I. 머리말

남해안지역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까지의 유적들이 많이 조사되고 있다. 청동기 시대도 예외가 아니어서 다양한 종류의 주거지와 지석묘 등이 조사되고 있다. 청동기시대 중기에는 비파형동검문화가 등장하는데, 전남 동부의 고흥-보성 지역부터 경남 동부의 김해 일대까지 집중분포한다. 그래서 한반도 비파형동검문화의 최대 밀집지역을 형성한다. 초기철기시대 세형동검문화는 한반도 중서부지역에 처음 등장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데, 남해안지역에는 기원전 3~2세기경부터 확인되기 시작한다. 남해안지역은 비파형동검문화가 발달해서인지 세형동검문화 유적들은 상대적으로 늦게 등장한다. 기원전 1세기경 원삼국시대가 시작되면서 세형동검문화가 크게 발달하며, 동시에 중원계 유물들이 증가하고 철기 사용이 본격화된다. 기원전후경에는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면서 삼국시대로 향한 발걸음을 가속화한다. 이에 따라 철기가 청동기를 대체해 가며, 한경이나 각종 화폐를 비롯한 중원계 유물과 중세형·광형동기를 비롯한 일본열도계 유물들도 확인된다.

본 발표에서는 우선 청동기시대부터 원삼국시대까지 남해안지역에서 발견된 청동기들을 정리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남해안지역에서 발견된 청동기들의 원료산지를 추정해보고, 청동 원료산지의 변화 양상을 파악해 볼 것이다. 그리고 남해안지역 청동기-원삼국시대

무기조합 관계를 통해 남해안지역에서 정치체의 성장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남해안지역의 청동기문화

남해안지역에서는 진주 옥방5지구에서 수습된 곡옥형 청동 장신구로 보아 청동기시대 이른 시기부터 청동기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크지만, 시기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남해안 지역에서 청동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시기는 청동기시대 중기에 비파형동검문화가 등장하면서이다. 한반도에서 비파형동검문화는 서북부, 중동부, 중서부 지역과 함께 남해안 지역에서 발달하였다. 남해안지역의 비파형동검문화는 전남 동부지역부터 경남지역에 걸쳐 집중분포한다. 초기철기시대에 세형동검문화가 등장하면서 좀 더 폭넓은 지역에서 청동기들이 확인되기 시작한다. 원삼국시대에는 철기문화로 급격하게 전환되며, 중원계와 일본열도계 청동기도 확인되기 시작한다. 한반도와 일본열도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쓰시마섬과 이키섬은 물론, 북부 규슈지역에서는 한반도계 청동기들이 다수 확인된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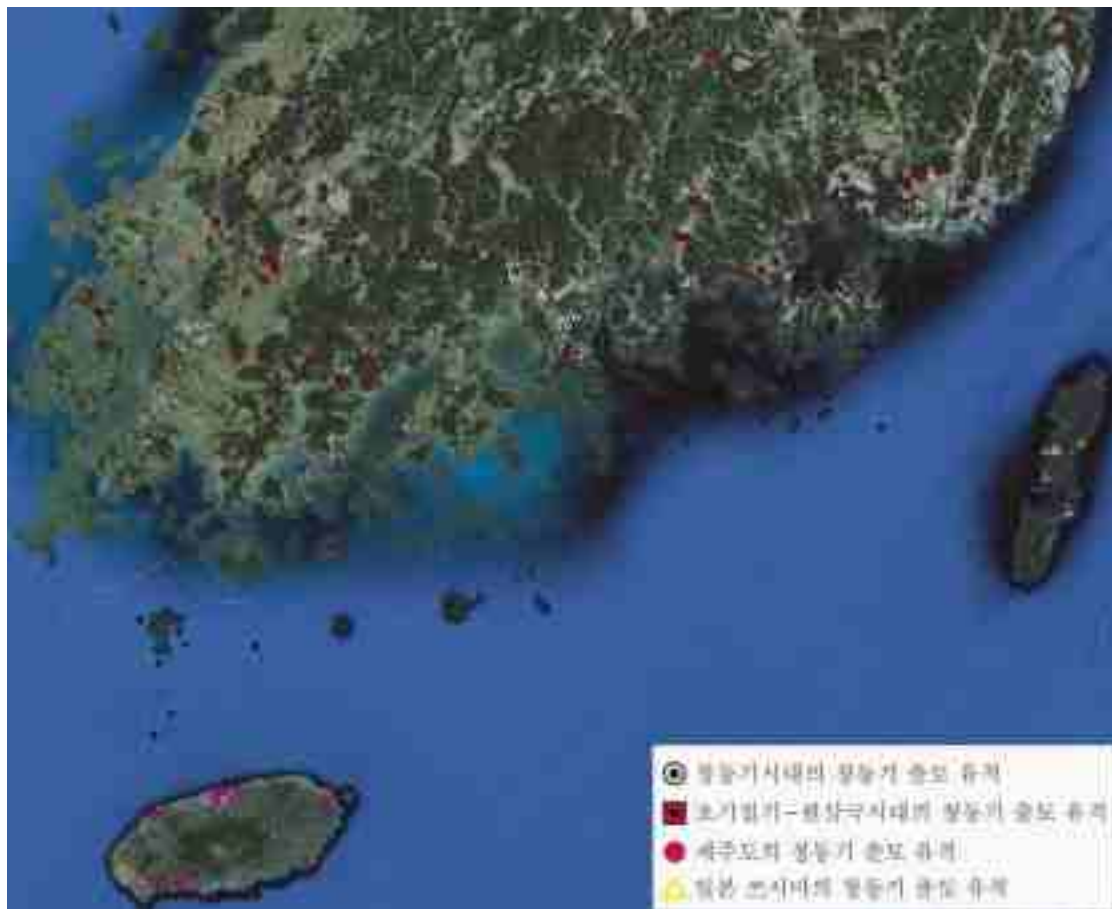


그림 1. 청동기시대~원삼국시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일대의 청동기 출토 유적

1. 비파형동검문화의 청동기

남해안지역에서는 지금까지 25개 유적(또는 지점)에서 40여 점의 비파형동검문화 관련 청동기들이 출토되었다(그림 2, 표 1)<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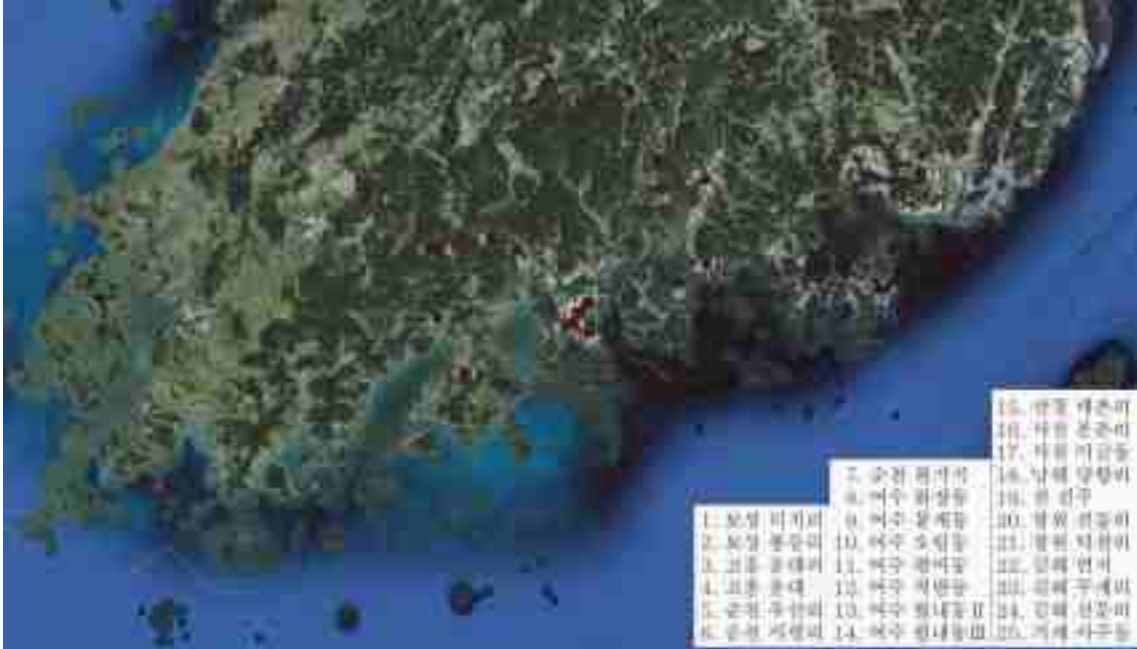


그림 2. 남해안지역의 비파형동검문화 관련 청동기 유적

표 1. 전라남도과 경상남도 남해안지역의 비파형동검문화

연번	유적명		출토유물		비고
			무기류	기타	
1	보성 덕치리 신기	1호 지석묘	비파형동검		
		15호 지석묘	동축·석촉29, 석검	토제품	
2	보성 봉릉리 지석묘		석검·검파두식, 동모		신고품
3	고흥 운대리		비파형동검		
4	고흥 운대 13호 지석묘		석촉2, 비파형동검	석도편, 지석, 무문토기편	
5	순천 우산리 내우	8호 지석묘	비파형동검	곡옥2, 소옥5	
		38호 지석묘	비파형동검		
6	순천 서평리 쌍암(수습)		비파형동모		
7	순천 월가곡 지석묘 가군 15-1호		동검편		
8	여수 확장동 26호 지석묘		석촉2, 비파형동검	어망추, 흥도편, 공열토기편 등	
9	여수 봉계동 월양 10호 지 석묘		비파형동검	소옥1, 관옥15	
10	여수 오림동	8호 지석묘	석촉, 비파형동검		
		5호 석곽	비파형동검	관옥	
11	여수 평여동 산본 나-2호		비파형동검		

1) “국립청주박물관, 2019, 『한국의 청동기 자료 집성 Ⅱ·Ⅲ』.”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이후에 발굴된 자료를 추가하였다.



貝塚, 環壕 그리고 防禦

	지석묘				
12	여수 적량동 상적 지석묘	7호 지석묘	비파형동검		
		2호 석곽	비파형동검, 비파형동모	관옥5, 유구석부, 홍도편 등	
		4호 석곽	비파형동검	홍도편 등	
		9호 석곽	비파형동검	석착, 지석, 홍도편 등	
		13호 석곽	비파형동검		
		21호 석곽	비파형동검		
		22호 석곽	비파형동검		
13	여수 월내동 상촌 지석묘Ⅱ	7호 지석묘	비파형동검		
		2호 묘역지석묘	비파형동검	훈암리식토키편	
14	여수 월내동 상촌 지석묘Ⅲ	92호 지석묘	석촉, 비파형동검		
		115호 지석묘	석촉2, 비파형동검	유구석부2	
		116호 지석묘	석촉3, 비파형동검	석기	
15	산청 매촌리	35호 석관묘	동촉·석촉24, 석검	적색마연토기	
16	사천 본촌리	10호 주거지	동검 암각화	지석	송국리 단계
17	사천 이금동	C10호	비파형동검		
		D4호	비파형동검	관옥41	
18	남해 당항리	1호묘	비파형동검	석기편, 적색마연토기편	
19	전 진주		비파형동검		
20	창원 진동리		석촉, 비파형동검·석검	적색마연호	
21	창원 덕천리	16호묘	비파형동검·석검	적색마연호	
22	김해 연지 지석묘		마제형 검파두식		
23	김해 무계리 지석묘		동촉3·석촉8, 석검	관옥3, 토기편4	
24	김해 신문리	3호 석관묘	비파형동검		
25	거제 아주동	13호묘	동촉·석촉2, 석검		

남해안지역에서 확인된 비파형동검문화 청동기들은 비파형동검 30점, 마제형 검파두식 1점, 비파형동모 3점, 동촉 6점, 동검 암각화 1점으로 41점에 달한다. 이 중에서 비파형동검과 관련된 유물들이 32점이어서 대부분을 차지한다. 비파형동모는 여수 적량동 상적 2호 석곽에서 발굴조사되었고, 보성 봉릉리 지석묘와 순천 서평리 쌍암 유적에서 각각 1점씩 수습되었다. 동촉은 보성 덕치리 신기 15호 지석묘에서 1점, 산청 매촌리 35호 석관묘에서 1점, 김해 무계리 지석묘에서 3점, 거제 아주동 13호 묘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 보성 덕치리 신기 15호 지석묘와 산청 매촌리 35호 석관묘 출토품은 비파형동검의 봉부편을 재가공한 것으로 보여서 당초부터 동촉으로 제작한 것은 아니다. 김해 무계리와 거제 아주동 출토품은 남아있는 상태가 좋지 않아 당초부터 동촉으로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이를 보면, 남해안지역 비파형동검문화는 전남 동부지역부터 경남지역에 걸쳐 밀집분포하며, 비파형동검이 중심을 이룬다. 비파형동모와 동촉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그 수량이 많지 않다. 사천 본촌리 10호 주거지에서 동검이 음각된 암각화가 발견된 것도 특기할만하다.

## 2. 초기철기-원삼국시대의 청동기

남해안지역에서는 초기철기시대부터 원삼국시대의 청동기들도 다수 확인된다. 세형동검 문화 성립기에 해당하는 유물은 거의 확인되지 않지만, 발전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원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쇠퇴기 유적들이 많이 확인된다. 청동기들은 원삼국시대 늦은 시기 까지 확인된다(그림 3. 표 2)<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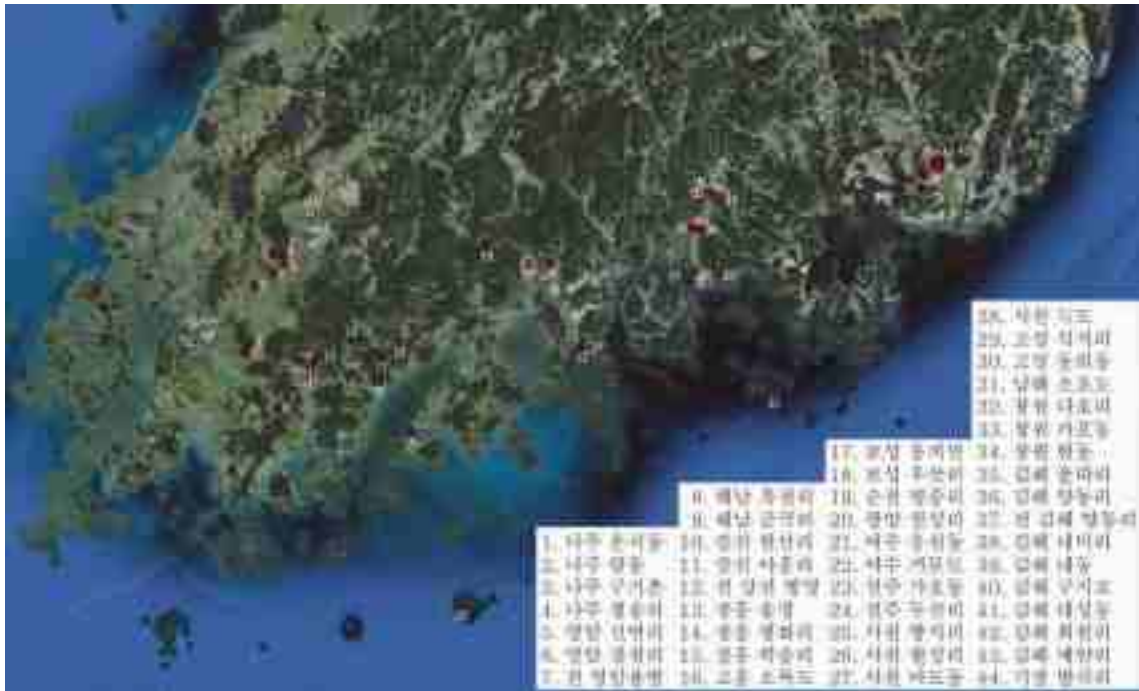


그림 3. 남해안지역의 초기철기-원삼국시대 청동기 출토 유적

표 2. 남해안지역 초기철기-원삼국시대 청동기 출토 유적

연번	유적명	출토유물			비고
		무기류	기타 청동기	기타	
1	나주 랑동 유물포함층		화천2		
2	나주 운곡동 1호 지석묘	석촉, 세형동검편		철착	
3	나주 구기촌 9호묘	철검·검파두식·검초부속구, 철모	우각형동기, 삼각형동기, 칠기테두리 금구	철부, 호형토기	
4	나주 청송리	세형동검편			수습
5	영암 신연리	검파두식, 동모			수습
6	영암 장천리 1호 지석묘	세형동검·검파두식(석)		숫돌, 무문토기편	
7	전 영암용범 일괄	세형동검, 동모, 동과	동부, 동착, 동사, 낚시바늘, 송곳		수습
8	해남 흑천리 마등 1호 토광묘		화천13	발, 흑도, 유리구슬 78	
9	해남 군곡리 패총 Ⅱ기층		화천	다수	
10	강진 현산리 1호묘	세형동검·검파두식, 동과		흑도장경호	

2) “국립청주박물관, 2019, 『한국의 청동기 자료 집성 Ⅱ·Ⅲ』.”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이후에 발굴된 자료를 추가하였다.

貝塚, 環壕 그리고 防禦

11	강진 아흥리	동모				수습
12	전 강진 병영	정문경편				수습
13	장흥 송정 나군 16호 지석묘	석축, 동과편(?)				
14	장흥 평화리 3지점 14호 수혈		대포항천			
15	장흥 학송리	동과				수습
16	고흥 소록도	석축6	조문경	석부		수습
17	보성 응치면	세형동검				수습
18	보성 우산리 현촌	1호묘	석축2, 세형동검		철재갈, 점토대토기 2, 연질토기편	
		2호묘	동모			
		3호묘	석축14, 세형동검·검파두식, 동모	청동편	철부, 철착	
19	순천 평중리 평지 지석묘	세형동검		석검		신고
20	광양 칠성리 14호 수혈	검파두식(석제)		타날문토기편 등		삼국시대
21	여수 웅천동 응동 1호 토광묘	세형동검				
22	여수 거문도		오수전980			
23	진주 가호동 1호 묘역지석묘	석축, 석검편	청동팔찌			
24	진주 두산리	세형동검편				수습
25	사천 방지리 86호 수혈	검파두식(토)		두형토기, 무문토기편 등		
26	사천 월성리 1호묘		정문경, 동사			
27	사천 마도동	세형동검, 동모	동환, 쌍두관상 동기	유리구슬5		수습
28	사천 녹도	A가100호묘	세형동검		철사, 관옥, 뼈작살	
		A나40호 소성유구	삼릉형 철경동촉		옹, 구슬 고타석, 지석 등	
		A나 기타	검파두식(활석제·토제)			
		B가203호	삼릉형 철경동촉			
		B가245호 주거지	중세형동검		석제 버루, 각종 토기 등	
		B나139호 유구		이체자명대경편		
		C지구		만량전4, 오수전		
29	고성 석지리	세형동검				수습
30	고성 동외동	검부속구(검파·검파두식·연결금구), 광형동모	한경			
31	남해 소초도	검파두식(동)		무문토기편		수습
32	창원 다호리	1호묘	활·화살대·철촉, 철초동검·철초철검·목제검파부철검·철검, 동모·철모, 철과	청동대구, 거치문동환, 동환, 동탁, 성운문경, 오수전3	각종 토기, 각종 철기, 각종 칠기, 각종 목기, 칠기붓, 칠기부채, 유리구슬, 초본류 등	
		2호묘	검부속구(검초금구편)		각종 토기, 숫돌, 목기, 칠기 등	
		3호묘	검부속구(검초금구), 철모	원형동기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꺾쇠, 지석 등	

		6호묘	세형동검·철검, 철모, 철과		각종 토기, 각종 철기, 석부 등	
		15호묘	칠초철검(검초금구)		각종토기, 각종 철기 등	
		19호묘	칠초동검, 철모	쌍두관상동기, 우각형동기, 유구동기	각종 철기 등	
		23호묘	철검·검파반부금구, 철모		각종 철기 등	
		24호묘	칠초동검, 동모		각종 토기, 각종 철기, 지석 등	
		63호묘	세형동검(검파두식), 철모		각종 토기, 각종 철기, 지석, 각종 철기 등	
		이밖에도 청동기가 출토된 유구로는 73호, 92호, 93호, 104호, 118호, 119호, 120호, 125호, 141호, 149호, 150호, 151호 등이 있으며, 출토 양상은 대동소이함				
33	창원 가포동		동검, 동모, 동과	동사	돌보습, 점토대토기편	
34	창원 현동		세형동검			수습
35	김해 율하리 지석묘 B-9호		세형동검(검파두식)			
36	김해 양동리	17호묘		동천3	각종 토기, 각종 철기, 유리구슬365	
		55호묘	철촉, 철검(청동제검파와 검파두식), 철모	동경, 팔자형동기, 환형동기2,	각종 철기, 각종 토기, 유리구슬 등	
		99호묘	철촉, 철검, 철모	청동환	각종 토기, 각종 철기, 경식 등	
		162호묘	철촉, 철검, 철모	동경10, 환형동기	와질대부장경호, 철재갈, 철복 등 철기	
		427호묘	철촉, 동검	동경3	각종 철기, 유리경식	
37	전 김해 양동리		세형동검2·검파두식, 동모2			
38	김해 내덕리 19호 목관묘		세형동검(검초금구), 광형동모	원통형동기, 방격규구사신경		
39	김해 내동 지석묘		세형동검		흑도장경호	수습
40	김해 구지로	12호묘		동천	각종토기, 각종철기, 관옥, 환옥, 유리구슬2000	
		42호묘		마형대구		
41	김해 대성동 67호 목관묘			호형대구	소용, 단경호	
42	김해 회현리	패총		화천		
		3호 옹관묘	세형동검2	동사9	관옥	
43	김해 예안리	128호분	세형동검편			
		수습	세형동검			수습
44	부산 기장 방곡리 1호 토광묘		철검(청동제 검파·검파두식)			

남해안지역에서 조사된 세형동검문화 청동기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유물은 고흥 소록도에서 석촉·석부와 함께 발견된 조문경이다. 조문경의 배면에는 8점 성문으로 추정되는 문양이 베풀어져 있어서 조문경 가운데 비교적 늦은 형식으로 생각된다<sup>3)</sup>. 이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발전기 이후에 해당한다. 전 영암 용범 일괄유물은 주형에 새겨진 청동기물로 보아 발전기에 영산강유역에서 사용된 용범으로 생각된다<sup>4)</sup>.

3) 趙鎭先, 2008, 「多鈕粗文鏡의 形式變遷과 地域的 發展過程」, 『韓國上古史學報』62.

남해안지역에서는 세형동검문화의 발전기에 해당하는 청동기들이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들판에서 확인되기 시작하는데, 장흥 학송리 동과, 여수 응동 토광묘의 세형동검, 사천 월성리 토광묘의 정문경, 김해 내동 지석묘의 세형동검, 김해 회현리 3호 옹관묘의 세형동검과 동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청동기들은 영남 내륙지역에서 세형동검문화가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전에 등장하였는데, 일본열도로 이어지는 항로와 관련될 유적들로 생각된다(그림 4)<sup>5)</sup>.



그림 4. 남해안지역에서 조사된 세형동검문화 성립기·발전기의 청동유물과 항로

남해안지역에서 세형동검문화의 청동기들이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시기는 원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쇄퇴기부터이다. 이 시기에는 철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청동기는 쇄퇴하기 시작하고, 중국계 한경이나 화폐, 일본열도계 중세형동검이나 광형동모 등이 확인된다. 이러한 양상은 남해안지역이 동북아시아 교류의 중심으로 부상한 것을 보여준다.

### Ⅲ. 남해안지역 청동기의 생산지

4) 趙鎭先, 2007, 「전 영암용범의 연대와 출토지」, 『湖南考古學報』25.  
 5) 趙鎭先, 2019, 「前近代의 韓日航路와 細形銅劍文化의 波及 經路」, 『한국상고사학보』105.

1. 비파형동검문화 청동기의 원료산지

남해안지역 비파형동검문화 청동기의 성분조성비는 파괴분석된 사례가 없어서 알 수 없다. 그러나 성분조성은 모두 구리-주석-납의 3원계 합금으로 확인되었고, 비소(As)가 미량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sup>6)</sup>. 동북아시아 비파형동검문화 청동기들의 성분조성은 구리-주석-납 3원계 합금 중심이지만 구리-주석, 구리-납, 구리-주석-납-비소, 구리-비소 합금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남해안지역 비파형동검문화 청동기들의 성분조성은 공통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표 3)

표 3. 남해안지역 비파형동검문화 청동기의 성분분석(비파괴분석, 구리(Cu) 최대값)

연번	유물번호	검출 원소(wt.%)				참고문헌
		구리(Cu)	주석(Sn)	납(Pb)	합계	
1	여수 오림동 8호 지석묘	53.39	37.04	9.54	99.97	국립광주박물관 2022
2	여수 평여동 산본 나군 2호	95.08	0.38	4.50	99.96	국립광주박물관 2022
3	여수 적량동 상적 2호 석곽	78.15	8.59	13.24	99.98	국립광주박물관 2022
4	여수 적량동 상적 21호 석곽	82.17	4.29	13.34	99.8	국립광주박물관 2022
5	여수 적량동 상적 22호 석곽	58.70	31.69	9.58	99.97	국립광주박물관 2022
6	여수 월내동 상촌Ⅱ 7호 지석묘	73.08	11.64	14.86	99.58	국립광주박물관 2022
7	여수 월내동 상촌Ⅱ 2호 묘역식 지석묘	71.78	9.6	16.76	98.14	국립청주박물관 2020
8	여수 월내동 상촌Ⅲ 92호 지석묘	75.60	15.91	7.88	99.39	국립청주박물관 2020
9	여수 월내동 상촌Ⅲ 115호 지석묘	54.18	23.88	20.66	98.72	국립광주박물관 2022
10	사천 이금동 C-10호 지석묘	48.00	41.31	10.16	99.47	국립청주박물관 2020
11	김해 신문리 3호 석관묘	82.97	13.09	3.16	99.22	국립청주박물관 2020
12	창원 덕천리 16호묘	13.95	72.85	10.02	96.82	국립청주박물관 2020
13	김해 연지 지석묘	62.36	25.31	11.58	99.25	국립청주박물관 2020

비파괴분석은 일반적으로 구리 함량이 줄어들고, 주석과 납 함량이 증가한다<sup>7)</sup>. 이를 토대로 남해안지역 비파형동검문화 청동기들을 살펴보면, 구리 함량이 80%를 상회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충격을 받으면 부러질 가능성보다는 구부러질 가능성이 크다.

청동기의 생산지는 고고학적 관찰이나 납동위원소비 분석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송국리유형 분포권에서 확인되는 비파형동검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다. 비파형동검의 경부에 홈이 파진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들지만, 이것은 주조 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검병을 장착하기 위한 것과 관련될 것이다. 그보다는 주형속성에 해당하는 것에서 찾아야 하는데, 우선 주목되는 것이 비파형동검의 크기이다. 여수 월내동 상촌Ⅲ 116호 지석묘에서 출토된 비파형동검은 전체 길이 43.2cm, 검신길이 40.2cm에 달하는

6) 국립광주박물관, 2022, 『여수 - 그 시절의 바다』.  
 7) 조진선·이은우, 2021, 「한국 청동기-초기철기시대 청동기 합금기술의 발전과정」, 『한국고고학보』2021 권4호.

데, 이러한 비파형동검은 요동이나 요서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전 상주 출토품으로 알려진 비파형동검 3점을 보면, 전체길이가 각각 41cm, 42cm, 38.3cm로 이와 유사할 뿐 아니라 경부에 홈도 파져 있다. 그뿐 아니라 송국리유형 분포권에서 출토된 비파형동검들은 등대에 있는 용기부가 유난히 심하게 돌출되어 있으며, 검신기부가 평퍼짐하게 올라간다. 그래서 남해안지역에서 출토된 비파형동검들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남한지역에서 주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납동위원소비 분석을 토대로 한 원료산지 추정도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표 4. 비파형동검문화 청동기의 납동위원소비와 산지추정

연번	유적	유물	$^{206}\text{Pb}/^{204}\text{Pb}$	$^{207}\text{Pb}/^{204}\text{Pb}$	$^{208}\text{Pb}/^{206}\text{Pb}$	원분석자 산지추정	발표자 산지추정
1	여수 화장동 26호 지석묘	비파형동검	18.072	15.575	2.117		남한(3)
2	여수 적량동 상적 2호 석곽	비파형동모	18.092	15.541	2.111	남한	남한(3)
3	여수 적량동 상적 4호 석곽	비파형동검	18.011	15.562	2.123	남한	남한(3)
4	김해 연지 지석묘	검파두식	19.330	15.724	2.0402	남한	남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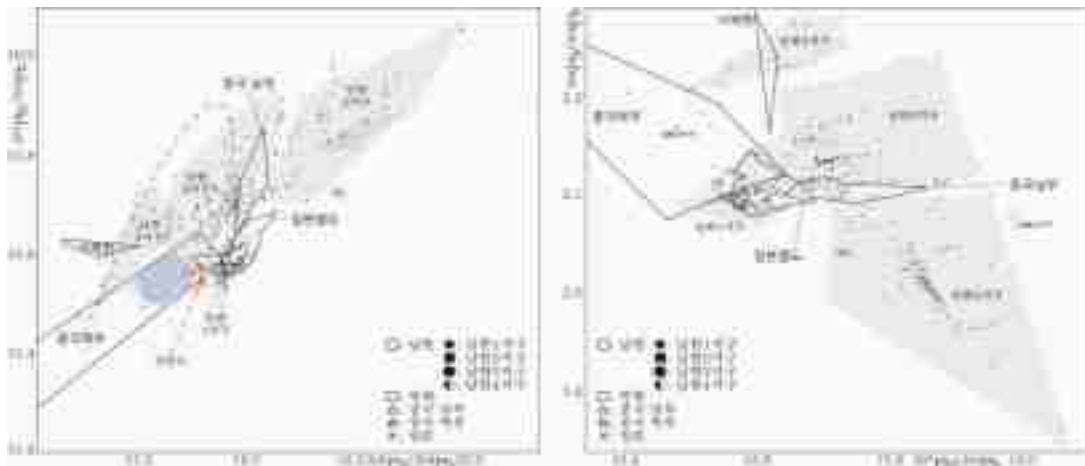


그림 5. 남해안지역 비파형동검문화 청동기의 납동위원소비에 의한 산지추정

남해안지역 비파형동검문화 청동기 중에서 납동위원소비가 측정된 사례는 현재까지 4점이다(표 4, 그림 5). <그림 5>에서 보는 것처럼 여수 화장동과 여수 적량동 유적에서 출토된 비파형동검과 비파형동모는 납동위원소비가 서로 근사해서 원료산지가 가까운 지역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최주는 여수 적량동 출토품의 원료산지를 철곡광산이나 영암광산으로 추정하였는데<sup>8)</sup>, 발표자 역시 충청·전라지역을 중심으로 하면서 경상 북부 일부를 포함하는 남한3지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김해 연지 지석묘에서 출토된 마제형 검파두식은 청주 학평리, 광주 역동 출토품과 더불어 강원도 동남부에 해당하

8) 崔炷, 1996, 「슴베에 홈이 있는 琵琶形銅劍 및 琵琶形銅矛의 國産에 대하여」, 『先史와 古代』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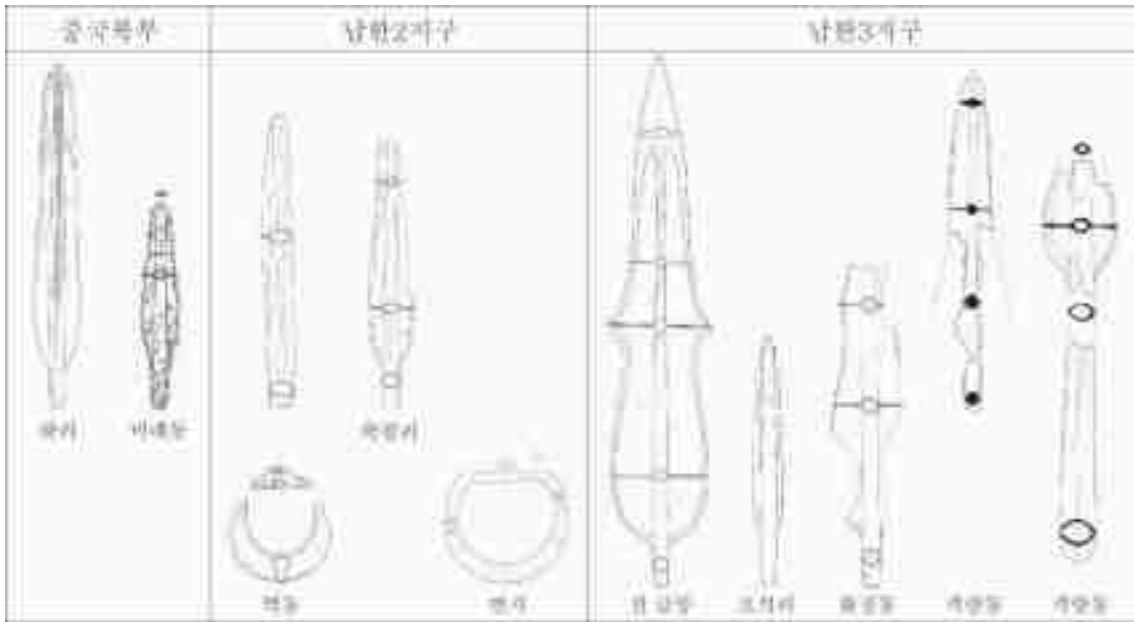


그림 6. 비파형동검의 형식과 원료산지의 관계(축척 1/6)

는 남한2지구산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sup>9)</sup>.

남한지역에서 출토된 비파형동검은 형식과 원료산지 사이에 상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송국리유형 분포권에서 확인되는 경부에 홈이 있는 비파형동검들은 모두 남한3지구산 원료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크지만, 요동지역 비파형동검과 유사한 청주 학평리 비파형동검과 김해 연지 마제형 검파두식은 남한2지구산 원료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평창 하리나 대전 비래동 동검은 중국북부산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6). 대전 비래동 동검은 세형동검을 전용해서 비파형동검처럼 사용한 것이며, 평창 하리 동검은 일반적인 비파형동검의 형태를 벗어난 것이다. 남해안지역 비파형동검문화 유적들은 남한지역 방연광 분포도에서 대부분 남한1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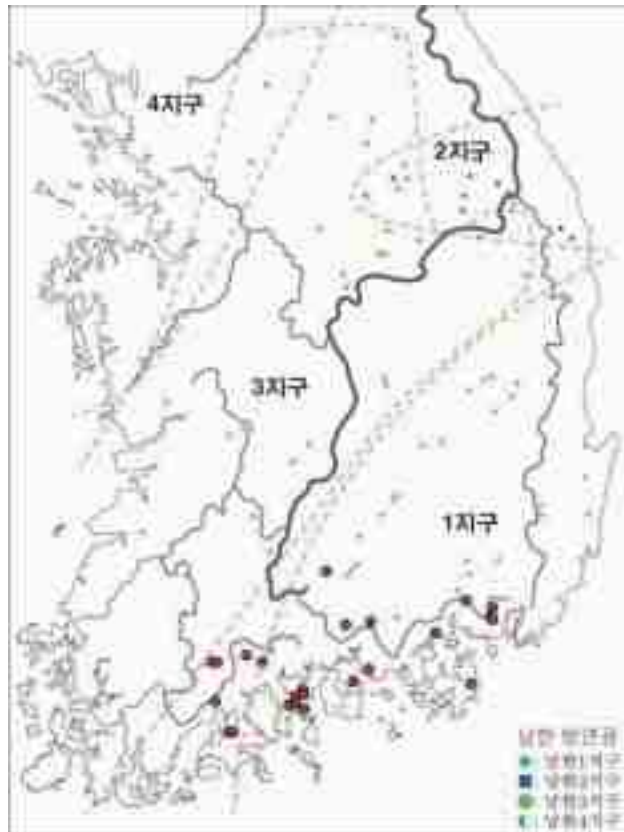


그림 7. 남한지역 방연광 4개 지구와 남해안지역 비파형동검문화 청동기 출토 유적

9) 조진선·이은우, 2021, 「남한지역 청동기-초기철기시대 청동기의 산지추정과 의미」, 『한국상고사학보』114.

**貝塚, 環壕 그리고 防禦**

위치하지만, 납동위원소비는 남한3지구나 남한2지구산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7). 그래서 유적들이 위치한 남한1지구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남해안지역에서 소비된 비파형동검문화의 청동기들은 원료산지와 생산지가 달랐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료산지가 남한지역이라는 점에서 생산지 역시 남한지역을 벗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sup>10)</sup>

**2. 초기철기-원삼국시대 청동기의 원료산지**

남해안지역에서 조사된 초기철기-원삼국시대의 청동기 역시 과학적 분석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청동기의 성분조성은 주로 구리-주석-납의 3원계 합금이다(표 5).

표 5. 세형동검문화의 청동기 성분분석(비파괴분석, 구리(Cu) 최대값)

연번	유적명	유물	검출 원소(wt.%)				참고문헌
			구리(Cu)	주석(Sn)	납(Pb)	합계	
1	여수 응천동 1호 토광묘	세형동검	40.79	53.20	5.99	99.98	국립광주박물관 2022
2	사천 월성리 1호 토광묘	동사	63.09	31.66	4.62	99.37	국립청주박물관 2020
		정문경	57.83	34.37	7.13	99.33	
3	합천 영창리 22호 수혈	동촉	76.18	15.07	8.19	99.44	국립청주박물관 2020
		세형동검	29.04	51.9	18.02	98.96	

파괴분석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남해안지역 세형동검문화 청동기의 정확한 성분조성비는 알 수 없지만, 남한지역 세형동검문화 청동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남한지역 세형동검문화 청동기의 성분조성비는 『周禮』 「考工記」의 ‘金有六齊’와 거의 대부분 일치한다.(표 6) 이는 당시의 선진지역인 중국 중원지역과 견줄 수 있을 만큼 청동기 합금기술이 발달한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세형동검을 비롯한 청동기들이 실용기였음을 보여준다.

표 6. 세형동검문화 청동기의 성분조성 및 성분조성비

문화유형	성분조성	성분조성비(%)		기종	「고공기」 금유육제
		구리	주석+납		
세형동검 문화 (발전기)	구리-주석-납 구리-주석	80	20	동과	戈戟之齊
		75	25	세형동검, 동모, 유견동분	大刀之齊
		71	29	동촉, 동사	削殺矢之齊
		68	32	정문경	鑑燧之齊

표 7. 세형동검문화 발전기 청동기의 산지추정(전남권)

연번	유적	유물	<sup>206</sup> Pb/ <sup>204</sup> Pb	<sup>207</sup> Pb/ <sup>204</sup> Pb	<sup>208</sup> Pb/ <sup>206</sup> Pb	일본석자 산지추정	본고 산지추정
1	장성 북이면	세형동검	17.549	15.494	2.1727		중국북부
2	광주 유덕동	세형동검	20.783	15.999	2.0057		남한(?)

10) 조진선·이은우, 2021, 「남한지역 청동기-초기철기시대 청동기의 산지추정과 의미」, 『한국상고사학보』114.

3	함평 월산리	세형동검	19.249	15.753	2.0679	한국(2)	남한(2)
4	함평 월산리	세형동검	19.208	15.705	2.0639	한국(2)	남한(2?)
5	나주 청송리	세형동검	17.691	15.534	2.16		중국북부
6	보성 웅치	세형동검	18.993	15.746	2.0855		남한(2)
7	장흥 학송리	동과	20.427	16.034	2.0165		남한(2)
8	영광 수동	새무늬청동기	17.771	15.547	2.1618	중국북부	중국북부
9	영광 수동	방제경	18.565	15.695	2.1154	중국남부/ 한국남부	중국남부/ 남한(3)
10	삼천포 늑도 203호	세형동검(?)	18.666	15.688	2.0996		중국남부/ 남한(2?)
11		삼릉형 철경동촉	17.807	15.542	2.1554		중국북부
12	김해 양동리	광형동모	17.655	15.443	2.1560		중국북부
13	김해 양동리	중광형동모	17.742	15.549	2.1643		중국북부
14	김해 양동리	검파두식	17.7203	15.484	2.1641	중국북부	중국북부
15	김해 양동리	대형동모	17.7405	15.530	2.1573	중국북부	중국북부
16	김해 양동리	동경	17.2955	15.137	2.1573		미상 (중국북부)
17	김해 양동리	동모	17.6548	15.451	2.1598		중국북부
18	김해 양동리	동천	17.7619	15.529	2.1611		중국북부
19	김해 양동리	검병부	18.4501	16.339	2.1646		미상
20	김해 내덕리 19호 목관묘	광형동모	17.884	15.573	2.1535		중국북부
21		동구	18.301	15.634	2.1223		중국남부

초기철기-원삼국시대 남해안지역에서 조사된 청동기의 원료산지는 납동위원소비 분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지금까지 20여 점의 청동기들이 납동위원소비 분석되었다. 이를 보면, 기원전 2세기경에는 남한지역, 그중에서도 강원도 동남부지역에 해당하는 남한2지구산 원료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중국북부산 원료도 일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전후경에 해당하는 청동기 중에는 납동위원소비 분석된 사례가 없지만, 경북 내륙지역에서 조사된 경산 양지리 유적 청동기들의 납동위원소비 분석 결과를 보면, 남해안지역 청동기 역시 중국북부산 원료를 사용한 것들이 절대다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원후 1세기 후반의 청동기들도 여전히 중국북부산 원료를 많이 사용하지만, 중국남부산 원료도 사용하



그림 8. 남한지역 방연광 4개 지구와 남해안 지역 초기철기-원삼국시대 청동기 출토 유적

기 시작한다. 그래서 남해안지역 청동기의 원료산지는 남한지역 원료를 사용하다가 중국 북부산 원료의 비중이 급증하고, 이어서 중국남부산 원료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경상분지에 해당하는 남한1지구산 원료를 사용한 청동기가 확인되지 않은 점은 큰 특징이다.

### 3. 남해안지역 청동기의 생산지

이상과 같이 남해안지역 청동기의 성분조성은 주로 구리-주석-납의 3원계 합금이며, 원료산지는 시기에 따라 변화를 보인다.

비파형동검문화는 남한3지구를 중심으로 하면서 남한2지구산 원료도 일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형동검문화의 발전기에는 남한2지구산 원료가 중심을 이루지만, 쇠퇴기에 해당하는 원삼국시대부터는 중국북부산 원료가 급증하며, 기원후 1~2세기부터는 중국남부산 원료도 사용한다. 원삼국시대에는 세형동검을 비롯한 재지적인 청동기와 한경을 비롯한 중원계 청동기들이 함께 확인된다. 어느 경우이건 중국북부산 원료를 사용한 경우가 절대다수여서 중국북부에서 완성된 제품뿐 아니라 청동원료도 함께 수입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청동기시대부터 원삼국시대까지 남한1지구산 원료를 사용한 청동기가 사실상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지적인 청동기조차도 생산지가 서북한지역이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청동기의 생산지 문제는 납동위원소비 분석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어서 고고학적 정황을 분석해야만 한다. 그러나 서북한지역 고고학 자료에 대한 접근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속단하기 어렵다.

김해 율하리 B-9호에서는 세형동검과 검파두식이 출토되었는데, 세형동검은 검신 상부가 대부분 결실되었다. 크기는 남은길이 13.4cm, 복원 너비 3.4cm이고 무게는 59g이다. 검신 하부와 상부 비율을 고려하면, 이 세형동검의 검신길이는 22~24cm로 추산된다. 이 동검의 특징은 무게가 59g에 불과한 점인데, 일반적인 남한지역 세형동검의 2/3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검엽 두께의 오차폭도 크다. 이러한 세형동검은 남한지역보다는 일본열도 세형동검의 속성과 가깝다. 예를 들면, 吉武高木 K116 옹관묘 출토품(Ⅱ2/B'a식)이나 吉武大石 K45.140 옹관묘 출토품(Ⅱ'2/B'a식), 吉武樋渡 K77 옹관묘 출토품(Ⅱ'2/B'a식)과 유사하다. 그래서 김해 율하리 B-9호 출토품은 기원전 2~1세기에 일본열도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의 한일 교류관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생각된다<sup>11)</sup>. 사천 늑도 B지구 가245호에서 출토된 동검은 그동안 세형동검으로 알려졌지만, 전체길이가 37.5cm에 달하는 중세형동검이다. 이러한 형태의 동검은 日C군에 해당하며, 야요이시대 중기 후반, 즉 기원전 1세기경에 주로 유행한다<sup>12)</sup>. 이러한 청동기들은 기원전 2~1세기경부터 남해안지역에 일본열도산 청동기들도 유통되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며, 기원후 2~3세기에는 그 수량이 더욱 증가한다.

11) 조진선, 2012,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용범과 청동기로 본 한국 청동기문화의 이해」『崇實大學校 韓國基督教博物館誌』8.

12) 趙鎭先, 2018, 「九州地域 細形銅劍文化의 展開過程과 韓半島」, 『호남고고학보』60.

## IV. 남해안지역에서 정치체의 성장

### 1. 무기조합의 변화와 정치체의 성장

한반도에서 청동기시대는 청동기가 많지 않아서 무문토기시대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용천 신암리 유적에서 청동손칼과 청동단추가 출토되었고, 정선 아우라지 유적에서는 청동장신구가 출토되는 등 최근 들어 청동기시대 이른 시기의 자료들이 증가하고 있다. 남해안지역에서도 진주 옥방 5지구에서 수습된 곡옥형 청동 장신구로 보아 이른 시기부터 청동기가 등장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청동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시기는 비파형동검문화가 등장하는 청동기시대 중기부터이다<sup>13)</sup>.

청동기시대 사회·정치 유형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송국리유형은 위계가 형성된 사회였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하지만 강제력이 어느 정도 개입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sup>14)</sup>.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송국리유형의 전역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지역에 따라 양상을 달리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 않다<sup>15)</sup>.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지석묘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양하다. 지석묘 사회는 이미 위계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는 연구자들도 있지만<sup>16)</sup>, 반대로 공동체적 성격이 강한 평등사회로 보기도 한다<sup>17)</sup>. 최근에는 초기의 부계씨족-세대공동체의 분화단계로부터 농경공동체의 족장이 등장하는 단계까지 사회적 성격이 점진적으로 달라지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sup>18)</sup>. 좀 더 구체적으로 지석묘 발전과정을 4단계로 구분하고, 세형동검문화와 병행하는 IV기에 이르러서야 다수의 지역을 지배하는 지배자의 출현을 통해 불평등한 군장사회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sup>19)</sup>.

이를 보면, 청동기시대 중기를 대표하는 송국리유형이나 지석묘 사회의 정치·사회 성격을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취락이나 분묘에서 보이는 차이가 어느 정도여야 복합사회에 진입했다고 판정할 보편적인 규칙은 없지만, 때로는 일반적인 분묘에 비해 월등한 규모와 풍부한 부장양상을 보이는 소수의 분묘가 확인되면 복합화를 추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방의 변화에 주목하여 복합사회로의 진입을 언급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음은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sup>20)</sup>

13) 조진선, 2020, 「한국 청동기-초기철기시대의 시기구분 -금속기의 출현과 정치체의 등장을 기준으로-」, 『韓國青銅器學報』27.

14) 김장석, 2008, 「송국리단계 저장시설의 사회경제적 의미」, 『한국고고학보』67.

15) 이종철, 2016, 『청동기시대 송국리형문화의 전개와 취락 체계』.

16) 崔夢龍, 1981, 「全南地方 支石墓社會와 階級の 發生」, 『韓國史研究』39.

이영문, 2002, 『韓國 支石墓 社會 研究』, 學研文化社.

17) 박희현, 1984, 「한국 고인돌 문화에 대한 고찰 -상한연대를 중심으로-」, 『韓國史研究』46.

李南奭, 1985, 「青銅器時代 韓半島 社會發展段階 問題 -무덤변천을 통해 본 남한지역사회발전-」, 『百濟文化』16.

18) 朴淳發, 1997, 「漢江流域의 基層文化와 百濟의 成長過程」, 『韓國考古學報』36.

19) 김승욱, 2007, 「분묘 자료를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조직과 변천」, 『계층 사회와 비배자의 출현』 사회평론.

20) 김범철, 2015, 「10. 사회성격의 이해」, 『한국 청동기문화 개론』, 진인진.

국가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데, 정치학에서는 영토, 국민, 주권(통치권), 정부(통치기구)를 중요 요소로 들고 있으며, 매클버(Maclver)는 ‘일정한 영토 안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구 전체에 대한 물리적 강제력을 법을 통해 움직이는 기관’으로 정의하였다<sup>21)</sup>. 그래서 매클버는 “물리적 강제력”의 행사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물질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고고학에서 “강제력”의 행사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필자는 강제력을 수반한 수장권의 형성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회·정치유형과 전쟁유형, 전쟁유형과 무기조합의 관계를 살펴보았다<sup>22)</sup>.

전쟁인류학과 전쟁고고학의 연구 성과들을 보면, 사회·정치유형과 전쟁유형은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다. 부족사회(tribe)의 전쟁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원격전을 주로 벌이지만, 위계가 형성된 군장사회(chiefdom)는 원격전과 근접전(백병전)으로 조직화된 전쟁을 수행한다(그림 9)<sup>23)</sup>. 이처럼 부족사회와 군장사회는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이 달라서 무기조합도 다르다. 부족사회의 전쟁이 원격전으로 벌어지는 이유는 전쟁 참가자들이 위험해서 꺼리는 근접전(백병전)을 강제할 수 있는 수장권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무기도 원격전에 필요한 활이나 투창 같은 투사무기뿐이다. 하지만 강제력을 수반한 수장권이 형성된 군장사회에서는 조직화된 원격전과 근접전을 강제할 수 있다. 그래서 무기도 원격전용 투사무기와 근접전용 충격무기가 조합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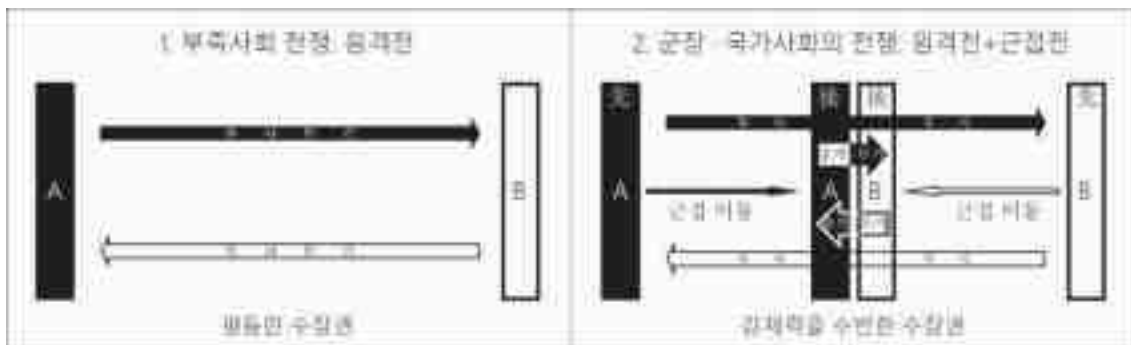


그림 9. 부족사회와 군장·국가사회의 전쟁 개념도(조진선 2020: 89쪽)

사회·정치유형과 무기조합을 비교해보면, 원시적 부족사회는 원격전용 투사무기인 활이나 투창뿐이지만, 전사적 부족사회는 원격전용 투사무기뿐 아니라 단병충격무기인 단검이

21) 李範俊·辛承權, 1986, 『政治學』, 博英社.

22) 조진선, 2020, 「청동기~초기철기시대의 무기조합과 전쟁유형·사회유형」, 『한국고고학보』115.

23) Keeley, L. H., 1996, *War Before Civilization: The Myth of The Peaceful Savage*, New York·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elly, R. C., 2000, *Warless Societies and the Origin of Wa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Otterbein, K. F., 1994, *Feuding and Warfare: Selected Works of Keith F. Otterbein*, Amsterdam: Gordon and Breach.

Turney-High, H. H., 1971, *Primitive War: Its Practice and Concepts*, 2nd ed., Columbia, S.C.: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나 단도가 등장한다. 단검이나 단도 같은 단병총격무기는 원격전에서 부상을 당해 쓰러진 적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거나 목을 베는 데 사용하였다. 그리고 위계가 형성된 군장사회에서는 근접전(백병전)이 수행(강제)되면서 백병전에 최적화된 장병총격무기인 창(矛나 戈)이 추가된다. 그래서 원격전과 근접전을 조직화할 수 있는 투사무기+단병총격무기+장병총격무기의 조합은 국가사회를 표징하는 무기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표 8).

표 8. 사회·정치유형과 무기조합 사이의 상관관계(조진선 2020: 90쪽)

정치사회유형		무기조합		수장권	
		원격전용 투사무기	근접전용 총격무기		
			단병기	장병기	
부족사회	원시적	○			평등
	전사적	○	○		
군장사회		○	○	○	강제력 수반
국가사회		○	○	○	

## 2. 남해안지역에서 무기조합의 변화와 정치체의 성장

### 1) 비파형동검문화

남해안지역 비파형동검문화에서 출토된 청동 무기류로는 동촉, 비파형동검, 비파형동모가 있다. 동촉은 수량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비파형동검을 전용한 것이 많다. 그래서 화살촉은 여전히 석촉이 중심을 이룬다. 석검 역시 비파형동검보다 많이 출토된다. 그러나 석모로 볼 수 있을 만한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비파형동모는 여수 적량동 상적 2호 석곽에서 출토된 것만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었고, 나머지 2점은 전남지역에서 수습된 것이다. 그래서 남해안지역에서는 원격전용 투사무기+근접전용 단병총격무기 조합이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전남 동부지역에서는 원격전용 투사무기+근접전용 단병총격무기+근접전용 장병총격무기 조합도 확인된다(그림 10·11).

이러한 비파형동검문화의 무기조합을 전쟁인류학과 전쟁고고학 연구와 결부시켜 보면, 이 시기는 여전히 전사적 부족사회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여수 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강제력을 수반한 수장권이 형성되어가면서 군장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에 이르기도 한 것으로 생각된다.

### 2) 초기철기시대의 세형동검문화(기원전 3~2세기)

기원전 3~2세기에는 남해안지역에도 세형동검문화가 등장한다. 남한지역 세형동검문화를 보면, 화살촉은 여전히 삼각형석촉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청동 무기류로는 세형동검이 많지만, 세형동모·세형동과 같은 장병총격무기가 등장한다. 영암 신연리에서는 검파두식과 동모가 수습되었으며, 전 영암 용범에서는 세형동검과 동모, 동과 주형이 모두 확인된다.



구분	여수 적량동 장검	보성 봉장리	보성 석저리	보통 군대	여수 월내동 삼촌묘	여수 괴산동
부속 부기						
단병 충격 무기						
장병 충격 무기						

그림 10. 전남 남해안지역 비파형동검문화의 무기조합

장흥 학송리에서는 동과가 수습되었으며, 여수 웅동 토광묘에서는 세형동검이 출토되었다. 이를 보면, 남해안지역에는 세형동검문화가 등장하면서 석촉이나 동검뿐 아니라 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인 동모·동과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세형동검문화의 등장과 더불어 남해안지역의 무기조합은 원격전용 투사무기(삼각형석촉)+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세형동검)+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세형동모, 세형동과) 조합이 갖추어진다.(그림 12) 이러한 무기조합의 형성은 남해안지역에서 확인되는 세형동검문화가 부족사회 단계를 벗어나 위계화가 진전된 군장사회에 접어들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 3) 원삼국시대(기원전 1세기 이후)

기원전 1세기 원삼국시대에 접어들면, 원격전용 투사무기+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 조합이 정착되어 간다. 보성 우산리 3호 묘나 사천 마도동 유적에서는 여전히 석촉+세형동검+세형동모가 조합을 이루고 있지만, 나주 구기촌, 창원 다호리, 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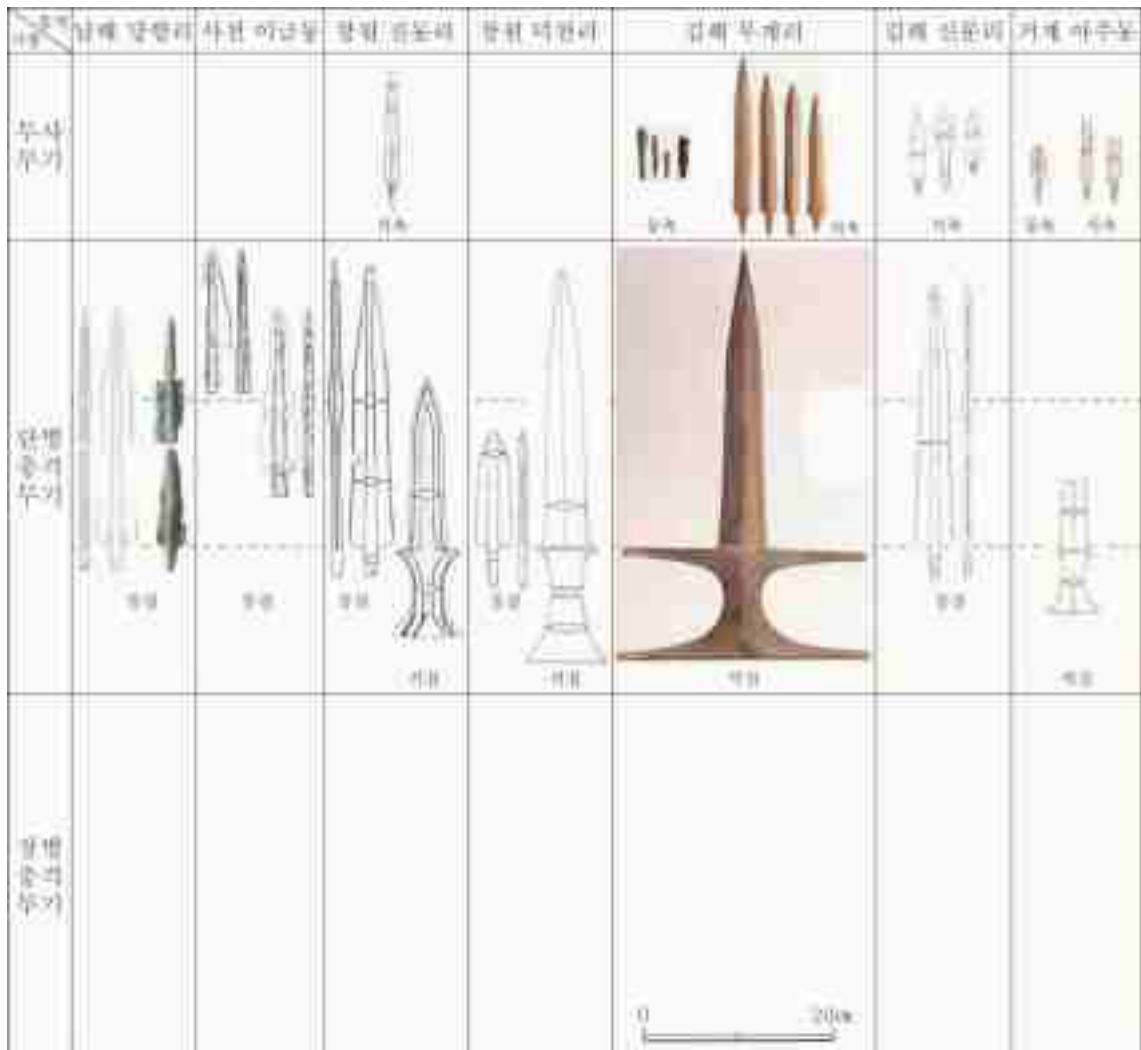


그림 11. 경남 남해안지역 비파형동검문화의 무기조합

양동리 유적에서는 철제 무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창원 다호리 1호 묘에서는 활과 화살대가 출토되었다. 그래서 원삼국시대 화살촉은 석촉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철촉으로 급속하게 전환되어 간다. 세형동검도 거의 동일한 형태의 철검이 등장하면서 대체되어간다. 동모와 동과 역시 철모와 철과로 바뀌어 간다.(그림 13) 이러한 원삼국시대의 무기조합은 삼국시대로 이어지면서 한국 고대국가의 기본적인 무기조합을 이룬다. 그러므로 원삼국시대에 확인되는 이러한 무기조합은 남해안지역이 단순한 군장사회를 넘어 소국, 또는 초기 국가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라 할 것이다.

#### 4) 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를 거부한 지석묘 사회

지석묘는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무덤이지만, 세형동검이나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등이 출토된 것을 보면, 세형동검문화까지도 존속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례들은 광주·전남지역은<sup>24)</sup> 물론 경남지역에서도<sup>25)</sup>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기원전 1세기 이후까지도 지석묘가 존속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유적들도 확인되고 있다. 창원 덕천리 4호 지석묘에서는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수습되어 기원전 1세기에 조영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sup>26)</sup>. 해남 고현리지석묘 주변에서는 소형대부토기와 우각형파수 등이 수습되었다. 보고자는 기원전후부터 기원후 2세기경의 토기류이지만, 2호 묘와 관계된 유물들로 보았다<sup>27)</sup>. 해남 군곡리 군안 3호 지석묘에서는 경질무문 삼각형점토대토기편들이 수습되었다<sup>28)</sup>. 임설희 분류 Bc-3식에 해당하지만<sup>29)</sup>, 흠구연화가 심화되어서 일반적인 Bc-3식보다 늦은 기원후 1~2세기경 유물로 생각된다. 이를 보면, 남해안지역에서 지석묘는 청동기시대뿐 아니라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까지도 존속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지석묘에서 출토된 세형동검문화의 청동제 무기류로는 나주 운곡동 1호 지석묘의 세형동검, 순천 평중리 평지 지석묘의 세형동검, 김해 울하리 지석묘의 세형동검, 김해 내동 지석묘의 세형동검 등이다. 이처럼 지석묘에서 출토된 세형동검문화의 청동무기류는 대부분 세형동검이다. 그래서 세형동검문화기에 조영된 지석묘의 무기조합은 기본적으로 원격전용 투사무기(석촉)+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세형동검 또는 석검)여서 청동기시대 지석묘와 다르지 않다.(그림 14)

지석묘에서 출토된 세형동검의 형식을 보면, 모두 발전기 이후에 유행하는 형식이어서



그림 12. 기원전 3~2세기경 세형동검문화의 무기 조합

24) 조진선, 2022, 「해남반도권 지석묘의 등장과 확산과정」, 『湖南考古學報』71.  
 25) 崔鍾圭, 2021, 「南海 堂項里 1·2호 묘를 이해하기 위한 抽象」, 『南海 堂項里遺蹟』, (財)三江文化財研究院.  
 26) 이동희, 2021, 「고 대산만 지석묘 사회와 다호리 집단」, 『호남고고학보』67.  
 27) 李榮文·李正鎬, 1998, 『해남 고현리 고인돌군』, 목포대학교박물관.  
 28) 김건수·정영희·김영훈·김미연·강귀형·정혜림·배형근, 2019, 『海南 郡谷里 貝塚IV』, 목포대학교박물관·해남군.  
 29) 林雪姬, 2010, 「南韓地域 粘土帶土器의 登場과 擴散過程」, 『湖南考古學報』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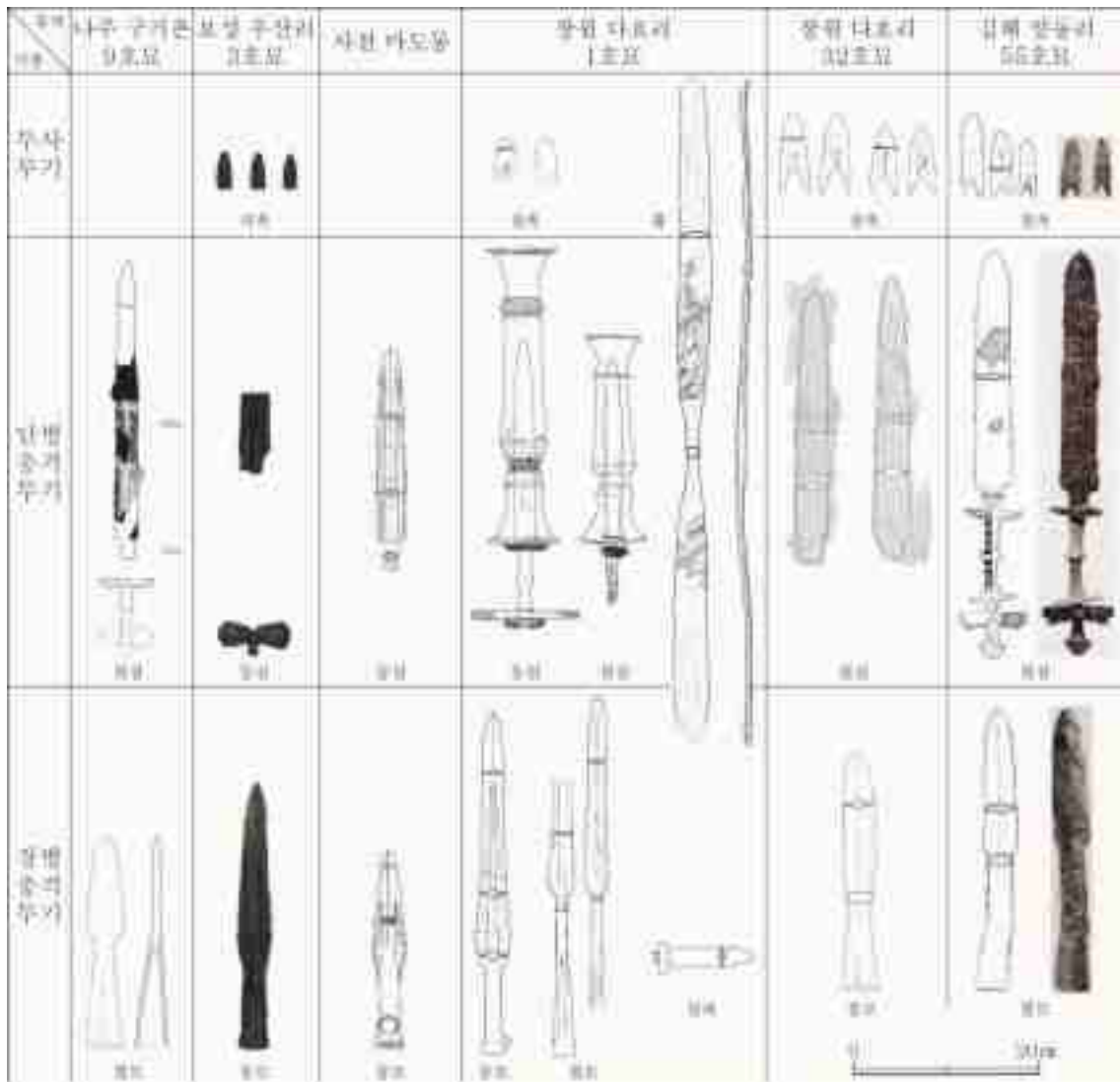


그림 13. 원삼국시대 남해안지역의 무기조합

이미 동모·동과가 등장한 이후이다. 그러나 초기철기시대에 조영된 지석묘에서는 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인 동모와 동과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양상은 지석묘 사회가 세형동검문화와 접촉하고 난 이후에도 세형동검문화 사회만큼 복합화가 진행되지 못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석묘에서 동모·동과가 거의 확인되지 않은 것은 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은 사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석묘에서 정문경 같은 동경이 확인되지 않은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지석묘 사회는 세형동검문화와 접촉한 이후에도 원격전용 투사무기+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 조합에 필요한 세형동검만 수용했을 뿐 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를 수용하는 데는 소극적이었으며, 다뉴경이나 동령으로 대표되는 세형동검문화의 제의체제도 수용하지 않았다. 남해안지역 지석묘 사회는 세형동검문화와 접촉하면서 상석의 규모가 커지고, 묘역이 거대화되기도 하지만, 사회·정치체제를 변동시킬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세형동검문화와 접촉한 이후에도 지석묘 사회의

사회·정치체제는 청동기시대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남해안지역에서는 청동기시대 중기의 비파형동검문화에서는 위계화의 증거가 부분적으로만 확인된다. 그러나 기원전 3~2세기경 세형동검문화가 등장하면서 점차 복합사회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월삼국시대에 해당하는 기원전 1세기부터는 원격전용 투사 무기+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 조합이 보편화되면서 소국, 또는 초기국가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석묘 사회는 석검을 대신해서 세형동검을 부장하기도 하지만, 사회·정치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래서 남해안지역에서는 원격전용 투사 무기+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 조합이 본격화되는 초기철기시대의 세형동검문화 단계부터 위계화된 군장사회로 진입하며, 월삼국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양상이 더욱 굳어지면서 소국, 또는 초기국가의 성립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4. 남해안지역 지석묘에서 출토된 세형동검문화의 무기류

## V. 맺음말

남해안지역에서는 청동기시대 비파형동검문화부터 초기철기-원삼국시대의 세형동검문화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유적들이 확인되었다. 특히, 비파형동검문화는 전남 동부부터 경남지역까지 해안을 중심으로 밀집분포하고 있는데, 한반도에서 가장 많은 유적들이 확인되었다. 현재까지 자료들을 보면, 이 지역의 비파형동검문화 청동기들은 주로 남한지역의 원료를 사용해서 남한지역에서 제작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청동기는 주로 비파형동검과 비파형동모, 동촉 같은 무기류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무기조합은 원격전용 투사무기+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가 중심을 이루며, 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도 일부 등장한다. 이로 보아 남해안지역 비파형동검문화는 진전된 부족사회가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일부는 위계가 형성된 사회로 진입하기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세형동검문화는 기원전 3~2세기부터 등장하는데, 납동위원소비로 보아 남한2지구산 원료를 주로 사용한 청동기들로 생각된다. 세형동검문화에 들어서면서 동모·동과 같은 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가 증가해서 남해안지역이 본격적으로 위계화된 사회로 접어든 것으로 생각된다. 기원전 1세기경부터 시작되는 원삼국시대에 이르면, 철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무기류도 철기로 바뀌어 간다. 그뿐 아니라 철모가 대거 등장하면서 무기조합이 원격전용 투사무기+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로 정착된다. 이로 보아, 이 시기부터는 소국, 또는 초기국가 단계에 진입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국립광주박물관, 2022, 『여수 - 그 시절의 바다』.
- 국립청주박물관, 2019, 『한국의 청동기 자료 집성 II·III』.
- 김건수·정영희·김영훈·김미연·강귀형·정혜림·배형근, 2019, 『海南 郡谷里 貝塚IV』, 목포대학교 박물관·해남군.
- 김범철, 2015, 「10. 사회성격의 이해」, 『한국 청동기문화 개론』, 진인진.
- 김승옥, 2007, 「분묘 자료를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조직과 변천」, 『계층 사회와 비배자의 출현』 사회평론.
- 김장석, 2008, 「송국리단계 저장시설의 사회경제적 의미」, 『한국고고학보』67.
- 朴淳發, 1997, 「漢江流域의 基層文化와 百濟의 成長過程」, 『韓國考古學報』36.
- 박희현, 1984, 「한국 고인돌 문화에 대한 고찰 -상한연대를 중심으로-」, 『韓國史研究』46.
- 李南奭, 1985, 「靑銅器時代 韓半島 社會發展段階 問題 -무덤변천을 통해 본 남한지역사회발전-」, 『百濟文化』16.
- 이동희, 2021, 「고 대산만 지식묘 사회와 다호리 집단」, 『호남고고학보』67.
- 李範俊·辛承權, 1986, 『政治學』, 博英社.
- 이영문, 2002, 『韓國 支石墓 社會 研究』, 學研文化社.
- 李榮文·李正鎬, 1998, 『해남 고현리 고인돌군』, 목포대학교박물관.
- 이종철, 2016, 『청동기시대 송국리형문화의 전개와 취락 체계』.
- 林雪姬, 2010, 「南韓地域 粘土帶土器의 登場과 擴散過程」, 『湖南考古學報』34.
- 趙鎮先, 2007, 「전 영암용범의 연대와 출토지」, 『湖南考古學報』25.
- 趙鎮先, 2008, 「多鈕粗文鏡의 形式變遷과 地域的 發展過程」, 『韓國上古史學報』62.
- 조진선, 2012,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용범과 청동기로 본 한국 청동기문화의 이해」, 『崇實大學校 韓國基督教博物館誌』8.
- 趙鎮先, 2018, 「九州地域 細形銅劍文化의 展開過程과 韓半島」, 『호남고고학보』60.
- 趙鎮先, 2019, 「前近代의 韓日航路와 細形銅劍文化의 波及 經路」, 『한국상고사학보』105.
- 조진선, 2020, 「청동기~초기철기시대의 무기조합과 전쟁유형·사회유형」, 『한국고고학보』115.
- 조진선, 2020, 「한국 청동기-초기철기시대의 시기구분 -금속기의 출현과 정치체의 등장을 기준으로-」, 『韓國靑銅器學報』27.
- 조진선, 2022, 「해남반도권 지식묘의 등장과 확산과정」, 『湖南考古學報』71.
- 조진선·이은우, 2021, 「남한지역 청동기-초기철기시대 청동기의 산지추정과 의미」, 『한국상고사학보』114.
- 조진선·이은우, 2021, 「한국 청동기-초기철기시대 청동기 합금기술의 발전과정」, 『한국고고학보』 2021권4호.
- 崔夢龍, 1981, 「全南地方 支石墓社會와 階級의 發生」, 『韓國史研究』39.
- 崔鍾圭, 2021, 「南海 堂項里 1·2호 묘를 이해하기 위한 抽象」, 『南海 堂項里遺蹟』, (財)三江



文化財研究院.

崔炷, 1996, 「슴베에 흠이 있는 琵琶形銅劍 및 琵琶形銅矛의 國産에 대하여」, 『先史와 古代』7.

Keeley, L. H., 1996, *War Before Civilization: The Myth of The Peaceful Savage*, New York·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elly, R. C., 2000, *Warless Societies and the Origin of Wa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Otterbein, K. F., 1994, *Feuding and Warfare: Selected Works of Keith F. Otterbein*, Amsterdam: Gordon and Breach.

Turney-High, H. H., 1971, *Primitive War: Its Practice and Concepts*, 2nd ed., Columbia, S.C.: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 주 제 발 표 4.

---

고성 동외동 유적(동외동 패총)의 가치와 사적 지정 필요성



# 고성 동외동 유적(동외동 패총)의 가치와 사적 지정 필요성

홍보식(공주대학교 사학과)

목차	
<p><b>I. 머리말</b></p> <p><b>II. 위치와 주변 유적 분포</b></p> <p>1. 유적 위치</p> <p>2. 주변 유적 분포 양상</p> <p><b>III. 동외동 유적의 조사 내용</b></p> <p>1. 조사 이력과 내용</p> <p>2. 구성과 특징</p> <p><b>IV. 동외동 유적의 역사·문화재적 가치</b></p> <p>1. 고성지역을 대표하는 생활유적</p> <p>2. 고성지역 정치체의 성립과 발전을 상징하는 유적</p>	<p>3. 소가야 양식 토기의 성립·확산을 밝힐 수 있는 유적</p> <p>4. 기원 후 2~3세기의 지역간 교류양상 구명 유적</p> <p><b>V. 향후 과제</b></p> <p>1. 유적 명칭의 적절성</p> <p>2. 유적의 범위 설정</p> <p>3. 유적의 존속 기간 및 각 시기별 특징 구명</p> <p>4. 송학동고분군과의 관계 구명</p> <p><b>VI. 맺음말</b></p>

## I. 머리말

고성지역은 변한의 변진 고사포국과 가야시기의 고자국이 존재한 지역이자 소가야연맹체를 리더한 중심지역으로 알려져 왔다. 이를 증명하듯 고성지역에는 동외동유적을 비롯하여 송학동고분군(기월리고분군 포함), 울대리고분군, 내산리고분군 등 고총고분이 다수 분포하고, 만림산 토성과 남산 토성 등의 관방유적이 분포한다. 이 유적들은 변한~가야시기 고성지역의 정체성과 문화 양상을 알려주는 핵심 유산들이다.

이 핵심 유산들에서 동외동유적은 그 중심에 위치한다. 동외동유적은 변한~가야 시기 소가야 지배층의 거주 공간으로서 추정되어 왔으나 구체적인 실상의 해명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외동유적은 김해 봉황동유적(사적), 창원 성산패총(사적), 부산 동래패총(사적) 등과 더불어 남해안 일대에 분포된 변한~가야 시기의 실상을 해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와 가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였다. 이는 동외동유적에 대한 그동안의 학계와 관련 당국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가야사복원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고성군과 경상남도에서는 동외동유적의 가치를 밝히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무적인 사건이다. 이러한 노력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 지금까지 실시된 조사 내용과 자료들을 분석하여 동외동유적이 지닌 가치와 향후 과제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sup>1)</sup>

1) 이 글의 작성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들은 재)삼강문화재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았으며, 이에 감사드린다.

## II. 위치와 주변 유적 분포

### 1. 유적 위치

동외동유적은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254번지 일대에 소재하며, 경상남도기념물 제26호로 지정되었다(그림 1). 동외동유적은 고성지역 일대의 가장 대표적인 생활유적일 뿐만 아니라 부산 동래패총(사적), 김해 봉황동유적(사적), 창원 성산패총(사적) 등과 더불어 변한~가야기의 대표적인 생활유적으로 알려져 왔다.

동외동유적은 남쪽에 위치한 남산(해발 71m)에서 북쪽 방향으로 뻗어 나온 해발 약 32.5m의 나지막한 구릉 정상부와 사면부 일대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의 각종 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의 면적은 더 넓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면적은 18,916㎡이다.

동외동유적 주변 일대의 시추를 통한 토양 구성과 특징 등에 의하면, 유적이 형성된 당시 유적 가까이까지 현재의 당항만이 미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의 자연환경을 고려하면, 동외동유적은 당항만과 고성만 사이에 남동-북서방향으로 이어진 길다란 반도의 잘룩한 허리지점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2).



그림 1. 고성 동외동유적 전경(삼강문화재연구원 제공)

### 2. 주변 유적 분포 양상

동외동유적은 고성지역 일대의 핵심적인 생활유적이며, 동외동유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성격의 유적들이 주변 일대에 분포한다. 생활유적으로는 동외동 230-2번지, 송학리 309-1번지와 성내리 379번지, 송학동패총 등이 알려져 있다.

송학동패총은 현재의 고성여중 자리에 위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소멸되었다. 과거 토기와 골각기 등이 채집되었다고 한다.<sup>2)</sup> 이곳은 해발 15m 높이로서 송학동고분군이 위치한 구릉의 동쪽 말단부에 위치한다. 과거의 보고문 내용을 참조하면, 송학동패총은 동외동유적의 형성 시기 일부와 같은 시기의 유구와 유물들일 가능성이 있다.<sup>3)</sup>

동외동유적에서 북쪽으로 60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송학리 309-1번지 유적은 송

2) 경남대학교박물관·창원문화재연구소 1994, 『小加耶文化圈 遺蹟精密地表調査報告』

3) 위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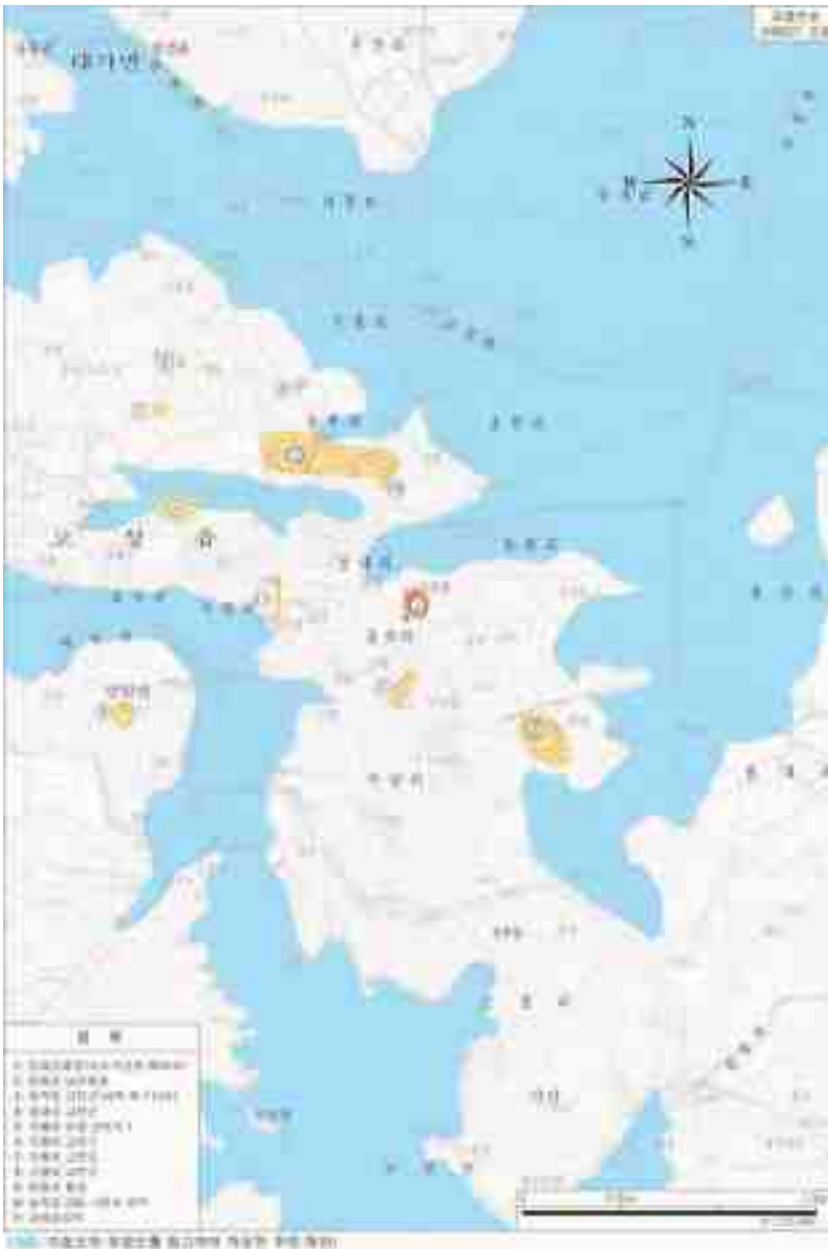


그림 2. 동외동유적과 주변 유적 분포도(삼강문화재연구원 제공)

학동고분군의 10호분이 위치한 곳으로부터 서남편에 위치하며, 송학리패총이 위치한 구릉의 남서 끝 자락에 해당된다. 조사에서 주거지 1동, 수혈(삼한) 4기, 시기 미상 수혈 5기, 구상 유구 4기와 함께 수혈군이 확인되었다. 주거지와 삼한의 수혈에서 호·옹·소형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옹은 구연이 직립 또는 외반하고, 바닥이 평저인데, 무문토기적인 요소가 잔존되어 있다. 기원후 2~3세기로 편년된다.<sup>4)</sup>

성내리 379번지 유적은 조선시대에 건설된 고성읍성지 내의 남서편에 해당되며, 동외동유적에서 서쪽으로 600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고성읍성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 개설 구간에서 수혈유구와 소성유구 수기가 확인되었다. 삼각구연점토대토기·흙구연옹 등의 늑도식 토기와 일본 야요이시대의 수구식(須玖式)계 토기, 삼국시대 토기 등이 확인되었다(그림 3).

동외동유적이 소재한 곳으로부터 북쪽~서쪽으로 600~700m 범위에서 지금까지 조사된 동외동유적의 시기보다 앞서거나 같은 시기의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었다(그림 4). 이는 동외동유적이 위치한 구릉 및 그 반경 700m 범위 내의 공간은 생활유적과 관련된 유구들이 분포된 마을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파악되고 있거나 문화재로 지정된

4) 한겨레문화재연구원 2012, 『고성 송학리 309-1번지 유적』



범위보다 훨씬 넓은 공간에 생활영역이 조성되었다고 보인다. 다만 이 생활영역에 존재했다고 추정되는 시설들이 면적으로 연속되었는지, 몇 개소에 집중된 유구군들(성격 또는 위계 등의 차이가 존재한)이 공간적으로 연계된 구조인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이곳 일대의 지속적이고 면밀한 발굴조사를 기대해 본다.



그림 3. 성내리 379번지 유적



그림 4. 송학리 309-1번지 유적 출토유적

관방유적(생활유적이 복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으로는 동외동유적에서 남쪽의 남산 정상부에 위치한 남산토성과 고성만을 사이에 둔 대안인 서쪽의 만림산 정상부 가까이에 위치한 만림산토성이 알려져 있다. 남산토성은 남산 정상부에 위치하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알려져 있다.<sup>5)</sup> 성에서 고성읍내와 고성만, 당항포만을 조망하기 적합하다. 현재까지 조사가 되지 않아 토성의 조성 시기는 물론 내부 상황은 알 수 없다.

만림산토성은 고성읍 대독리 산 10-1 일대에 위치한다. 만림산(해발 88m)의 8~9부 능선에 조성된 퇴회식 토성으로 둘레는 2,000m, 높이는 약 5m로 추정된다. 만림산 토성은 크게 성벽과 내항으로 구성되며, 내항을 굴착한 흙으로 성토하여 성벽을 축조한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5). 성벽의 유존 규모는 기저부 너비 20~22m, 최대 높이 6.5m이며, 내항은 너비 9m, 깊이 2.7m의 규모이다. 성벽의 전체 너비는 29m 정도이다. 성벽은 11~18°의 경사각으로 지면(생토면)을 정리하여 축조하였다. 토성은 크게 4단계의 공정을 거쳐 완

5) 東亞大學校博物館 1984, 『加耶文化圈 遺蹟精密地表調査報告-慶南 固城郡-』



그림 5. 만림산 토성 평면도

공된 것으로 보이며, 후대(통일신라기) 성벽 일부를 수축하여 운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단면 'U'자상으로 굴착(평균 너비 2m, 깊이 1m)한 성 외측 기초(基槽) 내부는 점토 다짐으로 충전하였다. 성체 구간 뿐 아니라 성 외측 기초면까지 바닥 정지층(흑갈색 및 회갈색 점토)을 시설하여 기초 충전층과 완전하게 접합·고정시켰다. 성 외곽 기초에서 내측으로 2~3m 이격된 지점부터 외면 경사각 36~38°, 높이 2m의 石面 土臺를 성벽 내측 기저부 상단까지 수평을 이루도록 조성하였다. 토대는 직경 20~30cm의 자연할

석(안산암류)을 면고름 하지 않은 상태로 외면을 조성하였으며, 흑갈색과 암갈색 사질점토를 각 10cm 내외의 두께로 다지면서 층첩하여 조성하였다. 석면토대 상부로 약 15~30cm 두께의 흑갈색과 적갈색 사질점토를 내경하도록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짐하여 층첩하였다. 내벽부의 할석군(사암류)은 서문지와 연결되는 일부 구간에서만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서문지의 통로부 측벽 구조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된다. 성벽 축조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다양한 토목기술을 적용하여 만림산토성을 축조하였음이 밝혀졌다.

토성의 성벽과 기초 바닥면에서 초기철시시대 토기편과 삼국시대 토기편이 다수 출토되었다. 이 중 초기철시시대 토기편은 성벽 축조 시기 조성되었던 해당 시기 유적이 파괴되면서 혼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삼각형점토대토기 단계로 비정된다. 내항의 북동 사면부에서 소가야 토기편이 다수 출토되었으며, 기종은 고배·컵형토기·단경호·수평구연호·기대·배 등이다. 이 토기들은 소가야의 중심 고분인 고성 송학동 1A호분, 내산리고분군 출토품과 유사한 기형적 특징으로 보아 5세기 말에서 6세기 전반으로 편년 가능하다.

만림산 정상부에는 해발 89m 내외의 평탄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토성 운용 이전부터 기존 지형을 평탄화 하여 이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의 조사에서는 주혈과 소형 수혈 등으로 구성된 생활유구들이 확인되었다.

만림산토성은 당시 고성만으로 들어오는 입구의 좌안에 포진하면서 전성기를 구가하던 소가야의 해상방어와 교류상 출입 등을 관장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sup>6)</sup>

6) 이상의 만림산토성 조사 내용은 고성군·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20, 『고성 만림산 토성-소가야 토성-』 고성 만림산토성 정밀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및 현장설명회 자료집에서 인용하였다.

지금까지 송학동고분군 등의 고분문화를 제외하면 소가야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른 고고자료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만림산토성의 조사를 통해 동외동유적 및 송학동고분군과 연계된 소가야 중심 정치체(고자국)의 국 구조의 핵심을 파악 및 이해할 수 있는 자료 일부가 확보되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고분군으로는 송학동(기월리 고분군 포함), 울대리 등이 알려져 있다. 송학동고분군은 소가야 중심 정치체의 최고 위계집단의 고분군으로 잘 알려져 있다. 1980년대 당시만 해도 고성읍내의 낮은 구릉 일대에 많은 수의 고총고분이 분포되었으나 그 이후 개발에 의해 대부분 사라지고 현재는 10여기 정도 남아 있다.

1호분은 1995년에 조사되었다.<sup>7)</sup> 조사 결과 목곽묘 2기와 고총 원분 3기가 연접된 형태로 확인되었다(그림 6). 목곽묘인 1E호와 1D호는 고총고분이 조성되기 이전인 4세기 후반과 5세기 전반에 축조되었다. 비록 조사된 수는 매우 적지만, 이 2기의 목곽묘와 출토 유물들은 4세기 이후 고성지역의 매장시설과 토기상의 단초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높은 봉분이 있는 고총고분은 1A호분→1B호분→1C호분 순으로 축조되었다. 먼저 축조된



그림 6. 송학동 1호분과 1B-1호 석실

1A호분은 남쪽에 위치하며, 봉분을 만든 후 봉분을 되파기 하여 중앙부에 규모가 가장 큰 11호 석곽이 배치되었고, 남쪽과 북쪽에 나란하게 3기의 석곽을, 사방에 7기의 석곽을 배치한 전형적인 고성지역의 매장형식을 취하였다. 봉분 가장자리 바깥에는 누에고치 모양의 주구를 배치하였다. 북쪽에 위치한 1B호분은 횡혈식석실 구축과 함께 봉분을 조성하였다. 이 1B호 석실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안쪽에 문틀시설이 있고, 석실 내부의 벽면과 천장에 붉은 칠(주칠)을 하였고, 안쪽 벽면에 목제선반을 설치한 것이 확인되어 일본열도의 왜 석실의 영향을 받아 만든 사례로 알려져 있다. 1C호분은 1A호분과 1B호분 사이에 양 고분의 봉분 일부를 굴착하고 축조되었다. 문틀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주칠도 되지 않은 횡혈식석실이다.

1호분에는 고성지역(소가야)의 문화요소를 중심으로 대가야·신라·영산강의 백제·왜 등의

7) 沈奉謹 2005, 『固城松鶴洞古墳群-第1號墳 發掘調査報告書-』 東亞大學校博物館

다양한 문화 요소들을 보여주는 물질자료들이 집중되어 있어 당시 고성만 일대가 백제-대 가야-신라-왜로 이어지는 남해안 교류의 핵심 지역이었음을 나타낸다. 1호분은 축조 시기가 6세기 전반이며, 고자국이 가장 발전한 시기 최고지배층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곳에는 4세기 후반의 목곽묘가 확인되었고, 그 위에 6세기 전반의 고총고분이 축조된 모습이다. 이는 이곳의 구릉이 늦어도 4세기 후반부터 고자국 지배층의 매장공간으로 활용되었음을 나타내며, 그 대상 집단은 동외동유적에 거주한 지배층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울대리고분군은 동외동유적으로부터 남쪽방향으로 800m 가량 떨어진 얇은 구릉에 위치한다. 이 울대리고분군의 고총고분 역시 봉분을 만든 후, 되파기 하여 가운데에 중심 석곽을 두고 주위에 작은 석곽을 배치한 전형적인 고성지역의 고분 특징을 보인다. 울대리고분군을 만든 집단은 동외동유적에 거주한 집단보다 하위 집단으로서 고자국을 구성한 지배층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동외동유적을 중심으로 반경 1.5km 이내에 생활·관방·고분 등 다양한 성격의 유적들이 분포되어 있어 변한~삼국시대 당시 고성지역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동외동유적, 만림산토성과 남산토성, 송학동·기월리고분군과 울대리고분군의 관계 및 소가야 중심 정치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 II. 동외동유적의 조사 내용

### 1. 조사 이력과 내용<sup>8)</sup>

동외동유적은 20세기 초에 이미 알려졌고, 1914년에 초보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조사 내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해방 후 거의 방치된 상태로 있다가 김해토기 시대의 성격을 밝히기 위한 남해안 일대의 패총유적 조사의 일환으로 국립박물관(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969~1971년에 걸쳐 3차례 조사가 되었다(그림 7).<sup>9)</sup> 이때의 조사는 동외동 구릉의 서남 사면 일대가 대상이었다. 조사는 탐색갱(트렌치)을 통해 4개의 층을 확인하였고, 평면조사는 실시하지 않아 유구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때 확인된 4개의 층에서 출토된 유물은 명확하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하층의 무문토기에서 상층의 삼국시대의 연질토기·와질토기·도질토기로 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당시의 조사는 패각층의 확인에 머물렀고, 평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없었음을 나타낸다.

1974년 천도교 교당 건설공사에서 유물이 출토되어 조사가 이루어졌다.<sup>10)</sup> 이때의 조사 지점은 서남편 구릉 사면의 말단부에 해당한다. 2개의 문화층과 옹관묘 2기, 토광묘 1기,

8) 동외동유적의 조사 이력과 내용은 고성군·(재)삼강문화재연구원 2018, 『고성 동외동패총(경상남도기념물 제26호) 복원정비를 위한 기본조사 보고서』의 서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9) 김종철·서오선·신대근 1992, 『固城貝塚發掘調査報告書』

10) 金東鎬 1984, 「固城 東外洞貝塚 發掘調査報告」 『上老大島』 東亞大學校博物館

## 貝塚, 環壕 그리고 防禦

석관묘 1기, 철재(슬래그) 출토지 등이 확인되었다. 무문토기·연질토기·도질토기와 함께 야요이계토기, 검파두식·광형동모·한경(細線式獸帶鏡) 등의 청동유물, 인골과 개·사슴·멧돼지 등의 수골, 각종 조개껍질 등이 출토되었다. 철재가 다수 출토된 것을 근거로 야철지로 보고되었으나, 단야 관련 유구의 존부에 대한 언급은 없다.

국립진주박물관은 가야유적의 체계적인 분포조사와 다양한 정보의 확보 차원에서 1995년 동외동유적의 구릉 정상부의 평탄면 일부(가지구)와 동쪽 사면부(나지구), 평탄지 남쪽(다지구)을 대상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sup>11)</sup> 구릉 정상부에는 부정형의 수혈이 연속중첩되었거나 1기가 독립된 상태의 수혈 십 수여기가 확인되었다. 이 수혈들에서는 각종의 연질·도질토기와 단조의 쇠도끼, 조문청동기가 출토되었다. 이 수혈들은 ①일정장소에서의 반복 굴착행위, ②수혈의 자연상태 방치행위, ③입지에서의 공간분리(특정의 선택된 공간을 점유한다는 의미임)가 보이며, ④유물 출토 상태에서도 파쇄·산견 등의 특정 행위와 관련된 공통된 양상 등을 근거로 ‘의례수혈’로 파악하였다.<sup>12)</sup>

동쪽 사면의 나지구에서 모두 17기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는데, 서로 중첩되어 완전한 모습을 보이는 주거지는 없었다. 대부분의 주거지는 원형에 가까운 말각(장)방형의 평면형태를 가진다. 주거지의 규모는 중복 파괴되어 알 수 없는데, 잔존 상태가 양호한 1호 주거지는 면적이 40㎡이다. 주거지는 입구와 벽구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벽구시설은 경사가 높은 쪽의 벽면에 붙어서 확인되었다. 구들이나 아궁이 등의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동남쪽 사면부에 주거지들이 밀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곳 일대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집들이 밀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주거지에서는 완·옹·호·고배·컵형토기 등의 연질·와질·도질 토기류와 일본의 야요이계·하지키계 토기, 주조쟁이·철촉·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평탄지 남쪽에는 2기의 수혈이 확인되었는데, 시기와 성격은 불명이다. 2000년대 이후 동외동유적 및 주변 일대의 건설행위에 수반된 소규모 조사가 약 10여회 이루어졌다.

1921년도에 동외동유적의 정비사업이 계획되고 이에 앞서 유적의 범위와 유구의 존부, 유구의 보존·보호 방안 수립을 위한 시굴 및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sup>13)</sup> 조사 지점은 의례수혈이 위치한 구릉 정상부 평탄지와 북서쪽 및 남쪽 사면 9부 능선이다(그림 8). 시·발굴 조사를 통해 패총 1개소, 주거지 19동, 환호 2기, 구상유구 2기, 수혈 11기 등이 확인되었다. 조사구역의 북서쪽 사면부에서는 패총 1개소, 환호 2기, 구상유구 2기, 수혈 6기가 확인되었다(그림 9). 패총은 3개층이 확인되었고, 굴·고동류·바지락·피뿔고동 등 식용으로 21종의 패류가 확인되었다.

1-1호 환호는 북동쪽 경사면에서 경사면의 아래쪽인 서남향으로 진행되었다. 확인된 규모는 길이 47m, 너비 1.5~5m, 깊이 1.2m이다. 환호 내부 상부에서 청동제 대구 관련 고리편이 수습되었고, 내부에서 고배·옹·대각·호 등의 연질 및 도질토기 편들과 야요이계

11) 김두철·박경도 2003, 『固城東外洞遺蹟』 국립진주박물관

12) 김두철·박경도 2003, 『固城東外洞遺蹟』 국립진주박물관, 17쪽.

13) 재)삼강문화재연구원 2021, 『고성 동외동패총(경상남도 기념물 제26호) 정비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시·발굴조사 약보고서』



그림 7. 국립박물관 조사 출토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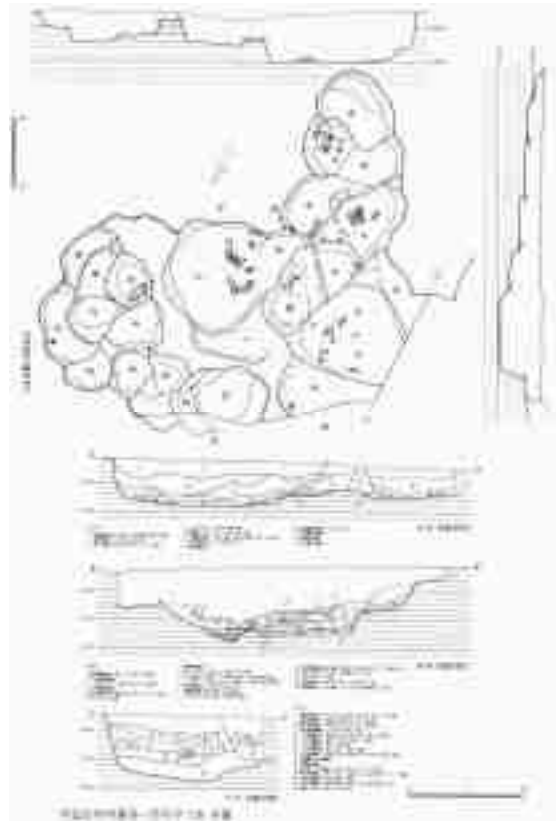


그림 8. 국립진주박물관 조사 의례수혈

토기 편, 토주·절두 원추형 방추차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1-3호 환호는 1호 환호에서 경사면 아래쪽으로 2.5~4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1호 환호와 나란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확인된 규모는 길이 10m, 너비 2.5m이다. 패각층 아래에 위치한다.

구상유구 2기는

1·2호 환호 사이의 사면부에 위치한다. 1·2호 구상유구는 1호 환호의 아래쪽으로 20~50



그림 9. 삼강문화재연구원 조사 구역 유구 분포도

(재)삼강문화재연구원 2021, 보고서에서 전재)

## 貝塚, 環壕 그리고 防禦

cm의 거리를 두고 나란한 방향으로 진행한다. 규모는 길이 24m, 너비 60~150m이고, 내부에서 토기편이 소량 출토되었다. 4호 구상유구는 1-1호·1-3호 환호를 파괴하고 동남~서북방향으로 조성되었다. 규모는 잔존길이 500cm, 너비 60~80cm, 깊이 15cm이다.

주거지는 1995년도에 국립진주박물관에서 조사한 나지구의 주거지군 위쪽에 해당된다. 이곳에서도 주거지들이 중첩되어 있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원형 또는 타원형이고, 규모가 큰 주거지는 장타원형에 가깝다. 주거지 내부 시설로는 벽주와 아궁이(또는 노지)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연질옹·대호 편·시루 편·고배 편 등이 출토되었다.

수혈은 북서쪽의 환호 및 구상유구가 분포된 곳과 주거지군이 분포된 곳에서 확인되었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깝고, 규모는 개별 수혈마다 다르다. 패총 아래에서 확인(32~36호)되거나 주거지를 파괴하고 설치된 수혈(20·29호)도 있다. 수혈 내부에서 토기편들이 출토되었다.

## 2. 동외동유적의 구성과 특징

지금까지 실시된 발굴조사를 통해 동외동유적의 부분적인 모습이 확인되었다. 동외동유적은 구릉 정상부의 의례수혈군, 정상부의 동쪽 평탄지와 사면부의 주거지군, 구릉의 8~9부 능선을 감쌀 것으로 추정되는 환호, 부분적인 구상유구, 수혈, 패각층, 사면부 가장자리와 평탄지의 분묘, 추정 야철지 등 다양한 성격의 시설들로 이루어진 복합유적이 확인되었다.

의례시설을 구릉 정상부에 배치하고, 유구가 확인되지 않는 서쪽 일대에는 광장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환호가 조성된 지점을 고려하면, 동쪽에 분포된 주거지군은 환호 내부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대로라면, 구릉의 8~9부 능선을 따라 환호가 둘러져 있고, 내부에는 가옥과 생활에 필요한 수혈 등의 시설, 그리고 정상부에 의례시설 및 의례를 행하기 위한 공간인 광장 등으로 구획된 경관을 그려볼 수도 있다(그림 10). 그리고 동쪽의 환호 바깥 사면에도 가옥이 배치되었고, 서북~서남쪽 사면에는 환호 내부에서 발생한 쓰레기들을 버리는 공간으로, 남쪽 평탄지 일대는 매장공간 또는 수공업품 생산 공간으로 편재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북서쪽의 반경 600~700m 내에도 가옥과 수혈 등의 일상생활 시설이 배치된 마을의 존재도 상정할 수 있다.

다소 과장되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이 상정할 수 있다면, 동외동유적을 구성한 구릉과 그 주위 일대에 꽤 큰 규모의 마을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외동유적의 환호 내부 거주자>구릉 사면부 거주자>구릉 바깥의 평탄지 거주자>주변부 거주자 순의 위계 구조의 마을 모습을 그려볼 수도 있을 것이다. 환호 내부의 가옥에 거주한 사람들은 환호 바깥, 그리고 주변부에 거주한 사람들보다 위계가 높은 최고지배층을 구성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 최고지배층들은 제사와 의례를 주관하고, 환호 외부인들을 통제하면서 그들의 위상을 강화하고 공고화 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공간 편재는 시기에 따라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고성지역의 정치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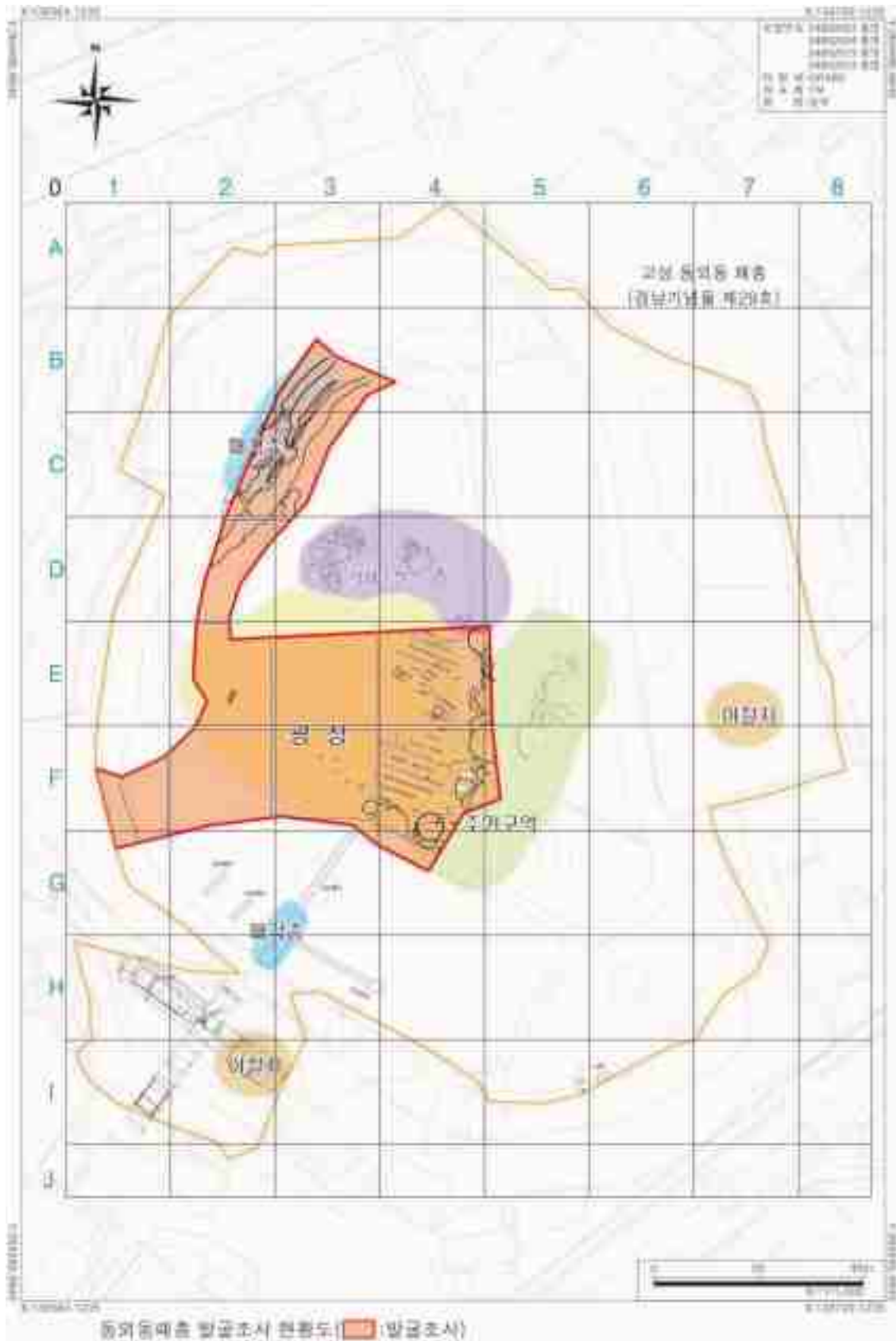


그림 10. 동외동유적 유구 분포도(재)삼강문화재연구원 2021, 보고서에서 전재)

의 성장과 변화 발전(변진 고자미동국에서 가야의 고사팔국 또는 고자국으로)에 따라 지배층들의 매장공간을 생활구역으로부터 다소 이격된 현 송학동고분군이 위치한 북서쪽 구릉 일대로 옮겼을 가능성도 있다.

이상과 같은 추정의 사실 여부는 향후 동외동유적 일대에서 발굴조사된 내용 및 특징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분석과 더불어 추가적인 발굴조사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Ⅲ. 동외동유적의 역사·문화재적 가치

#### 1. 남해안 지역을 대표하는 생활유적

고성지역에는 삼국시대 소가야 지배층의 고분군으로서 송학동고분군, 울대리고분군, 연당리고분군, 내산리고분군 등이 알려져 있다. 이 고분군들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어느정도 이루어져 삼국시대 고성지역의 위계와 문화적 특징이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생활유적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거의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그나마 동외동유적에 대한 수회의 조사는 변한~가야기 고성지역의 생활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성을 포함한 서부 경남 해안지역의 가야 생활유적에 대한 조사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동외동유적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동쪽의 마산만에서 서쪽으로 여수 반도에 이르는 남해안 일대에 고성 동외동유적에 버금갈 수 있는 삼국시대 생활유적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설명되었듯이 동외동유적은 다양한 성격의 생활 유구들과 함께 유물들이 확인되었다. 이 유구와 유물들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지면, 변한·가야사회의 생활문화의 내용과 특징, 그리고 변한에서 가야로의 전환 시기와 발전 양상을 구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소가야연맹체의 성립과 발전을 상징하는 유적

고성지역은 소가야연맹 또는 소가야문화권의 중심지역으로서 송학동고분군과 더불어 동외동유적은 가장 핵심적인 유산이다. 송학동고분군은 과거의 개발에 의해 부분적으로 사라졌고, 특정 시기의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 동외동유적 또한 주변 일대가 개발되어 변한~가야시기의 자연경관이 부분적으로 훼손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에는 다수의 자료들이 유존되어 있다. 특히 외피가 불분명하여 확인되지 않는 목관묘와 목곽묘의 조사가 전무하여 변한 및 가야 전기의 양상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동외동유적에서 확인된 자료들은 이를 메울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현재까지 소가야권에서 조사된 생활유적들은 사천 봉계리 유적, 진주 안간리와 평거동 유적 등 주거지와 경작유구 등이 알려져 있다. 이 취락들을 통해 변한 및 소가야 정치체의 성립과 발전과정을 구명하기에는 고성 동

외동유적에 미치지 못한다.

동외동유적에는 구릉 정상부의 의례시설, 광장, 주거군, 그리고 이 시설들을 감싸고 있는 환호 등은 변한과 가야시기 지배층의 존재 및 위상을 표상하는 모습일 수 있다. 남해안 일대에 분포한 동 시기의 생활유적인 김해 봉황동유적에는 주거군, 창고군, 접안시설 등이 확인되어 구야국~금관가야 지배층의 공간으로서의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창원 성산패총은 한 차례의 발굴조사만 실시되어 구체적인 논의가 어려운게 현실이다. 김해 봉황동유적을 제외하면, 변한~가야 정치체의 발전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생활유적은 고성 동외동유적뿐이다.

### 3. 소가야 양식 토기의 성립과 전개양상 이해의 열쇠

고성지역을 중심으로 통영·사천·진주·남해·의령·산청·합천 서남부·함양·남원 아영분지 등 경남 남해안 일대와 남강 및 지리산 동부지역 등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권을 지닌 소가야 양식 토기의 성립과 전개 양상에 대한 이해는 그동안의 고분 발굴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고분 출토 소가야 양식 토기의 시기는 대부분 5세기 후반 이후의 자료들로서 소가야 양식 토기가 성립된 이후의 것들이 대부분이다. 소가야 양식 토기의 성립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매우 부족한 현상에서 동외동유적 출토 토기들을 통해 소가야 양식 토기의 성립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외동유적은 늦어도 기원 후 2세기 이후부터 6세기 후반 초까지의 토기 자료들이 출토되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 동외동유적에서 출토된 도질토기 특히 뚜껑과 고배에는 가장 빠른 형식으로 보이는 소가야 양식의 요소들이 간취된다. 4세기 후반 또는 5세기 초의 고식도질토기에서 소가야 양식 토기로의 전환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4. 기원 후 2~3세기의 지역간 교류양상 구명 유적

선사시대부터 남해안은 동북아시아의 각 지역과 사회를 연결하는 해상 교류의 허브 역할을 하여 왔다. 특히 한반도와 일본열도 각지에서 정치체가 형성될 시기에는 사람과 물자의 빈번한 왕래를 통해 다양한 정보들이 교환되었고, 그러한 사실들을 나타내는 자료들이 남해안 일대의 유적들에서 다수 확인되어 왔다. 김해 봉황동유적과 대성동고분군, 양동리유적, 삼천포 늑도유적, 사천 방지리유적 출토품에서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삼천포 늑도유적은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전후 시기까지의 중원계와 열도계 유물들이 다수 확인되어 이 시기 남해안을 무대로 전개된 교류의 실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김해만에 위치한 봉황동유적은 기원전부터 기원후 4세기 후반까지의 중원계와 열도계 자료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양동리고분군은 기원후 2세기에서 3세기의 중원계와 열도계 자료들이 확인되기도 하였는데, 대부분 금속유물들이다. 위의 유적들에서 출토된 외래(계) 자료들의 중심 시기는 기원전후 이전과 4세기에 집중되며, 기원후 2~3세기의 유물들은 부분적이다.



그림 11. 조문청동기

그런데 이 시기를 메울 수 있는 외래계 자료들이 동외동유적에서 상당 수 출토되고 있다. 고성읍 성내리 379번지 유적에서 기원전후 이전의 늑도식 토기와 함께 일본열도의 수구식 토기들이 출토되었다. 이는 고성 동외동 일대에 거주한 집단들이 해양교류의 중계지인 늑도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의 교류에 일정정도 참여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이 자료들에 이어서 동외동유적에서는 조문청동기·동경·중광형동모·환형고리 등의 청동기와 함께 많은 수의 야요이(계) 토기들이 출토되었다.

1995년 조사의 가지구 1호 C수혈에서 출토된 조문청동기는 앞면에만 무늬가 새겨진 두께가 얇은 판 모양의 청동기이다. 뿌리 쪽의 너비가 좁고, 선단부로 가면서 곡선적으로 벌어지고, 선단부 중앙부가 솟아올라 전체 모습이 부채꼴을 이룬다. 선단부 가장자리에는 일정간격으로 7개의 구멍이 배치되었으나 6개는 끝이 떨어져 나갔고, 좌측 끝의 구멍이 남아 있다. 몸체의 좌우측 가장자리에는 각기 6개씩의 고사리모양의 돌기 장식이 붙었으나 대부분 떨어져 없어지고, 우측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향해 4번째 돌기만 일부 남아 있다. 뿌리 끝에도 2개의 구멍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떨어져 없어졌다. 위쪽과 뿌리에 구멍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판 또는 포에 매달았던 장식품이나 장신구의 일종일 가능성이 있다. 앞면에는 가는 선과 점열로 크게 위쪽의 山자 모양의 주문양과 아래의 서로 마주보고 있는 쌍조의 주문양 2단으로 구분하고, 주변을 점문·선문·거치문·고사리문·거치문 등을 배치하였다.

정상부 평탄지 일대에 연속 중첩된 부정형의 수혈군들에서는 1~2세기부터 5세기 전반까지의 토기들과 철기들이 출토되었다. 1호 C수혈에는 주로 4세기 후반의 토기들이 출토되어 조문청동기의 연대도 공반된 토기들과 같은 3~4세기의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이루어진 동외동유적의 조사에서 조문청동기가 출토된 수혈군으로부터 북서쪽으로 15여 m 이격된 곳에서 2중의 환호(環壕 또는 環溝)와 동남쪽에 2세기에서 5세기 전반의 주거지들이 확인되었다. 특히 환호 내부에서 영천 어은동 출토 마형대구의

환형고리와 동일한 청동유물이 출토되었다.<sup>14)</sup> 또 전남 영광 수동 유적 토광묘에서 유사한 조문청동기가 출토되었는데, 공반된 동경·토기 등으로 볼 때, 그 시기는 기원후 1-2세기경으로 편년되고 있다.<sup>15)</sup> 동외동유적의 조사에서 2세기의 유물이 다수 확인되는 점과 유사한 조문 청동기가 출토된 영광 수동 토광묘 출토품의 시기 등을 고려하면, 동외동 1호 C 수혈 출토 조문청동기는 기원후 2~3세기로 추정된다(그림 11).

이 조문청동기는 영암 수동 출토품과 더불어 한반도에서는 2례만 알려져 있는 희소품이다. 중국 사천성 무현의 전국기의 석관묘에서 유사한 문양 구성을 보이는 청동패식이 발견되어 이 자료와 연계하여 중국으로부터의 영향으로 보려는 견해도 제기되었지만,<sup>16)</sup> 추후 검토되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문청동기는 재지 생산품이라기보다 해양 교류를 통해 동외동유적에 반입되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두어진다.

광형동모는 야요이시대 후기의 토기 편과 함께 패각층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었다(그림 12). 이 광형동모는 일본열도의 야요이시대 후기의 주요한 청동의기로 규수지역을 중심으로 쓰시마 등지에도 많이 분포한다. 한반도에는 김해 양동리 200호 목곽묘와 채집품, 내덕리 19호 목곽묘, 대성동 88호 목곽묘, 전 김해 명법동 출토품 등이 알려져 있다. 김해지역에서 출토된 광형동모가 구야국 또는 금관가야 유력자의 분묘에 부장된 점을 고려하면, 동외동유적 거주민들 또한 고성지역의 유력자들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주문대의 극히 일부만 남아 있는 동경은 세선식수대경으로 추정되는데, 반입경로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지만, 외부로부터 반입된 물품임은 분명하다.

대구의 고리로 추정되는 환형고리는 거치문(그림 13)이 새겨져 있는데, 영천 어은동 출토품과 매우 유사하다. 영천 어은동 출토품의 시기는 기원후 1세기 후반에서 2세기 전반으로 편년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청동제품들은 그 시기가 기원후 1~3세기로 편년되고 있다. 이 반입된 청동 유물들은 이 시기 동외동유적의 집단들이 동아시아의 해양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을 나타내는 자료들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동외동유적에서 다수 출토된 일본 야요이계 토기들이다.

동외동유적에서 출토된 야요이계 토기의 기종으로는 고배·호·기대 등으로서 고배 수가 가장 많다. 야요이계 고배는 구연이 크게 段지며 외반하고, 기벽이 고르지 않고 접합부가 두껍거나 구연단 근처의 기벽이 특히 두꺼우며, 간혹 암문이 있거나 마연한 것도 있다. 구경이 최대 23.3cm~최소 17.1cm로 평균 20cm 전후이다. 고배 대각은 대부분 파편이지만, 내부가 빈 중공의 대각에 원공이 뚫려 있다. 배는 외반되는 야요이계이지만, 무문토기인 중실대각이 부착된 사례도 존재한다.

14) 재)삼강문화재연구원 2021. 11, 「고성 동외동패총(경상남도 기념물 제26호) 정비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

15) 조선대학교박물관 2003, 『영광 마전·군동·원당·수동유적』

16) 김인회 2012, 「중국 창강(長江) 유역과 한국 남부지방의 해상교류 연구」 『도서문화』 40,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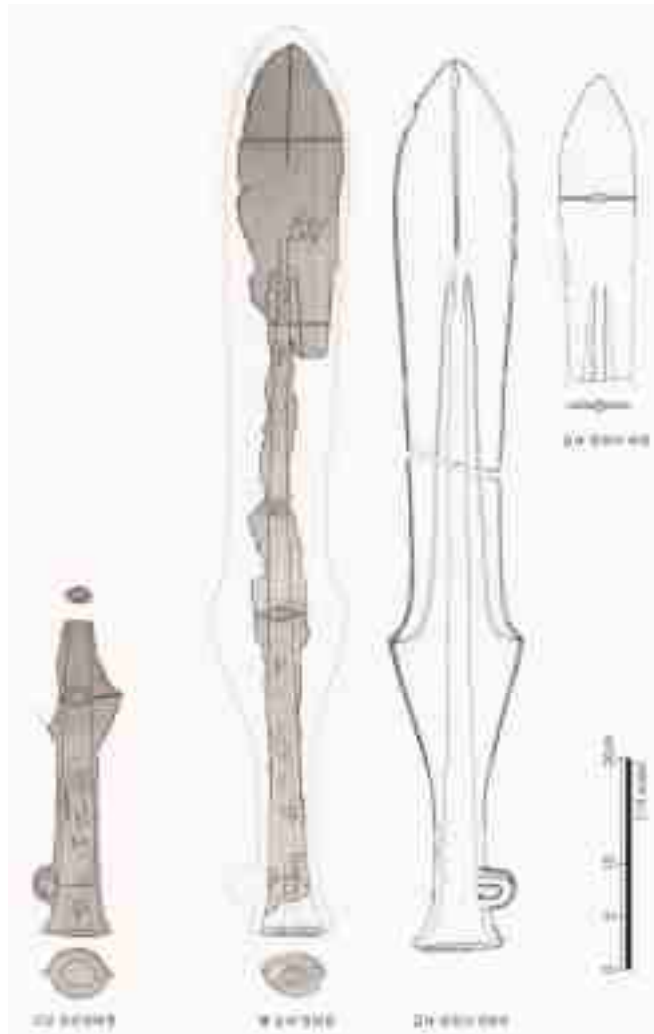


그림 12. 동외동유적 출토 광형동모와 참고 자료



그림 13. 청동 환형고리

외반구연의 대각에 천공된 야요이계 고배는 북규슈의 下大隈式(시모오쿠마식)~西新町式(니시진마치식)에 해당되며, 동외동 출토품은 下大隈式의 영향을 받은 고성산으로 파악되고 있다(그림 14). 일본 현지품과 비교하면, 크기, 구연부의 꺾임 각도, 두께 등에 차이가 있고, 일부 고배들은 양 계통의 요소들이 혼합된 사례들도 있어 현지의 무문토기 전통을 계승하여 고성 재지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야요이계 호는 頸基部에 단면삼각형의 돌대가 붙어 있거나 돌대에 각목문을 새겼다. 야요이계 기대는 배부와 각부가 관통된 소형기대로서 山陰系(산인계)이다.

下大隈式의 시기는 북규슈에서 대략 2세기 중엽이 하한이고, 西新町式은 2세기 후반에서 3세기 중엽으로 편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동외동유적 출토 야요이계 토기는 2세기에서 3세기로 파악된다.<sup>17)</sup>

고성 동외동유적에서 출토된 기원 2~3세기의 야요이계 토기들은 경기도 가평 대성리유

17) 寺井 誠 2008, 「中繼地の形成」 『九州と東アジアの考古學』 九州大學考古學研究室 50周年記念論文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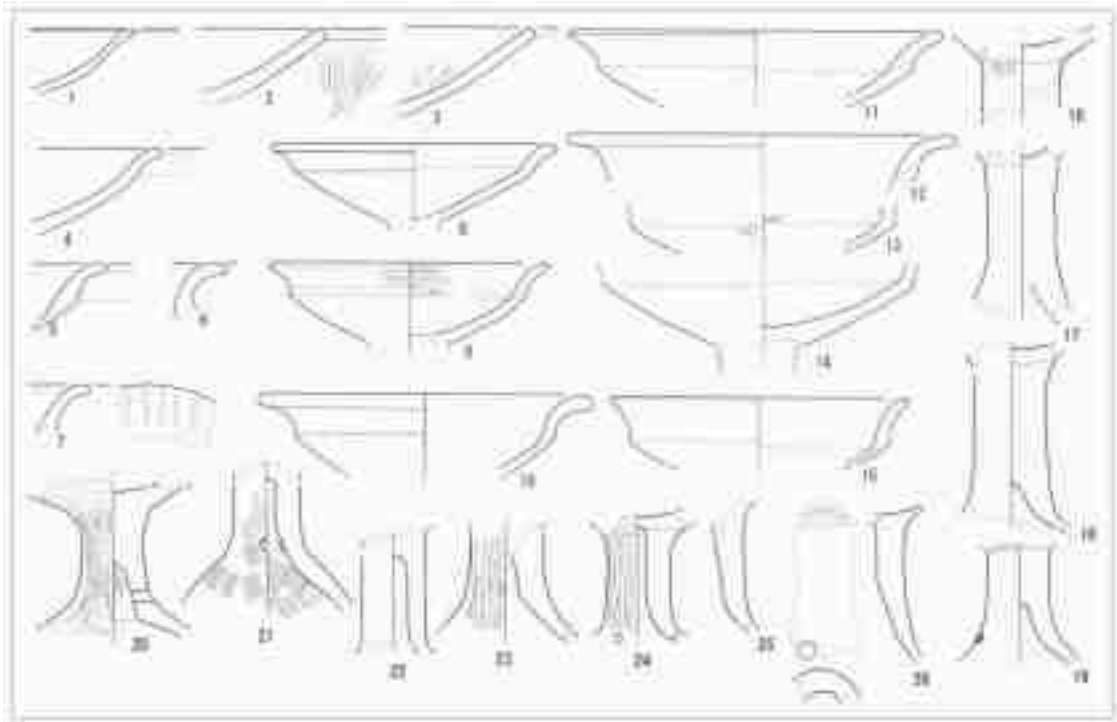


그림 14. 동외동유적 출토 야요이(계) 토기(寺井 誠 2008의 논문에서 전재)

적 출토품<sup>18)</sup>을 제외하면, 한반도, 특히 남해안 일대에서 그 수량은 매우 희소하다. 현재까지 남해안 일대의 주요 유적에서 이 시기의 외래(계) 자료가 희소한 점을 고려하면, 동외동유적 출토 외래계 자료들은 이 시기의 해양 교류사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이 시기는 한반도 남부 지역의 변한 소국들이 주변의 집단들을 통합하여 보다 큰 정치체로 발전하는 전환기에 해당된다. 이 전환기에 있어 대외교류가 정치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므로 이를 구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동외동유적에 다수 존재하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고성 동외동유적은 고성 지역의 생활문화 구명 및 복원은 물론 김해 봉황동 유적과 더불어 남해안 일대의 변한~가야 정치체의 형성 및 발전 과정과 양상, 기원 1~3세기 남해안을 무대로 한 동북아시아 지역과 집단의 해양 교류의 모습, 특히 녹도 등 도서지역의 해양 국제교류의 중개기지 역할이 쇠퇴하고, 그 대안으로서 연안지역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모습이 동외동유적에 잘 드러나는 점은 이 시기 해양 국제교류의 변화 실상 이해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소가야 양식 토기의 성립과 확산 등의 양상 해명과 이해를 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주요 문화유산임에 분명하다. 이러한 가치를 지닌 동외동유적은 경상남도 기념물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여 그 위상을 높이고, 남해안의 핵심 유산으로 보존 활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18) 김일규 2009, 「3. 가평 대성리유적의 원삼국시대 후기 취락」 『加平 大成里遺蹟』



## IV. 유적의 가치 제고와 국가지정 문화재의 승격을 위한 향후 과제

### 1. 유적 명칭의 적절성 검토와 대안 마련

동외동패총이란 유적 명칭은 생활쓰레기를 버려서 형성된 유적이란 의미로서 지금까지 실시된 발굴조사 결과를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유적 구성과도 부합하지 못하다. 발굴조사 결과 정상부의 의례유구군, 주거지군, 서쪽의 평탄대지 가장자리 일대에서 일부 확인된 환호와 구상유구, 사면부에 형성된 패총, 동쪽과 남쪽 사면과 평탄지에서 확인된 야철지 등 다양한 성격의 시설들이 확인된 복합유적이다. 따라서 패총이란 유적 명칭 사용은 유적의 내용과 가치를 왜소화 시킬 수 있다. 발굴조사 성과와 함께 역사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적 명칭이 시급하게 정해져야 한다. 과거 이곳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2. 유적의 범위 설정

지금까지 수차례의 시굴 및 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부분적인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이해가 되었지만, 유적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지점에 어떤 성격의 유구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특히 유적의 범위, 유적 형성 당시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유적 및 주변의 개발상황을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적의 전반적인 양상 파악은 물론 향후의 보존 관리 방안 수립 및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적의 범위 및 규모 파악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유적의 범위와 규모가 파악되어야만, 유적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의 출발이 시작될 수 있다.

I 장의 주변 유적 분포상황에서 설명되었듯이, 현 동외동유적 중심에서 북쪽과 서쪽으로 반경 600~700m 일대에서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확인된 동외동유적보다 시기가 빠른 기원전 2세기~기원전후 시기의 유구와 유물이 출토되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의 유구와 유물들도 확인되었듯이 동외동유적의 범위가 훨씬 넓었거나 주변에 동외동유적에 거주한 지배층들을 지탱한 중·소 규모의 집단들이 배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광범위한 지역 모두를 문화재 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당시 동외동유적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였던 범위만이라도 구체적으로 파악 설정되어야만, 문화재 지정 범위에 대한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유적의 범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만, 주민의 설득과 동의, 그리고 문화재 범위 설정의 적절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유적을 구성하는 유구의 성격과 분포 등에 대해 어느 정도의 파악이 되어야 고성 동외동유적의 가치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설명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전면적인 발굴조사를 시행하자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시·발굴조사 내용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

여 조사가 실시된 구간에 존재하는 유구 및 유물 등의 구체적인 성격과 시기별 특징, 그리고 관계 등에 대한 구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검토와 함께 향후 어떤 성격의 유구와 어느 지점에 대해 어떤 조사방법을 적용해서 구체적인 가치를 도출할 것인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최소 범위를 대상으로 한 시·발굴조사 등은 필요할 수도 있다.

### 3. 유적의 존속 기간 및 각 시기별 특징 구명

동외동유적의 존속 시기는 1969~1970년, 1974년, 1995년, 2021년 등의 조사 내용을 통해 볼 때, 기원후 2세기부터 6세기 후반까지임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주변 일대의 조사에서 늦어도 기원전후 이전으로 올라가는 삼각구연점토대토기가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동외동유적에서도 같은 시기의 자료들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남해안 일대에 분포된 김해 봉황동유적, 창원 성산패총, 내·외동패총 등 역시 늦어도 삼각구연점토대토기가 생산·소비된 시기에는 이미 유적이 형성되었음을 고려할 때, 동외동유적 또한 현재 파악된 시기보다 소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적 형성의 시작 시기에 대한 구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외동유적의 조사는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수차례 이루어졌고, 확인된 유구가 여러 기이고, 유물의 수량도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 발굴조사된 후 관련 조사 내용을 수록한 보고서는 간행되었으나 유구와 유물에 대한 정치한 연구는 거의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동외동유적의 유구 또는 유물을 분석한 연구 논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수혈·주거지·패총 등의 생활유적 출토품의 동 시기성 확보의 어려움은 존재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연구가 되지 않은 것은 다소 특이하다. 생활유적을 구성한 유구의 빈도와 구조, 각 유구간의 관계, 성격을 달리하는 유구(군)의 분포 양상은 해당 유적에서 전개된 역사상의 이해를 위해서는 매우 필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해당 집단의 발전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각 유구에서 출토된 유물의 전체적인 구성과 각 시기별 양상과 특징 등의 파악을 통해 동외동유적의 단계별 변천 모습과 함께 이곳에서 삶을 영위한 사람과 집단의 모습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져야 한다.

### 4. 송학동고분군과의 관계 구명

삼국시대 고성반도의 최고 지배층 고총고분이 분포된 송학동고분군의 실체는 불분명하다. 현재 1호분을 구성한 3기의 고총고분과 기월리 1호분 등 수기만 조사되었고, 그 시기 도 6세기 전반에 한정되어 전체적인 양상 파악은 어렵다. 현재의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학동고분군이 언제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고총고분으로의 전환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해명은 고성지역사의 구명은 물론 변한에서 가야 사회로의 발전과정의 이해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동외동유적의 유구 및 유물 구성과 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명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

## 貝塚, 環壕 그리고 防禦

다. 동외동유적의 양상 변화, 그리고 주위에 분포된 유적의 조성 시기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접근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V. 맺음말

고성 동외동유적은 지금까지의 발굴조사에 의하면, 늦어도 기원 후 2세기부터 가야가 멸망한 6세기 후반까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가야연맹체의 가장 핵심적인 생활유적으로서 고자국 지배층의 일상적인 생활모습은 물론 지배권력의 발전과정, 문화 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타임캡슐이다. 동외동유적의 실상이 제대로 파악되면, 변한~가야시기 고성 지역의 정체성은 물론 소가야연맹체의 성립과 발전 모습 등에 대한 해명으로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지면, 동외동유적이 조성되던 당시, 동외동유적을 중심으로 두고, 북서쪽의 구릉 일대에는 고총고분이 무리를 이루거나 점점이 분포하고, 고성만 서쪽 건너편 구릉의 만림산 토성에서 고성만으로 출입하는 사람과 물류를 감시·조망하는 경관이 연출된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경남대학교박물관·창원문화재연구소 1994, 『小加耶文化圈 遺蹟精密地表調査報告』
- 고성군·(재)삼강문화재연구원 2018, 『고성 동외동패총(경상남도기념물 제26호) 복원정비를 위한 기본조사 보고서』
- 고성군·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20, 『고성 만림산 토성-소가야 토성-』 고성 만림산토성 정밀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및 현장설명회 자료집
- 金東鎬 1984, 「固城 東外洞貝塚 發掘調査報告」 『上老大島』 東亞大學校博物館
- 김두철·박경도 2003, 『固城東外洞遺蹟』 국립진주박물관
- 김인회 2012, 「중국 창강(長江) 유역과 한국 남부지방의 해상교류 연구」 『도서문화』 40,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 김일규 2009, 「3. 가평 대성리유적의 원삼국시대 후기 취락」 『加平 大成里遺蹟』
- 김정완·권상열·임학종 1990, 『固城 栗垆里 2號墳』 國立晉州博物館
- 김종철·서오선·신대곤 1992, 『固城貝塚發掘調査報告書』, 국립중앙박물관
- 東亞大學校博物館 1984, 『加耶文化圈 遺蹟精密地表調査報告-慶南 固城郡-』
- 沈奉謹 2005, 『固城松鶴洞古墳群-第1號墳 發掘調査報告書-』 東亞大學校博物館
- (財)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2013, 『固城 基月里 1號墳』
- 재)삼강문화재연구원 2021, 『고성 동외동패총(경상남도 기념물 제26호) 정비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시·발굴조사 약보고서』
- 조선대학교박물관 2003, 『영광 마전 · 군동 · 원당 · 수동유적』
- 한겨레문화재연구원 2012, 『고성 송학리 309-1번지 유적』
- 寺井 誠 2008, 「中繼地の形成」 『九州と東アジアの考古學』 九州大學考古學研究室 50周年記念論文集



# 토 론 문 1.

---

「고성 동외동 유적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의 토론에 참가하며





## 「고성 동외동 유적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의 토론에 참가하며

이영식(인제대학교 명예교수)

—

고성군은 1974년 12월 28일 경상남도기념물 제26호로 지정된 ‘고성 동외동 패총’을 반세기 만에 ‘고성 동외동 유적’으로 승격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 도기념물의 명칭을 중시한다면, 본 학술대회의 목적과 명칭은 ‘사적 지정’이 아니라, ‘사적 승격’이 되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원래 도기념물의 명칭이 ‘동외동 패총’인데 반해, 금번 고성군이 추진하는 사적 지정에는 패총(貝塚)의 성격 위에 근년의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었던 제장(祭場), 환호(環濠), 주거(住居), 묘역(墓域), 제철(製鐵) 등의 요소들이 추가 포함될 필요가 생겼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이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복합유적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기 위해 ‘고성 동외동 유적’이란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사적 승격’보다는 새로운 ‘사적 지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결국 금번 학술대회의 작명은 매우 적절했던 것이었다. 고성 동외동 유적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김해 봉황동 유적도 처음 1963년에 사적 제2호 ‘김해 회현리 패총’으로 지정되었다가, 금번 동외동 유적과 같은 이유에서 2003년에 ‘김해 봉황동 유적’으로 재지정되었다. 좋은 비교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二

### 1. 강경연 「고성 동외동패총의 조사현황과 최신 조사성과」를 읽고

첫째, 2017년 도리이류조(鳥居龍藏)의 조사에서 동외동 패총을 ‘당산(堂山)패총’으로 불렀다는 복명서의 소개와 1992년 국립중앙박물관의 보고서에 첨부된 동외동 패총의 지도에 기입된 ‘당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산(堂山)은 전통적으로 토지나 마을의 수호신이 모셔지는 산이나 언덕이다. 함안 ‘고당(高堂)유적’의 입지가 당산(堂山)으로 전해지고, 소배경의 발표에서도 가음정동패총의 입지가 당산으로 소개되었다. 이러한 전승지명은 동외동 패총의 제장적 성격을 생각하는데, 중요한 민속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까지 불러왔던 당산의 기원과 전승에 대해 문헌적이나 민속학적으로라도 좀 더 추적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둘째, 2018년 삼강문화재연구원 지표조사에서 채집되었다는 유리질 철재(鐵滓)와 노(爐)벽편에 대한 전문가 자문 검토를 거쳤는지? 거쳤다면 분석 결과는 어떠했는지가 궁금하다. 해당지의 소유권 행사 문제로 발굴조사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적 지정 신

## 貝塚, 環壕 그리고 防禦

청서 작성 첨부 자료로서 이 슬래그와 노벽편에 대한 전문가 분석의견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2. 소배경 「남해안의 고지성집락과 환호」를 읽고

토론자는 김해 양동고분군, 김해 양동산성과 함께 김해 유하리 패총을 <삼국지>의 별읍(別邑)이나 소도(蘇塗)로 보는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다. 발표자는 환호의 기능에 대해 고지성집락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와 같이, 군사적 방어적 기능과 위협적 경관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창원 남산유적을 제외하고 부산, 김해, 창원의 고지성취락 환호의 규모가 방어적 기능이나 위협적 경관 연출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아닐까 한다. 동외동 유적 정상 중심부의 제사수혈에서 출토된 조문청동기나 인접 환호와 패총에서 출토된 화천, 청동대구고리, 낙랑계 방추차와 같은 상층 계층의 유물 등을 고려한다면, 폭 1~2m 정도의 소규모 환호는 방어기능 보다는 신성한 공간의 보호와 구분을 위한 설치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시된 고지성취락의 내부와 환호에서는 무기(武器) 보다는 제사의기 같은 무구(巫具)가 주로 출토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하다.

### 3. 홍보식 「고성 동외동(동외동패총)의 가치와 사적 지정 필요성」을 읽고

본 발표에서 제시된 동외동 유적의 가치와 사적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가할 내용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고민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발표에서 추출 정리된 동외동 유적의 가치를 잘 소화하고, 제시된 향후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사적 지정의 길은 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토론자의 책무 수행을 위해서라도 몇 가지 의문과 의견을 부쳐 보고자 한다.

첫째, 동외동 패총이 아니라 '동외동 유적'으로 명명하고, '변한·가야 시기 소가야 지배층의 거주공간'으로 정의했던 전제는 유적의 가치와 사적 지정의 필요성을 잘 대변해 준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변한의 변진 고사포국'이라는 이해에는 문제가 있는 듯하다. 고사포국(古史浦國)은 <삼국사기> 물계자전에서 확인되는 용례로, 변진한이나 변진으로 기록한 고성의 가야정치체 '고자미동국(古資彌凍國)'은 <삼국지>의 표기였다. 더구나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변한(卞韓)'은 이미 혁거세 19년(B.C 39)에 신라에 투항한 것으로 처리된 이후에 변한의 표기는 전혀 보이지 않게 된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나해이사금 17년(212)에 보이는 고사포국은 가야는 될 수 있어도 변한이 될 수는 없다.

셋째, '소가야연맹체' 보다는 '소가야문화권'이 적절하지 않을까? '연맹체' 실존의 논쟁도 있지만, 고고학에서 추정하는 5세기 이후의 소가야연맹체와 <삼국사기>와 <삼국지>가 기록한 3세기 초와 후엽의 고사포국과 고자미동국의 기록과도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동외동 유적의 사적 지정 정당성이 주장되기 위해서는 동외동 유적과 유사한 성

격과 가치를 가지는 기존 사적과의 구체적인 사례 비교가 필요하다. 김해 봉황동 유적, 부산 동래 패총, 창원 성산패총 등은 언급되었으나 구체적인 사례 비교가 필요하고, 사천늑도유적, 해남 군곡리패총, 시흥오이도유적, 창녕비봉리패총 등과의 사례 비교를 통해 사적 지정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21년 삼강문화재연구원의 발굴조사에서는 ‘大泉五十’명의 화전(貨泉)이 출토되었다. 고성 동외동 유적의 가치를 보다 확실하게 인지시킬 수 있는 절대적 호재인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고사포국의 해양왕국적 위상을 웅변하는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연구의 보완이 필요하다.

여섯째, 발표자는 동외동 유적의 가치 발견에 대해 송학동고분군과 만림산토성의 조사와 연구성과의 연계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극히 적절한 지적이다. 다만 근래에 입법 발효된 역사문화권정비법 추진사업의 핵심 요소로서 동외동 유적을 위치시킬 필요가 있다. 송학동고분군, 만림산토성, 그리고 남산토성과 같은 인근의 비지정문화재 등과 함께 ‘소가야 왕도의 부활’이나 ‘해상왕국, 소가야’ 같은 하나의 일관된 스토리 속에 핵심 유적의 정비 가 제안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일곱째, 사적 지정의 시급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동외동 유적의 복단(복지관 쪽)과 남서단(교육청 쪽)은 건축과 도로개설로 절단되어 버렸고, 서측에는 대형 주차장이 개설되었으며, 지정구역 내에서도 항상적인 경작이 진행되고 있는 등 동외동 유적에 대한 개발의 압력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사적 지정을 통한 유적 보호의 시급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발표자는 우선 과제로 유적 범위 설정과 함께 최소 범위 시·발굴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북서쪽 600~700m 일대 관련 유물의 출토지 등의 포함을 제안하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도 인정하여 핵심적 범위만은 파악 설정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핵심적인 범위란 어떤 범위를 말하는 것인지? 현재 도기념물의 지정구역을 말하는 것인지가 궁금하다. 나아가 유적 범위의 설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지표가 범위 설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추가 설명을 부탁한다.

아울러 2018년에 삼강문화재연구원이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했다는 교회 북쪽 인접지의 제철로(製鐵爐) 유구는 최소 범위의 발굴 대상에 최우선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듣기에는 토지소유권의 주장으로 발굴조사가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 우선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하고, 발굴 없이 사적 지정이 어려운 것임이 시민들에게 전파될 필요가 있다. 혹시 선 지정과 같은 방법은 없는지 지혜를 구하고 싶다.

### 三

끝으로 토론자의 생각입니다만, 동외동 유적은 고자미동국(古資彌凍國)의 소도(蘇塗)로

## 貝塚, 環壕 그리고 防禦

해석하면 어떨까 합니다. 나아가 이런 해석을 사적 지정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중심 요소로도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외동유적은 고성의 수호신을 모시는 당산(堂山)이었고, 그 전통은 근대의 지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외동 유적은 제장(祭場)의 특징을 보여주는 유구와 유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중 환호에 둘러싸인 정상부에서는 수많은 제사수혈이 발견되었고, 그 중심에서는 제사장적 권위를 상징하는 조문청동기(鳥文靑銅器)가 출토되었습니다. 인접 환호와 패총에서는 해외교류 등을 담당하던 지배층의 존재하는 유물로 중국계의 화천(貨泉)과 방추차가 출토되었고, 제기로 쓰였을 왜 계통의 야요이토기가 출토되었습니다. 동외동 유적의 남쪽 사면에서도 청동의기인 왜 계통의 광형동모(廣形銅銚)와 한경(漢鏡)이 출토되었습니다.

정상의 제장, 2단의 주거지, 3단의 패총의 3단으로 구획된 동외동 유적의 공간구성도 제사의례 중심지로 계획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정상의 제장과 광장은 제사의례의 현장이었고, 부뚜막과 노의 수혈식 주거지는 제사를 뒷받침하는 행사와 조리를 담당하는 거주자들로 고구려 광개토왕릉 수묘인의 국연(國煙)과 간연(看煙)과 같은 성격으로 추정될 수 있고, 패총과 환호에서 출토되는 고배와 시루는 제기와 제수조리기 등으로 생각될 수 있으며, 주거지가 단기간에 재건축되는 현상은 부정을 씻어내는 ‘액막이’의 흔적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삼국지>가 기록한 1~3·4세기의 유물들로 고자미동국의 유산들이었습니다.

고성 동외동 유적은 <삼국지>가 기록한 전기 가야 시대의 소도(蘇塗)가 처음으로 확인되는 유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토 론 문 2.

---

『고성 동외동 유적 학술대회』토론 요지



## 『고성 동외동 유적 학술대회』토론 요지

이동희(인제대학교 인문문화학부)

### 1. 남해안의 고지성집락과 환호(소배경)

1) 발표자는 남해안 환호의 성격을 주로 고지성집락의 방어체제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그런데, 최근 청동기시대~원삼국시대 환호에 대한 연구 성과들을 보면 방어적 측면 외에도 의례적인 측면을 강조한 견해들이 적지 않다. 즉, 환호가 입지한 구릉 정상부는 하늘과 가까운 곳으로 제사행위가 이루어지는 의례공간으로 보거나 소규모의 환호는 ‘환구’로 별칭하여 소도로 보는 견해도 있다. 창원 남산유적이거나 울주 검단리유적에 비해 깊이 등에서 소규모인 동외동 환호는 방어시설로 보기 어렵고 신성한 의례공간에 대한 구획의 의미로 볼 수도 있다. 더구나 동외동유적의 경우, 1/5,000 지형도를 보면, ‘당산(堂山)’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통시대적으로 聖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동외동유적이 자리한 위치가 입지적 탁월성이 있어 고대뿐만 아니라 근현대까지 의례적 성격이 강한 곳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금도, 동외동 유적 가장자리에 종교시설인 교회가 자리하고, 1980년대에 동아대에서 동외동유적을 조사하게 된 계기가 천도교당 건설부지에 대한 긴급조사에 기인함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반적으로 구릉 정상부에 교회 침탑이 있는 경우들을 보면, 天神에 좀 더 가까이 닿기 위한 인간의 관념과 관련되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큰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발표자는 “이번 조사에서 주목한 것은 이중 환호의 구조와 패각층의 중복관계이다. 환호가 폐기된 이후 패각층이 형성된 것으로 보아 환호는 단기간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주장하였다.

발표자의 견해를 정리하면, 환호가 먼저 만들어지고(I기) 단기간에 폐기된 이후 패각층이 형성되었으므로 구릉 상부에서 확인된 주거지는 주거생활의 잔여물인 패각층과 동시기(II기)로 볼 수 있다. 유물로 보면 환호의 중심시기는 3세기, 주거지는 4세기대 무렵이다.

그런데, 발표자는 동외동유적을 거의 동일 시기 속에 두고 고지성 집락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어 재고를 요한다. 즉, 조문 청동기가 출토된 의례공간과 환호가 동시기이면서 I기에 조성되었고, 환호가 서서히 폐기되면서 주거공간과 패층이 주로 만들어진 II기로 구분해 보면 100년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의례공간으로 사용되는 시기에 바로 인접하여 밀집 주거공간이 조성되지는 않는다. 요컨대, 3세기 무렵까지 의례공간으로 사용되고 폐기된 이후인 4세기대 이후에 생활공간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계



구분을 통해 동외동유적의 성격을 논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 2. 남해안지역의 청동기문화와 정치체의 성장(조진선)

1) 전남지역 지식묘 부장품을 보면 서부권과 동부권이 뚜렷한 차이점이 보인다. 즉, 서부권에 비해 동부권에 더 많은 부장품들이 보인다. 특히, 청동기 부장품 중 비파형동검은 동부권에서만 보이고 서부권의 지식묘에서는 세형동검만 일부 출토되고 있다. 이렇듯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에서의 동검의 부장 양상이 다른 것은 시기차인지 아니면 지역성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수반도가 우리나라에서 비파형동검의 집중 출토지인데, 교역의 중심지인지 아니면 인근에서 비파형동검이 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2) 창원 진동리 지식묘와 김해 신문리 3호 석관묘에서 변형 비파형동검이 출토되었는데, 진동리식 동검으로 불린다. 초기철기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고 세형동검의 영향을 받아 변형된 것이라는 견해(이양수 2016)가 제시된 바 있다.

최근, 최종규(2021)는 김해 신문리, 창원 진동리, 사천 이금동, 남해 당항리 등의 비파형동검을 ‘석검형동검’으로 명명하고 같은 형식의 동검이 출토된 남해-사천-창원-김해 간의 네트워크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또한, 이 형태의 동검은 경남의 어느 지역에서 주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경남지역 출토 비파형동검은 다소 변형된 형식으로 지역성이 뚜렷한데, 상기 견해들에 대해 발표자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비파형동검의 원류인 요녕지방부터 한반도 중부지방, 전남동부권, 경남남해안의 비파형동검에 이르기까지 지역적 특수성과 지역별 비파형동검의 절대연대에 대해 여쭙보고 싶습니다.

3) 발표자는 “청동기의 원료산지는 납동위원소비 분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기원전 2세기경에는 남한지역산 원료(강원도 동남부지역)를 많이 사용되었다.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전후경에 해당하는 청동기 중 경산 양지리유적 청동기들의 분석 결과를 보면, 남해안지역 청동기 역시 중국북부산 원료를 사용한 것들이 절대다수여서 중국북부에서 완성품 뿐만 아니라 청동원료도 함께 수입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남해안지역 청동기의 원료산지는 남한지역 원료를 사용하다가 중국북부산 원료의 비중이 급증한다. 그 시점이 기원전 1세기경인데 그 원인이 무엇일지 궁금하다. 혹시, 고조선 멸망 전후에 고조선 유민의 이주와 관련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4) 발표자는 “비파형동검문화의 무기조합을 보면, 이 시기는 여전히 전사적 부족사회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수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강제력을 수반한 수장권이 형성되어가면서 군장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에 이르기  
도 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주장하였다.

비파형동검이 많이 확인되는 요녕지역은 동검이 실용적인 무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 출토빈도가 훨씬 떨어지는 남한지역에서 비파형동검이 실용 무기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남동부권인 여수 적량동일대에서 보이는 장병충격무기(비파형동모)  
에 근거해 강제력이 수반된 군장사회로 보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세형동  
검문화기에 여수를 포함해 남해안일대 지석묘에서 장병충격무기가 보이지 않아 연속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여수 적량동 일대의 비파형동모가 단발적으로 출현했고 지속성이 담  
보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삼국시대가 되어야 장병충격무기가 본격화되어 군장사회로 전환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토론자의 견해와 같은 내용이 발표자의 논고에서도 확인된다. 즉, “세형동검문화  
기에 조영된 지석묘의 무기조합은 기본적으로 원격전용 투사무기(석촉)+근접전용 단병충격  
무기(세형동검 또는 석검)여서 청동기시대 지석묘와 다르지 않다. 초기철기시대에 조영된  
지석묘에서는 장병충격무기인 동모와 동과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양상은 지석  
묘사회가 세형동검문화와 접촉하고 난 이후에도 세형동검문화 사회만큼 복합화가 진행되  
지 못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석묘에서 동모·동과가 거의 확인되지 않은 것은 장병충격  
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은 사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세형동검문화와 접촉한 이후에  
도 지석묘 사회의 사회·정치체제는 청동기시대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던 것으로 생  
각된다. ”

[참고문헌]

이양수 2016, 『김해 회현동 D지구 옹관묘에 대하여』, 『고고광장』18, 부산고고학연구회  
최종규 2021, 『V. 고찰』, 『남해 당항리유적』, 삼강문화재연구원



## 토 론 문 3.

---

‘고성 동외동패총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토론문



## ‘고성 동외동패총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토론문

김수환(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

고자국(소가야)의 중심지인 경남 고성군에는 93개소<sup>21)</sup>의 가야유적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송학동 고분군(국가사적)과 동외동 유적(도기념물)은 소가야사 규명에 가장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술적 중요성에 비해 근래까지도 체계적인 조사는 잘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출토유물에 대한 일부 연구를 제외하면 소가야사 전체의 관점에서의 연구는 지체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패총을 포함한 동외동 유적은 손꼽히는 가야시대 생활유적이면서도 동일한 성격의 금관가야의 김해 봉황동 유적(국가사적) 등에 비해 조사연구와 복원정비가 전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실시된 동외동 유적의 지표, 시굴,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유적의 구조는 물론 소가야 생활상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고고학 정보를 축적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동외동 유적은 학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도심 속 유적으로서 활용 가치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승격 지정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1. 학술조사 성과로 본 동외동 유적의 공간활용(강경연 선생님)

발표자께서는 고성 동외동 유적의 일제강점기 이래 2000년대까지의 조사경과와 최근 조사성과와 의미에 대해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의 본격적인 학술조사는 유적의 성격과 공간활용 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동외동 유적의 학술적, 보존적 가치를 더욱 높여주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학술조사 성과를 종합하면, 동외동 구릉의 정상 평탄지에 광장(廣場)을 두고 동쪽에는 주거시설이, 북쪽에는 의례수혈이, 그 아래 사면부에는 이를 감싸고 돌아가는 환호가, 그 아래에는 패각층이 분포하며, 그 아랫단의 남쪽과 동쪽에는 제철시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유구들의 공간배치는 가야전기 생활상의 특징을 파악하고 복원하는데 중요한 자료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외동 유적의 북쪽과 동쪽 구간은 아직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남쪽 구간은 현재 발굴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미조사구간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발표자께서 생각하시는 동외동 유적 전체의 공간활용과 유구배치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①일정장소에서의 반복 굴착행위, ②자연상태 방치행위, ③입지에서의 공간분리,

21)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9, 『Magazine가야』1(p.76)

④유물의 파쇄·산견 등 특정 행위 등을 근거로 의례수혈(제의시설)로 규정<sup>22)</sup>된 부정형의 수혈군에 대해 다른 용도나 용도 전환의 가능성은 없는지 발표자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2. 동외동 유적 조성집단의 성격(소배경 선생님)

발표자께서는 동외동 유적을 김해기 패총시기 양산-부산-김해-창원을 잇는 남해안의 대표적인 고지성집락으로서 고자국(소가야) 해상교역활동의 중심지이자 최고 지배집단의 생활공간으로 이해하고 계시며 이에 대해 학계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외동 유적은 송학동 고분군과 울대리 고분군 사이에 위치하여 상하 위계의 두 고분군과의 관계성을 단정 짓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동시기 김해 봉황동 유적의 원형계 대형주거지가 지름 10m에 이르는데다 유적에서 출토되는 외래계 교역품 외 위세 품 등의 유물상을 비교하면 동외동 유적을 최고 지배집단의 생활공간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봉황동 유적 내 회현리 패총 전시관 부지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골 각기를 통해 제골전문공방(製骨專門工房)의 존재를 설명하셨는데 혹시 고자국 지배집단의 생활공간은 별도의 장소에 위치하고, 동외동 유적은 군사전문집단 또는 제철 및 철기유통, 교역 등 특수 생업집단의 주거 및 주거공간일 가능성은 없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3. 동외동 유적의 시기별 경관과 성격변화(소배경 선생님)

현재 동외동 유적의 도문화재 지정범위는 구릉 정상과 사면부 일대로서, 환호, 패총, 주거지, 수혈 등을 통해 3~4세기를 중심연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자께서 설명한 대로 유적의 전체 범위는 동외동 구릉을 포함한 평지 일대까지로, 그 규모는 지름 300m 전후, 면적은 70,000여㎡에 이릅니다. 아울러 이곳에서 출토된 유구와 유물을 고려하면 동외동 유적은 2~6세기의 연대를 가집니다. 따라서 동외동 유적의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릉뿐만 아니라 평지 일대의 양상 파악도 중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설명하셨듯이 방어가 유리한 구릉 정상에 입지한 고지성집락은 점차 평지로 확장되고 방어시설은 환호에서 토성으로 변화하는데, 동외동 유적은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주는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향후 발굴조사를 통해 여러 사항에 대한 규명이 더 필요하다고 전제하셨지만, 지금까지 파악된 동외동 유적의 경관과 성격의 변화과정을 시기별로 간략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홍보식 선생님의 발표문 IV-3과도 관계된 것입니다. 또한 최근 도문화재로 지정된 5세기 말~6세기 초 축성의 만림산 토성과 동외동 유적은 어떠한 관계였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 4. 동외동 유적과 소가야 해상세력 실제 규명을 위한 조사방향(소배경 선생님)

동외동 유적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으로 지금까지의 발굴조사를 통해 대강의 성격과 공간배치·구조 등을 파악한 것은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발표자께서는 향후 동외동 유적과

22) 국립진주박물관, 2003, 『고성동외동유적』(p.17)

관련한 조사방향으로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외동 구릉 아래 평지의 성토구조물의 존재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이고(p.18), 다른 하나는 소가야 해상세력의 실제규명을 위해 동시기인 남산토성, 만림산토성을 함께 조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p.22). 이 중 전자의 경우 동외동 유적(평지부) 외연에 토성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은데 그 가능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외동 유적 조성집단의 성격 규명에 제철과 관련한 고고학 자료 확보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2018년 삼강문화재연구원의 정밀지표조사에서 확인된 동외리 249번지 일원의 추정 제철시설의 현황과 학술적 가치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 Memo

---

---

고성 풍의풍패총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 貝塚, 環壕 그리고 防禦



(재)심강문화연구소

심강문화연구소는 문화재청 지정 심강문화유산 연구기관이다.

52608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박곡길66

Tel. 055.744.4704/Fax. 055.744.3705 | <http://www.gai.or.kr>